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육학석사학위논문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민교육적 함의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Factors Affecting Voting Turnout and Their Eviden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2013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유 혜 영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민교육적 함의

-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Heemin Kim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 일반사회전공

유 혜 영

유혜영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2년 12월

위 원 장 _____(인)

부위원장 _____(인)

위 원 _____(인)

국문초록

투표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시민들이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정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이렇듯 투표는 정부를 선출하고 심판하는 기능을 통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투표가 지니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사회는 지속적인 투표율 저하 현상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젊은 유권자를 중심으로 심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하면서, 우리사회에 '참여의 위기'이자 '대표성의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

'참여'는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있는 사회과 교육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사회과에서는 '능동적 시민성', '참여하는 시민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투표율 저하 현상으로 대변되는 '참여의 위기', '대표성의 위기'는 사회과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동안 사회과 교육에서는 참여가 지니는 교육적 효과에 주목하고, 참여를 강조해왔다. 이는 사회과 교육 내에서 참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참여교육에 대한 방법적 논의를 활성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속에 참여의 원인에 대한 검토 혹은 참여의 부재에 대한 원인 진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참여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대한 요인 분석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참여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투표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시민교육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유권자가 지닌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정치적 행동 요인을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검토하였다. 사회과의 목표가 '지식을 갖춘 시민', '가치・태도를 지닌 시민', '행동

하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틀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교육이 강조점을 두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1-1. 유권자가 사실적 지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1.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2-1.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2. 유권자의 시민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3. 유권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에 만족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4. 유권자의 민주주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3-1.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선거는 1992년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부

터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여섯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이다. 단일 선거 분석을 지양하고,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더욱 초점을 두고자 했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가설 1]의 검증 결과, 유권자의 사실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TV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 참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의 영향력은 검증 되지 않았다.

둘째,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의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한 [가설 2]의 검증 결과, 유권자의 정치적 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주의 지지도는 투표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행동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 [가설 3]의 검증 결과,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은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능동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회과 시민교육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요인들이 사회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얼마나 반영되어있는지 알아봄으로써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다. 이는 향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개선 방안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되어야할 내용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 준다.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유권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 지식적, 태도

적, 행동적 요인 모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유권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서는 어느 한 측면에서 매몰되기 보다는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적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지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준다. TV나 일간신문에 대한 이용 빈도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사회과 내에서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해준다.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NIE 교육이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제기된다. 또한 정치활동의 경험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는 최근 사회과에서 강조되고 있는 참여 학습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재확인시켜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투표, 국회의원 선거,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정치적 행동, 시민교육

학 번 : 2011 - 21538

목 차

Ⅰ. 서론 ····· 1
1. 문제제기 ····· 1
2. 연구문제 및 논문의 구성 ····· 6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7

Ⅱ. 이론적 배경 ····· 9
1. 정치참여와 투표행위 ····· 9
1) 정치참여 ····· 9
(1) 정치참여의 개념 ····· 9
(2) 정치참여의 유형 ····· 11
2) 투표행위 ····· 15
2. 투표참여와 민주시민성 ····· 18
3.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6
1) 정치적 지식과 투표참여 ····· 28
(1) 정치적 지식의 개념 ····· 28
(2) 정치적 지식의 측정 ····· 29
(3) 정치적 지식과 투표참여의 관계 ····· 34
2) 정치적 태도와 투표참여 ····· 41
(1) 정치적 태도의 개념 ····· 41
(2) 정치적 태도의 유형과 측정 ····· 42
(3) 정치적 태도와 투표참여의 관계 ····· 53
3) 정치적 행동과 투표참여 ····· 61
(1) 정치적 행동의 개념 ····· 61
(2) 정치적 행동의 측정 ····· 61
(3) 정치적 행동과 투표참여의 관계 ····· 62

4. 선행연구 고찰 ····· 65

Ⅲ. 연구 가설 ····· 67

1.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 67

1) 종속변인 ····· 68

2) 독립변인 ····· 68

(1) 정치적 지식 ····· 68

(2) 정치적 태도 ····· 69

(3) 정치적 행동 ····· 70

3) 통제변인 ····· 70

2. 연구 가설 ····· 72

Ⅳ. 연구 설계 ····· 73

1. 분석 데이터 ····· 73

2. 분석 방법 ····· 75

3. 연구 모델 ····· 76

Ⅴ. 연구 결과 ····· 79

1. 기술통계 ····· 79

1)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 79

2) 독립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 81

3) 상관관계 분석 ····· 82

2. 로지스틱 회귀분석 ····· 84

1) 정치적 지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84

2) 정치적 태도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86

3) 정치적 행동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88

4)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89

Ⅵ. 요약 및 결론 ····· 94
1. 요약 및 논의 ····· 94
2. 사회과 정치교육에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 100
3. 제언 ····· 102

참고문헌 ····· 103
[부록1] ····· 121
[부록2] ····· 149
[부록3] ····· 152
[부록4] ····· 157
Abstract ····· 163

표 목 차

<표 Ⅱ-1> Verba, Nie, & Kim의 정치참여 유형 ····· 12
<표 Ⅱ-2> Milbrath & Goel의 정치참여 유형 ····· 13
<표 Ⅱ-3> Huntington & Nelson의 정치참여 유형 ····· 14
<표 Ⅱ-4> 2009 개정 『사회』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 20
<표 Ⅱ-5> 2009 개정 『법과 정치』교육과정의 내용체계 ····· 21
<표 Ⅱ-6> '좋은 시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 22
<표 Ⅱ-7> 정치 행태에 관한 척도의 분류 ····· 27
<표 Ⅲ-1> 주요 변인 및 분석틀 ····· 67
<표 Ⅳ-1> 역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시기 및 표본 크기 ····· 73
<표 Ⅳ-2>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변수 측정 지표 ····· 76
<표 Ⅳ-3> 역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측정 가능 변수 ····· 78
<표 Ⅴ-1> 종속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 79
<표 Ⅴ-2> 종속변인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 기술통계량 (19대) ····· 81
<표 Ⅴ-3>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19대) ····· 83
<표 Ⅴ-4-①> 17대~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90
<표 Ⅴ-4-②> 14대~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92

그 림 목 차

<그림 Ⅱ-1>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 (ESS, CID) ····· 24
<그림 Ⅴ-1> 실제 투표율과 여론조사 투표율 비교 ····· 80

Ⅰ. 서 론

1. 문제제기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시민들은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대표자를 선택하고, 정치적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시민들의 선택은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듯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에 있어서 시민들과 대표자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제로서 작용한다(Hague & Harrop, 2011, p. 213; Shively, 2008, p.251; 김욱, 2011, p.18). 이러한 맥락에서 Katz(1997, p.3)는 선거가 "현대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제도"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1948년 제헌의회선거를 시작으로 도입된 한국의 선거는 본래의 의미와 기능을 상실한 채 비민주적 통치구조 속에서 많은 한계를 노정하고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는 권위주의 정권의 정당성 확립과 정권 연장을 위한 도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관권선거, 동원투표, 준봉투표 등의 모습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왜곡된 관행들은 시민들의 저항을 불러일으켰고, 이는 4·19혁명과 6월 민주화운동을 촉발시켰다. 그 결과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필두로 선거정치를 정상화하려는 제도적 노력들이 시도되었다(안철현, 2003; 이남영, 2009).

하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달성한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8년 민주화 직후 진행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71.9%가 투표에 참여한 반면, 비교적 최근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인 46.1%만이 투표에 참여함으로서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약간의 반등 하는 모습을 보

였으나, 이 역시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이 참여한 수치를 보였다(54.2%). 이러한 하락 추세는 대통령 선거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1992년에 치러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81.9%의 투표율을 보인 반면, 제15대, 제16대,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각 80.7%, 70.8%, 63.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러한 투표율 저하 경향이 젊은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투표율 저하 추세는 비단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다. 이는 서구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2011년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투표율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34개의 OECD 회원국의 투표율은 오스트레일리아(+1%), 룩셈부르크(+3%), 스페인(+7%), 멕시코(+9%)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투표율을 기준으로 11% 하락한 모습을 보였으며, 구체적으로 최소 1%(덴마크)에서 최대 42%(슬로바키아)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1).

그러나 한국의 낮은 투표율 현상을 세계적인 투표율 저하 현상의 일부라고 안도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OECD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한국의 투표율(46%)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34위를 기록했다. 이는 가장 높은 투표율인 95%를 기록한 호주에 비해 49% 낮은 수치이며, OECD 평균 투표율인 70%에서 24%나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또한 지난 30년간 투표율 하락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의 투표율 하락 추세(-32%)는 슬로바키아(-42%)에 이어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했다. OECD 평균 투표율 하락 비율이 11%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한국의 투표율 저하 현상을 간과하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OECD, 2011).

이러한 투표율 저하 현상은 대의제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지닌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의제 하에서 선거는 유권자와 대표자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작용하기 때문이

다(김욱, 2011, p.18). 이러한 의미에서 유권자가 자신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일에 방관하는 행위는 “참여의 위기이자, 대표성의 위기(최장집, 2010, p.20)”를 야기한다.

물론 정치적 영역의 참여를 투표 행위에만 국한시킬 수 없기 때문에 단지 투표율의 저하 현상만을 두고 ‘참여의 위기’라고 속단하기 이르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실제로 민주화 이후 시민들이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수단이 확장되면서 선거와 관련된 관례적 참여보다 서명, 시위, 시민단체 참여와 같은 비관례적 참여가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더불어 비관례적 참여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투표를 통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가 염두하고 있어야 할 점은 비관례적 참여 양식을 통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려는 노력 뿐 만 아니라, 투표 참여를 통해서 기존의 제도의 의미를 복원하고, 그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노력 역시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영태, 2007, pp.65-66). 따라서 두 가지의 노력은 어느 한쪽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투표참여는 여전히 중요한 참여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투표율 저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점을 모색하는 과정이 단순히 투표율에 대한 수치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고취시켜,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는 방안 모색에 더욱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시민양성을 목표로 하는 교육의 역할이 강조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교육은 바람직한 유권자를 양성함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학교 교육은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그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실질적 의미는 구현되지 못한 채, 국가가 요구하는 자질을 함양한 ‘국민’의 양성에

보다 초점을 두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유권자 교육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김명정, 2012, p.22; 서현진, 2005, p.75, p.79; 전득주, 1995, p.40).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유권자 교육은 학교 교육 보다는 시민단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서현진, 2005, p.75). 특히, 사회과 교육의 경우 '민주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삼고 있고, '정치참여'와 '선거'를 직접적인 내용요소로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는 능동적 유권자 양성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사회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참여'나 '선거'에 대한 내용적 요소를 살펴보면, 학생들의 실질적인 참여 동기를 이끌기에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치참여'의 경우, 참여의 방식에 대한 기능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의 나열에 그치고 있으며,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당위적 차원에서 서술한 경우가 주를 이룬다. 선거의 경우, 독자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보다는 참여의 한 방법으로서 제시되고 있으며, 선거기능이나 제도에 대한 서술에 치우쳐 있다. 투표참여와 같은 선거 관련 이슈는 주로 심화학습이나 탐구활동 등에서 본문의 내용과 상관없이 단편적이고 비일관적인 질문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유권자의 주인의식을 강조하면서, 당위적 수준에서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논하는 서술이 주를 이루고 있다(서현진, 2005, pp.83-88). 따라서 능동적이고 참여하는 유권자 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교육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유권자의 참여 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 모색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유권자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투표율 저하 현상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그 선행단계로서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 동안 사회과 교육에서는 선거나 유권자 교육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양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를 분석하는 내용분석 연구에 치중되어 있다(김유미, 2007; 서현진, 2005;

이미영, 2007; 최진아, 2009; 황명순, 2009). 물론 이러한 연구 경향은 선거교육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단순히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유권자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선거'에 관한 연구의 흐름과는 달리 최근 사회과 교육 내에서는 '정치참여'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당위적이고 이론적인 시각에서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거나(유명철, 1998; 김대군, 2008), '정치참여'를 독립변수로 보고 그러한 참여가 지닌 교육적 효과를 분석하는 쪽으로 연구가 한정되어 있다(김영인, 1999, 2002; 곽한영, 2004; 박가나, 2008; 김명정, 2009). 물론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과 교육 내에서 참여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불러일으키고, 참여교육에 대한 방법적 논의를 활성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논의 속에는 참여의 부재에 대한 원인 고찰은 배제되어 있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닌다. 결국, 참여의 위기 현상을 극복하고, 진정한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참여를 증진시키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대 국회의원선거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미친 영향요인을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때 보다 일반적 경향을 관측하기 위해서 단일 선거에 대한 분석을 지양하고, 민주화 이후 치러진 총 여섯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과정을 통해, 이 연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사회과 교육 측면에서 지속적이고 바람직한 유권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도는 미래의 잠재적 유권자인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 욕구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탐색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연구문제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1992년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2년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여러 요인들에 대해 분석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에서 시민적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방안에 대해 모색하고자 한다.

앞 절에서 제시된 문제의식과 연구목적을 토대로 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그러한 요인이 주는 사회과 정치교육에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는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연구문제의 토대가 되고 있는 각각의 개념들에 대해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Ⅲ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고, 주요 연구변인들에 대해서 검토하며, 연구가설을 세분화하였다.

Ⅳ장 연구 설계 부분에서는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를 소개하고, 연구분석 방법 및 연구모델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Ⅴ장에서는 Ⅳ장에 제시된 연구 설계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Ⅵ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논의를 요약·정리하고, 그 결과들이 갖는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갖는 시민교육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당위적 수준에서의 참여를 강조했던 것에서 벗어나, 참여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통해 정확한 원인 규명을 시도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유권자의 투표참여 동기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셋째, 본 연구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의『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기반으로 한 역대 선거 조사자료(Korean Election Survey)를 이용하여, 실제 발생한 행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사회과 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참여 연구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지 않았다는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참여를 예측할 수 있는 태도나 행위의도에 국한되어 측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었다. 따라서 실제 행위에 대한 관측은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좀 더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이론 정립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적으로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 본 연구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실제 행동에 대한 원인을 고찰하여 일반적인 유권자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유권자가 아닌 학생을 대상으로 가능성을 예측하는 연구 역시 한계

를 지닐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에 더욱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권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존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비교적 최근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제16대 선거 이후부터는 설문문항의 구성이 거의 일치하고 있지만, 그 이전의 자료는 문항 구성이 미세하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한국의 선거를 경험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양적 자료이자, 비교적 신뢰도가 높은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Ⅱ. 이론적 배경

1. 정치참여와 투표행위

Pateman(1970)은 정치참여에 대한 개념이 학자들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때로는 임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Pateman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정치참여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분류는 학자들에 따라, 연구의 성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연구에 앞서 그 개념과 범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인 투표행위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정치참여의 의미와 방식에 대한 학자들의 대표적인 분류 방식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투표참여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탐색해보고자 한다.

1) 정치참여

(1) 정치참여의 개념

정치참여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Verba와 Nie(1972, p.2)에서 출발한다.

Verba와 Nie는 정치참여를 “정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개별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이들의 개념적 정의는 참여의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의식적(ceremonial)’이고 ‘지지적(supportive)’인 참여를 배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태도를 배제한 ‘직접적으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또한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참여로 한정했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체제 내에서’의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에서 협의적 의미의 정의라고 할 수 있다(Verba & Nie, 1972, pp.2-3; Verba, Nie, & Kim, 1978, pp.47-48).

Milbrath와 Goel(1977, p.2)의 정치참여의 개념은 Verba와 Nie(1972)의

개념에 비해 좀 더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들은 정치참여를 “정부의 활동을 포함한 정치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거나, 지지를 하고자 하는 개별 시민들의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 즉, Verba와 Nie가 정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만을 정치참여로 본 것과 다르게, 이들의 정의는 ‘의식적(ceremonial)’이고, ‘지지적(supportive)’인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광의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Rosenstone과 Hansen(2003, p.4)은 정치참여에 대해서 보다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들에 의하면 정치참여란 “사회적 재화와 가치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다. Rosenstone과 Hansen이 개념화한 정치참여의 주체는 ‘일반 대중’ 뿐 아니라 ‘정치 엘리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다른 개념과 차별성을 지닌다. 이러한 정치참여의 주체는 공적인 행위자 뿐 아니라 사적인 행위자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때 정치참여의 주체들의 ‘행위’는 직접적 행위 뿐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 역시 포괄하고 있으며, 체제 ‘내부의’ 활동 뿐 아니라, ‘외부의’ 활동 역시 포함된 개념이다.

Huntington과 Nelson(1977)의 정의는 앞선 연구들 보다 훨씬 광범위한 참여의 개념을 채택하고 있다. Huntington과 Nelson은 그들의 연구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하는 일반 시민들의 행위(Huntington & Nelson, 1977, p.5)”를 정치참여로 정의한다. 이러한 개념적 정의와 더불어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참여 개념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우선 첫째, 이들의 정치참여의 개념은 태도의 측면을 배제한, 실제 발생한 행위만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둘째, 일반 시민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 엘리트의 행위는 제외된다. 셋째,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의도된 행위에만 관심을 둔다. 넷째, 정치참여의 합법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고 의도된 행위가 모두 정치참여로 간주한다. 즉, 항의, 폭동, 시위 역시 정치참여 행위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자율적 참여 뿐 아니라, 동원된 참여도 정치참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Huntington & Nelson, 1977,

pp.5-8).

이처럼 정치참여에 관한 개념적 정의는 그 연구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실증적 연구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즉, 정치참여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누가 정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혹은 '더 많은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해야만 하는가?'와 같은 규범적인 접근 방식과는 다르게, 실제로 정치적 영역에서 '누가, 왜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혹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와 같은 접근법을 택한다(Verba & Nie, 1972, p.1; Hague & Harrop, 2011, p.264; 조성대, 2009, p.223).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연구의 목적 뿐 아니라, 자료의 접근성 혹은 연구의 엄밀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한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적합한 개념적 범위를 제한하고, 하나의 개념적 정의를 채택함으로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Rosenston & Hanson, 2003, pp.4-5; 박찬욱, 2005, p.150, pp.152-153; 김 욱, 2005, p.26).

정치참여의 개념적 정의가 다양한 것처럼, 정치참여의 형태는 다양한 범위와 다양한 차원으로 나타난다. 다양한 학자들의 정치참여 유형의 분류는 다양한 정치참여 수준들이 어떠한 점에서 비슷하며, 어떠한 점에서 대비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정치참여의 각 특징들에 대해서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다음으로 학자들의 정치참여 분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치참여의 유형

정치참여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적 정의의 다양성은 정치참여 분류의 다양성을 수반한다.

Verba와 Nie 등(1972, 1978)은 다섯 가지 차원에서 정치참여 유형을 분류했다. 첫째, 영향력의 차원이다. 이것은 특정 정치참여 유형이 개인들의 선호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지, 혹은 결과를 승낙해야 하는 압력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한다. 둘째, 결과의 영역이다. 결과가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특정한 좁은 영역에만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하는 차원이다. 셋째, 갈등의 정도로, 활동에 참여하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갈등의 정도를 나타낸다. 네 번째는 행위에 투입되는 노력 혹은 주도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마지막 차원은 활동에 참여하는 타인들과의 협력의 정도로, 활동의 수행이 다른 사람과의 협업을 필요로 하는지를 의미한다(Verba & Nie, 1972, pp.45-54; Verba, Nie, & Kim, 1978, pp.52-55).

이들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참여의 방식에 대한 요인분석(Factor Analysis)를 통해, 이들이 제시한 다섯 가지 차원에 적합한 참여의 유형 네 가지를 추출해냈다. 이는 <표 Ⅱ-1>과 같다.

이 네 가지 참여의 유형 중 투표와 캠페인은 선거관련 참여로, 공동체 활동과 개인적 접촉활동은 비선거적 참여로 분류했다. 투표는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이며, 캠페인 활동은 선거 운동에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선거 관련 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단체에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과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정부 관료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행위는 비선거적 참여로 분류할 수 있다(Verb & Nie, 1972, p.46).

<표 Ⅱ-1> Verba, Nie, & Kim의 정치참여 유형

참여의 유형	영향력	결과	갈등	노력 / 주도성	협력 정도
투표	높은 압력/ 적은 정보	광범위	갈등적	적음	거의 없음
캠페인 활동	높은 압력/ 적은 - 많은 정보	광범위	갈등적	약간	약간 혹은 많음
공동체 활동	높은 - 낮은 압력 / 많은 정보	광범위	차이가 존재	약간 혹은 많음	약간 혹은 많음
접촉	낮은 압력 / 많은 정보	특수적	비 갈등적	많음	거의 없음

* Verba, Nie, & Kim. (1978, p.55).

Milbrath와 Goel(1977)은 정치참여의 강도에 따라서 미국 대중들을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정치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는 검투사(gladiators) 유형, 둘째, 최소한의 정치적 참여만 하는 관중(spectators) 유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과정으로부터 물러서 있는 무관심자(apathetics) 유형이다. 특히, 활발한 참여를 하는 검투사 유형을 '관례적' 참여유형과 '비관례적'참여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관례적 참여는 정상적·합법적인 참여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관례적 참여에는 지역사회 활동, 정당 혹은 캠페인 활동, 의사소통 참여, 직접 접촉이 있다. 비관례적 참여에는 항의나 시위 같은 유형이 포함된다. Milbrath와 Goel은 미국 대중의 대다수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은 수동적 지지자로, 이들은 대부분 투표참여 같은 최소한의 정치참여만을 하고 있음을 지적했다(Milbrath & Goel, 1977, pp.11-21).

<표 Ⅱ-2> Milbrath & Goel의 정치참여 유형

		참여의 유형
활동적 참여 (검투사 유형)	비관례적 참여 (Unconventional)	항의
	관례적 참여 (Conventional)	지역사회 활동
		정당 혹은 캠페인 활동
		의사소통 참여
		직접 접촉
수동적지지 (관중 유형)		투표참여
무관심 (무관심자 유형)		비활동

* Milbrath & Goel. (1977, pp.18-19)의 내용을 일부 수정

Huntington과 Nelson(1977)은 범위(scope)와 강도(intensity)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참여의 유형을 구분하고자 했다. 이때, 범위는 특정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강도는 그러한 특정 행위의 규모, 지속성,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이들은 선거활동, 로비활동, 조직활동, 접촉, 폭력으로 정치참여 형태를 구분했다(Huntington & Nelson, 1977, pp.14-17).

<표 Ⅱ-3> Huntington & Nelson의 정치참여 유형

참여의 유형	구체적 활동
선거활동	투표, 캠페인 참여, 후보자 선전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모든 행동을 포괄
로비	정부의 관리와 정치 지도자들에게 접촉하려는 개인이나 집단의 노력을 포함
조직활동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목표를 가진 조직에 의한 활동
접촉	정부 관리에게 접촉하는 개인적 행동
폭력	사람이나 재산에 육체적, 물질적 손해를 입힘으로써 정부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유형

* Huntington & Nelson. (1977, p.14-17)의 내용을 표로 재구성

정치참여에 대한 다양한 학자들의 분류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정치참여는 다양한 원인과 다양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의 유형들을 단순히 정치참여라는 동질적인 변수로 다룰 수 없다. 참여의 범위와 수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묶을 것이며,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측정할 것인지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Huntington & Nelson, 1977, pp.17-18).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종속변인은 정치참여의 형태 중 투표이다. 정치참여의 다양한 분류 기준에서도 보았듯이, 정치참여의 각 유형들은 동질적인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본 연구의 중요 변인인 투표 의미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투표가 갖는 성질에 대해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한다.

2) 투표행위

‘대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많은 논쟁과 해석이 존재하지만, 대의제의 메커니즘이 기본적으로 선거 및 투표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Heywood, 2003, p.11). 이러한 선거는 ‘투표행위’를 통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결국, 투표라는 것은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가 실제로 대의제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해서는 경쟁적인 견해가 존재한다.

우선 선거의 기능에 대한 하향식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이 입장에 따르면 선거는 엘리트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당을 형성하며 여론을 주도하면서 시민들을 통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러한 입장은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정부에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와 크기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선거참여에 대한 효과를 의문시한다. 이와는 다르게 선거의 상향식 기능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다. 즉, 선거라는 메커니즘은 정치인으로 하여금 시민의 의사를 고려하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해야한다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시민들은 투표하는 행위를 통해 정치적 충원을 하고 대표자에게 대표성을 부여하며 정부를 형성하고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론적으로는 어떠한 것이 우세한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선거는 양면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결국 일정 부분의 한계는 존재할 수 있지만, 유권자는 선거에 참여하는 투표의 과정을 통해 정치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식적인 기회를 부여받게 되며, 정부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Heywood, 2003, p.449). 즉, 투표행위가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단기적이고 크지 않을 지라도 여전히 대중들은 선거를 통해서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다(Neimi, Weisberg, & Kimball, 2011,

pp.1-4). 이와 관련하여 Verba, Nie와 Kim(1978, p.14)은 투표참여는 대표자에게 높은 압력을 행사하는 활동이면서, 대표자가 시민들의 선호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점이 투표참여라는 정치적 행위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투표가 정부를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투표를 통해 시민들은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동시에, 투표를 통해서 대표자의 권한과 책임을 신임함으로써, 그들에게 상벌을 내릴 수 있다(조성대, 2009, pp.225-226). 또한 투표는 다양한 시민들의 관심을 집약적인 선택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제한적이지만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투표는 다양한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동등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게 해주는 제도적 장치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Powell, Dalton, & Strom, 2012, pp.112-113). 따라서 투표라는 행위는 대의제 민주주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혹자는 일반 시민들은 단순히 외부의 압력이나 선동에 의해 조작되고 동원되기 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주의 실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말한다. 즉, 모든 시민들의 참여는 민주주의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지지하는 자들은 오직 계몽된 지도자만이 현명한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민주주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한다(김영인, 2007, pp.50-53; 조성대, 2009, p.227).

하지만 특정 계층만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는 궁극적으로 엘리트주의를 양산하고, 정치적 불평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Lijpart(1997)는 시민의 일부만 참여한 투표는 결국 불평등한 투표이며, 이러한 불평등한 투표는 궁극적으로 불평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양산할 수 있다고 보았다. Lijpart에 따르면 투표는 다른 참여의 형태보다 덜 불평등한 참여 방식이지만, 여전히 편파적인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수준의 참여는 이러한 편파성을 강조시킨다고 보았다. 즉, 낮은 투표율은 특정 집단에게 불평등하고 편향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통선거'의 실현을 넘어선 '보편적인 투표율의 달성'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Lijpart, 1997, pp.1-3).

이러한 논의를 종합해 보았을 때, 결국 선거가 가진 편파성을 줄이고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의 투표참여가 필요하다. 나아가 높은 투표참여율은 대의제 민주주의를 건강히 유지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맹목적인 참여는 대중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참여의 강조와 함께 어떠한 참여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 이전에 참여의 부재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어떠한 요인이 참여를 증진 또는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바람직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참여의 원동력이 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투표참여와 민주시민성

‘사회과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는 사회과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근본적인 논쟁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회과가 ‘민주시민성’을 양성하고자 하는 교과라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가 존재한다. 즉, ‘시민성’은 사회과 교육의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민주시민’, ‘바람직한 시민’ 혹은 ‘좋은 시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바람직한 시민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의 답으로써 최근에는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참여를 강조하는 시각이 강조되고 있다.

Parker와 Jarolimek(1984, p.12)은 ‘좋은 시민(good citizen)’이란 지식을 갖추고 기능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민주적 가치에 대해 헌신하며 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보았다.

Woolever와 Scoot(1988, p.411)은 사적・공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민주시민성의 핵심적 요소이며 사회과 학습의 본질적 목표라고 보았다(차경수・모경환, 2008, p.66에서 재인용).

Newmann(1990)은 ‘훌륭한 시민’이란 단순히 무엇을 아는 것을 넘어서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사회변혁을 위해 실천하고, 행동하는 인간이라고 보았다(권오정・김영석, 2003, pp.80-81에서 재인용).

Banks(1999, p.6-7)는 사회과 교육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지식, 기능, 가치・태도와 더불어 ‘시민적 행동(citizen action)’을 꼽았다.

결국 종합해 보면, ‘좋은 시민’, ‘훌륭한 시민’이란 단순히 교실에서의 학습에만 그치지 않고,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생활에서 실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한다(차경수・모경환, p.69).

이러한 사회과의 목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의 「사회과 목표」를 살펴보면, 사회과에서 육성하

고자 하는 ‘민주시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 이를 위하여 학생들은 사회적 사실과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실과 개념을 배우고, 이를 자신의 주변 환경이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력을 지녀야 한다. 또 이러한 지식과 사고를 사회적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를 길러야 한다.”
>
> - 2009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 (2012, pp. 4-5) -

교육과정 속에 반영된 민주시민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한 시민으로서, 궁극적으로 이러한 것이 실천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개인을 말한다.

이처럼 공적인 생활영역 혹은 정치적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성’은 사회과에 있어서 핵심적인 교육의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래의 잠재적 유권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유권자 교육 역시 사회과 교육 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내용임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실천적 행동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으며, 학생들이 참여에 대해 얼마나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교육과정 상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적 요소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학교 교육에서 정치참여에 대한 요소를 얼마나 다루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Ⅱ-4>와 <표 Ⅱ-5>는 각각 2009 개정 『사회』교육과정의 내용

체계와 2009 개정 『법과 정치』교육과정 내용체계를 보여준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p.6, p.114).

<표 Ⅱ-4> 2009 개정 『사회』교육과정의 내용체계

<table>
<tr><th>학년</th><th>지리영역</th><th>일반사회영역</th><th>역사 영역</th></tr>
<tr><td>초등학교 3~4학년</td><td colspan="3">◦우리가 살아가는 곳 ◦이동과 소통하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
◦달라지는 생활모습 ◦우리지역, 다른 지역 ◦도시 발달과 주민 생활
◦촌락의 형성과 주민생활 ◦경제생활과 선택 ◦다양한 삶의 모습들
◦ <u>민주주의와 주민자치</u> ◦지역 사회의 발전 ◦사회 변화와 우리생활</td></tr>
<tr><td>초등학교 5~6학년</td><td>◦살기좋은 우리국토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우리 이웃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
◦세계 여러 나라의 환경과 생활 모습</td><td>◦우리 경제의 성장
◦우리나라의 민주정치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의 발전
◦정보화, 세계화 속의 우리</td><td>◦우리 역사의 시작과 발전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한 고려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
◦조선 사회의 새로운 움직임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민족운동
◦대한민국의 발전과 오늘의 우리</td></tr>
<tr><td rowspan="2">중학교 1~3학년</td><td colspan="2">지리영역</td><td>일반 사회 영역</td></tr>
<tr><td colspan="2">◦내가 사는 세계
◦인간 거주에 유리한 지역
◦극한 지역에서의 생활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
◦자연재해와 인간 생활
◦인구 변화와 인구 문제
◦도시 발달과 도시 문제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
◦글로벌 경제와 지역 변화
◦세계화 시대의 지역화 전략
◦자원의 개발과 이용</td><td>◦개인과 사회생활
◦문화의 이해와 창조
◦사회의 변동과 발전
◦정치 생활과 민주주의
◦<u>정치 과정과 시민참여</u>
◦경제 생활의 이해
◦시장 경제의 이해
◦일생생활과 법
◦인권 보장과 법
◦헌법과 국가기관
◦국민 경제와 경제 성장</td></tr>
</table>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한 환경 ◦우리나라의 영토 ◦통일 한국과 세계시민의 역할	◦국제 경제와 세계화 ◦국제 사회의 국제정치 ◦현대 사회와 사회문제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2012, p.144).

<표 II-5> 2009 개정 『법과 정치』 교육과정의 내용체계

영역	내용요소
민주정치와 법	◦ 정치의 의미와 기능. 민주정치의 발전과정 ◦ 민주정치와 법치주의의 관계 ◦ 우리나라 민주정치의 특성과 과제
민주정치의 과정과 참여	◦ 정부형태와 정치제도 ◦ 정당과 정당정치, 선거제도의 유형과 특성 ◦ 정치 참여의 의의와 유형
헌법의 기본원리	◦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원리 ◦ 기본권의 종류와 내용,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한계 ◦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개인 생활과 법	◦ 민법의 기본원리, 계약과 불법행위 ◦ 가족관계와 법 ◦ 재산관계와 법
사회생활과 법	◦ 형법의 의의, 범죄와 형벌의 종류 ◦ 형사절차의 이해 ◦ 사회법의 이해
국제사회의 법과정치	◦ 국제사회의 특성과 변화, 국제사회의 여러 문제 ◦ 국제법의 특성과 형태 ◦ 국제관계와 국가주권의 문제, 국제분쟁의 해결방식

*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별책 7]. (2012, p.144).

<표 Ⅱ-4>와 <표 Ⅱ-5>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참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공통 교육과정 내에서는 『사회』과목을 통해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3학년에서 각각 한 차례 다루고 있고, 선택 교육과정인 『법과 정치』과목을 통해 한 차례 다루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법과 정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 과목에 대한 학습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루어 볼 때, 결국 『법과 정치』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의 경우 교육과정 내에서 정치참여에 대해 배울 기회가 단 두 차례 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또한 선거나 투표참여가 독자적인 내용요소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정치과정 혹은 정치참여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전체 교육과정 내에서의 비중도 문제가 되지만, 교과 내에서의 비중 역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들이 정치참여 혹은 투표참여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험적 연구 결과는 이러한 우려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Van Deth(2007)는 시민성이란 행동적, 태도적, 규범적인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 중에서 시민성의 규범적 측면은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규범을 내재한 '좋은 시민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그는 '좋은 시민(good citizen)'의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봄으로서 시민이 생각하는 '좋은 시민의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Van Deth, 2007, pp.401-409).

모경환과 이정우(2004)는 사회과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이 사회과의 목표인 '시민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Ⅱ-6>는 '좋은 시민의 자질'에 대해 학생들이 중요시 하고 있는 측면을 중심으로 순위를 매긴 것이다.

<표 Ⅱ-6> '좋은 시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항목	순위
가. 정치적 차원	
1. 국가에 대한 충성 1) 국가의 법을 준수한다. 2) 국가에 대해 충성한다. 3) 국가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한다.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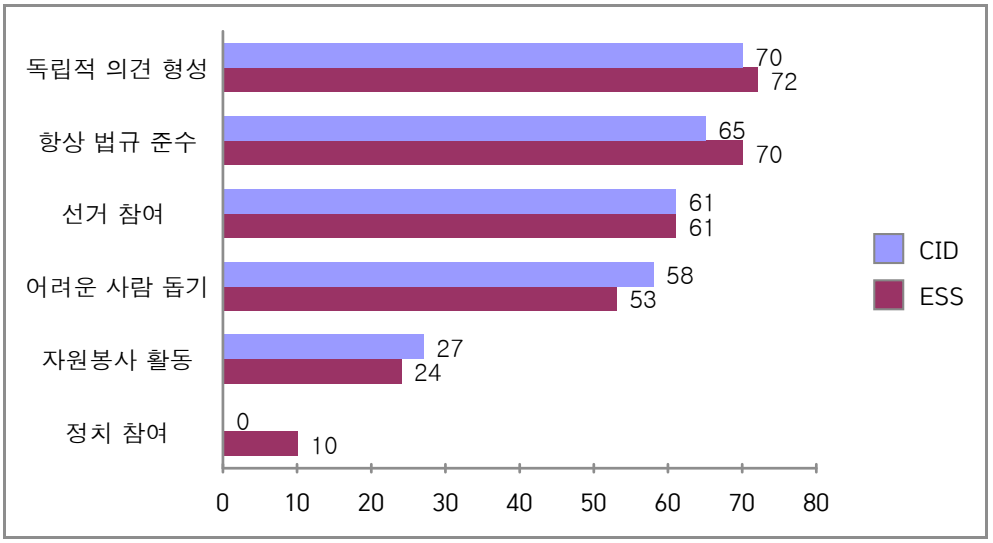
2. 정치적 참여와 관여 1)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한다.** 2) 정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다른 사람과 정치에 대해 토론한다.	8
3. 권위에 대한 복종 1) 정부에 대해 충성한다. 2) 공무원에게 순종한다.	9
4. 자원 활동 1) 언제나 공적인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자기 지역의 일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6
5. 정치적 자각 1)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신경을 쓰고 중요하게 생각한다. 2) 정치에 대해 지식이 많다. 3) 정기적으로 신문을 읽는다.	7
나. 비정치적 차원	
6. 신념과 원칙 1)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2) 원칙이 있는 사람이다.	5
7. 타인에 대한 배려 1) 타인을 배려한다. 2)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1
8. 일차집단에 대한 헌신 1) 착하고 신의가 두터운 친구이다. 2)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헌신적이다. 3) 좋은 이웃이다.	2
9. 도덕성 1) 정직한 사람이다. 2) 윤리적인 사람이다. 3) 신뢰할 수 있다.	3

* 모경환·이정우 (2004, p.73)의 표를 일부만 발췌

<표 Ⅱ-6>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정치

적 영역에서의 시민적 자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모경환・이정우, 2004, p.71).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선거 참여의 경우 다른 자질들에 비해 상대적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는 <그림 Ⅱ-1>에서 제시된 서구 유럽의 시민들이 생각하는 선거의 중요도와 많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물론 대상이 다르고 각 나라의 정치적 상황과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는 방식이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미래의 유권자인 청소년들이 정치적 참여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은 참여가 시민성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게 해준다.

(단위 :%)



<그림 Ⅱ-1> '좋은 시민'에 대한 인식[1] (CID, ESS)[2]

1) Van Deth. (2007). p.411

2) * CID : Denmark, Germany, Moldova, the Netherlands, Norway, Portugal, Romania, Russia, Slovenia, Spain, Sweden, Switzerland.

* ESS : Austria, Belgium, Swizerland, Czech Republic, Germany, Denmark, Spain, Finland, France, United Kingdom, Greece, Hungary, Ireland, Israel, Italy, Luxembourg, the Netherlands, Norway, Poland, Portugal, Sweden, Slovenia.

앞서 살펴본 사회과의 많은 논의들은 정치적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의 양성이 정치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주지시켜준다. 그러나 교육과정에서 선거나 투표참여를 다루는 비중이 낮다는 점, 그리고 실제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선거에 대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실제로 나타나는 투표율의 수치와 연결해 볼 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미래의 잠재적 유권자인 학생들의 투표참여 동기를 고취시키기 위해 교육적 측면에서의 대안 모색이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대안 모색의 선행 단계로서 어떤 시민적 특성이 시민들로 하여금 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향후 사회과의 정치참여 혹은 선거교육에 있어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하나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민주주의 사회에는 다양한 참여의 방식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적 참여 형태는 투표이다. 이러한 투표 참여의 중요성만큼이나 선거 연구는 정치 과정 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 영역이다. 선거 연구의 흐름은 크게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의 큰 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한 축은 선거 제도 연구 영역이고 또 다른 축은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연구하는 영역이다. 이 중 선거 연구에서 전통적으로 우위를 차지해 온 연구 영역은 미시적 연구 영역인 개별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연구하는 흐름이다. 이는 양적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서 기인한 바가 크다. 즉,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라는 행위는 개개인의 선택이나 결정을 묶어 하나의 집단적 결정으로 귀결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이러한 투표 행태에 관한 연구는 '투표 참여와 기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 '투표참여'에 대한 연구와 '유권자의 선호'가 연구대상이 되는 '후보자 선택'에 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김욱, 2008, pp.100-101, p.114; 김우태, 1998, p.386; 강원택, 2008, pp.302-303).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투표참여와 기권'에 관해서 다양한 경험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누가, 왜 투표에 참여하는가?' 혹은 '누가, 왜 기권하는가?'에 대한 해답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시각의 접근이 존재한다(강원택, 2008b, p.355; 전용주, 2009, p.14).

Robinson, Shaver, 그리고 Wrightsman(1999)은 정치 행태를 분석하는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여, 이들 속에 나타난 정치적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척도를 정리하는 작업을 실시했다. 이는 <표 Ⅱ-7>과 같다. 이들은 정치적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척도를 크게 정치적 성향, 정치적 태도, 정치적 행동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 기준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정치적 행동적 요소가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정치적 지식의 하위 요소로 '사실적 지식'과 '매체 노출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태도에 대한 하위 요소로는 '정치 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민주주의 지지도'를 중심으로 이들의 영향력을 검토할 것이다. 또한 행동에 대한 하위 요소로는 '정치활동 경험'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분류 기준은 정치학의 연구를 근거로 하고 있지만, 시민성 교육의 목표가 '지식을 갖춘 시민', '가치・태도를 함양한 시민', '행동하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검증하도록 해주며, 실제로 교육이 강조점을 두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 판단된다.

<표 Ⅱ-7> 정치 행태에 관한 척도의 분류

성향 (Disposition)	태도 (Attitude)	행동 (Behavior)
<u>정치적 정보</u> 정치적 선전 정당 일체감	이념적 성향(진보-보수) 정부 간섭 관용과 <u>민주주의적 가치</u> 인종 <u>정치 소외와 정치 효능 신뢰</u> 국제적인 태도 <u>시민적 의무감</u>	<u>정치적 참여</u>

* 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9, p.5)의 내용을 일부 재구성.

따라서 본 절에서는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정치적 행동에 대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우선, 본 연구가 초점을 두고 있는 정치적 지식, 태도, 행동에 대한 개념적 정의, 세부 유형, 측정 방식에 대해서 살

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식, 태도, 행동과 투표참여를 연결시킨 경험적 연구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지식(Political Knowledge)과 투표참여

(1) 정치적 지식의 개념

정치적 지식을 갖춘 시민은 민주주의의 유지와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적 지식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정치적 지식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Zaller(1990, p.126)는 정치적 지식에 대한 연구에서 '정치적 인지(political awareness)', '정치적 전문지식(political expertise)', '정치적 세련됨(political sophistication)', '인지적 세련됨(political sophistication)', '정치적 정보(political information)', '정치적 관여(political involvement)', '매체 노출(media exposure)', '정치적 관심(political interest)'의 용어들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Price(1999, p.596)는 정치적 지식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개념이지만,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정치적 지식을 '세련화(sophistication)', '전문지식(expertise)', '관여(involvement)' 혹은 '매체 노출(media exposure)'과 같은 조작적 정의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적 지식을 다루는 경험적 연구들 사이에 혼란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Delli Carpini와 Keeter(1996, p.10) 역시 그동안의 경험적 연구에서 정치적 지식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정립하려는 시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치적 지식이 모호한 특성을 갖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용어들이 실제로 강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지만(Delli Carpini & Keeter, 1993, p.1180; Price, 1999, p.596), 이들을 모두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Price, 1999, p.596).

Delli Carpini와 Keeter(1996, p.10)는 정치적 지식(political knowledge)을 "개인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치에 관한 사실적 정보"라고 정의

함으로써, 정치적 지식을 다른 지식의 형태와 구분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들은 이러한 구분을 통해 정치적 지식이 시민성을 구성하는 다른 필요 조건들과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지식이 '정보(information)'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지식이 정치적 태도(attitude), 가치(value), 신념(belief), 의견(opinion)과는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지식(knowledge)'을 논리, 추론, 담론, 참여, 혹은 민주시민의 다양한 요소들과 구분지어 보고자 했다. Delli Carpini와 Keeter(1996)에 의하면, 정치적 지식은 일종의 인지(cognition)이지만, 모든 인지적 요소가 정치에 관한 사실적 정보(factual information)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들은 정치적 지식을 인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으로 보았다. 또한 '사실적' 정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지식을 부정확한 인지로부터 구분하려고 했다. 그리고 정치적 지식이 인지되지 않은 정보, 혹은 식별할 수 있으나 단기 기억 내에 저장되는 정보와 달리, '장기 기억' 내에 저장되는 정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지식만의 특성을 규정짓고자 했다. 이러한 특징을 부여함으로써, 이들은 정치적 지식이 단순히 새로운 이슈나 사건을 제공하는 정보를 넘어서, 정치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지식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했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pp.10-11).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Delli Carpini와 Keeter의 개념적 정의를 받아들여 정치적 지식을 "개인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치에 관한 사실적 정보"라고 규정하고, 이러한 요인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2) 정치적 지식의 측정

이론적 영역에서 정치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영역에서 정치적 지식에 관한 연구는 한동안 학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영역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Erskine(1963)의 연구 결과를 통

해 살펴볼 수 있다. Erskine은 1947년에서 1962년 사이에 미국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의 문항에 대한 메타분석을 통해, 그동안 미국에서 진행되어 온 여론조사가 태도에 관한 질문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치적 지식에 대한 측정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했다(Erskine, 1963, p.133). Delli Carpini와 Keeter(1993) 역시 1964년에서 1980년까지 National Election Study (NES)의 여론조사 문항 분석을 통하여, 그동안 진행된 여론조사 문항 속에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이 많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았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p.1180).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가 단위의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변화를 알고자 하는 연구를 진행할 경우, 데이터의 사용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조사연구에서 사용된 정치적 지식에 관한 문항이 2-3개 내외로 제한적인 숫자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연구의 성격에 따라 특정한 시점의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항목으로 구성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Delli Carpini & Keeter, 1991, p.584).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들은 직접적으로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간접적인 방식으로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기도 한다(Price, 1999, pp.597-6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지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척도 중 직접적인 방식으로 사실적 지식의 수준을, 간접적인 측정방식으로 미디어 노출도를 측정하고자 한다.

①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측정 방식 중 가장 간단한 방식은 직접적으로 응답자의 기본적 지식을 테스트 하는 방식이다. Price(1999, pp.599-600)는 정치적 지식을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질문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 응답자로 하여금 특정 정책 이슈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7점 척도에 표시하라고 한 후,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적 위치를 표시하여, 응답자가 정치적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둘째, 가장 간단하고 직접적인 방식의 일환으로 응답자에게 저명한 정치적 인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물어보거나,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함으로써 정치적 지식 수준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유엔 사무총장의 이름은 무엇인지, 혹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름은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 인물의 이름을 제시하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들이 속한 기관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방식도 존재한다.

셋째, 정치나 공공문제(public affairs)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인지, 여당은 어느 정당인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방식은 두 번째, 세 번째 방식에 비해서 사실적 정치지식을 측정하는 문항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방식은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적 위치가 명확하거나, 명확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할 때만 의미 있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당이나 후보자의 이념적 위치가 명확하지 않거나, 상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지표로 응답자의 정치적 지식 정도를 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Price, 1999, p.599). 따라서 사실적인 정치지식을 측정하는 보다 적합한 방식은 두 번째 방식과 세 번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Delli Carpini와 Keeter(1991)는 사실적 정치지식 측정하는 항목을 학교에서 '배운 사실(taught facts)'에 대해서 묻는 문항과 시민으로서 늘 '주시해야 하는 사실(surveillance facts)'을 물어보는 문항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일반적인 정치적 지식으로서, 대통령의 권리는 무엇인지, 혹은 헌법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

인지와 같이 정치적 제도와 권리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다. 반면, 시민으로서 늘 주목하고 있어야 하는 사실은 현재 정치적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질문으로서, 현재 대통령은 누구인지, 현재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은 어디인지 등을 묻는 것이다(Delli Carpini & Keeter, 1991, p.598).

물론 이러한 측정 방식이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을 모두 구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측정하고자 하는 문항은 경우에 따라서 주관적일 수 있으며, 일정부분 편향(bias)되어 있을 수 있다. Zaller(1986, p.19)가 지적한 바와 같이, 여론조사에서 시민들의 지식 수준을 측정하는 항목들이 낮거나 중간 정도의 지식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선별하는 것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높은 수준의 지식을 지닌 사람들을 식별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하기도 한다. 현실적인 측면에서 데이터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구에서 정의하는 정치적 지식의 개념을 세밀하게 측정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연구들은 기존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항목이 전반적인 지식수준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효과가 있는 척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Delli Caripini와 Keeter(1993)는 1964년부터 1980년까지의 NES(National Election Study)의 문항에 대한 메타 분석을 통해, 사실적 지식(factual knowledge)'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를 측정하는 좋은 척도라고 하면서, 이러한 문항들이 유권자의 전반적인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Iyenger(1986)는 특수적 영역에 국한된 지식 측정은 오히려 효용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Zaller(1986) 역시 정치정보를 일반적으로 측정하는 척도가 영역 특수적 성격을 지닌 척도만큼 수행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결국, 기존의 문항이 보다 정밀한 측면에서 유권자의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정치에 대해서 무엇인가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제한적이지만 정치적 지식의 효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해준다(Zaller, 1986, p.19).

이론적 논의를 종합해보면, 기존의 여론조사의 문항은 제한적인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일반적인 정치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으며, 정치에 대해 무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별해 냄으로써, 집단 간 차이를 구분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통령의 이름이나 국회의원 임기와 같은 일반적인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문항과 지역구 당선인 이름이나 정당명 같은 선거에 관한 정보를 측정하는 문항을 가지고 유권자가 지니고 있는 사실적 지식에 대해 측정하고자 한다.

② 미디어 노출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직접적으로 응답자의 기본적 지식을 테스트 방식이지만, 직접적인 방식으로 측정할 수 없을 경우 연구자들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정치적 지식을 측정할 수밖에 없다.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이유로 정치적 지식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했다(Delli Carpini & Keeter, 1991, 1993, 1996; Erskin, 1962, 1963; Iyengar, 1986; Price & Zaller, 1993; Zaller, 1986, 1990, 1992).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는 응답자가 얼마나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물론 단순히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정치적 지식의 획득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Zaller(1992)에 의하면, 개인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즉, 노출된 정보를 '인식(reception)'하고, 이후 '수용(acception)'하는 단계이다(이소영, 2009, p.176). Dalton(2010)도 시민들의 정치적 세련화(political sophistication) 수준을 향상시키는 인지적 동원(cognitive mobilization) 과정이 정치적 정보를 수집하는 능력과 정치적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으로 구성되어 있

다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개인의 지식수준의 변화는 노출된 정보를 수용하고 난 이후에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미디어의 노출 정도만으로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미디어의 노출과 정치적 지식 사이의 상관 관계가 높으며, 시민들은 미디어에 많이 노출될수록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학력차에 의한 지식의 격차도 줄여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다(Clarke & Fredin, 1978; Dalton, 2010; Druckman, 2005; Eveland & Scheufele, 2000; Norris, 2000; Wagner, 1983; 김관규, 2008; 송종길, 2006; 이철한・현경보, 2007; 이효성・김인영, 2003; 조성동・김규찬・강남준, 2010).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매체의 종류 따라, 이용 동기에 따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씩 상이한 결론을 보이기도 한다. 때문에 미디어 노출에 의한 효과는 미디어의 종류, 미디어 이용 동기, 그리고 미디어 사용시간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Wagner, 1983, p.4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의 종류를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과 텔레비전', 그리고 전통적인 매체와 구분되는 특성을 지닌 '인터넷'의 효과를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미디어를 얼마나 활용했는지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여, 미디어의 이용 동기의 범위를 규정하고, 객관적인 수치로 미디어에 노출된 정도를 구분할 것이다.

(3) 정치적 지식과 투표참여의 관계

① 사실적 지식과 투표참여

정치적 지식을 갖춘 시민은 개인의 이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행위가 합법적이며 정당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판단을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효과적인 정치 행동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p.218). 따라서 정치적 지식

을 갖춘 시민은 참여에 있어서 더 적극적일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정치적 지식과 투표참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많은 경험적 이론들이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Palfery와 Poole(1987, p.526)는 1980년대 이후 미국 대선자료를 이용한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정치정보와 유권자의 투표행태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정보는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결론을 내놓았다.

Delli Carpini와 Keeter(1996, pp.224-226)의 연구결과도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은 1988년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 응답자의 상위 10%의 지식수준을 가진 유권자는 10명 중 9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하위 10%의 지식수준을 가진 유권자는 10명 중 단 2명만 투표에 참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태도, 행동, 인구사회학적 변인을 통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정치적 지식이 $p<.0001$ 수준에서 투표참여를 설명해주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Verba 등(1995, pp.358-363)의 연구결과도 정치적 지식이 투표참여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임을 증명하고 있다. 다른 변인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치적 정보는 투표참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

문우진(2009)은 미국 선거연구(American National Election Studies : ANES) 자료 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가지고 있는 통계적인 영향력에 비해, 정치정보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인구통계학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과대평가되었으며, 이러한 요인보다 정치정보의 영향력이 적극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동인이라고 하였다. 김민정・홍지영(2011), 배귀희・임승후(2009)의 연구 역시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은 유권자가 투표참여에 더 적극적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적 지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 외에 정치적 지식이 정치참여를 이끄는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pp.204-267; 송근

원, 2003; 이소영, 2011).

Delli Carpini와 Keeter(1996, p.230)는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은 시민은 그렇지 않은 시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일관된 태도를 지닌다고 보았다. Bartle(2000), Bennett(1989), Palfery와 Poole(1987), Zaller(1992), 김도경(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입장을 분명이 인지하고 일관된 추론을 하며 지속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송근원(2003)은 16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정치적 행태 분석을 통해,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인 정치적 관심도가 정치적 지식과 관련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관심도가 높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가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정치적 정보와 정치적 관심도 그리고 투표참여와의 관련성을 모색하였다.

이소영(2011)은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정치적 정보가 정치적 태도와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모든 유권자들이 정치적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정치참여 확률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정보 및 지식을 충분히 가진 유권자들은 정책에 대한 태도 및 이념성향, 후보자 및 정당선택, 그리고 투표참여에 있어서 실제 나타난 유권자의 태도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효과는 미미하지만, 유권자의 정치적 정보가 충분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정치적 지식이 정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이며, 결과적으로도 의미있는 정치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말해준다(이소영, 2011, p.39).

그러나 정치적 지식이 투표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정치적 지식이 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엄기홍, 2012; 조진만・최준영, 2009; 조진만, 2010). 이러한 분석 결과의 차이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선거가 다르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조작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일 수 있다. 혹은 다중공선성의 문제로 인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가 그렇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엄기홍, 2012, pp.47-48). 그렇기 때문에 보다 엄밀한 차원의 검증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지식의 효과에 대한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얻기 위해, 총 여섯 차례에 걸친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하여, 정치적 지식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때 정치적 지식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치에 관련한 '사실적 지식'에 한정한다.

② 미디어 노출도와 투표참여

미디어의 이용이 유권자의 참여 행태에 주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미디어 이용과 참여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관한 연구보다는 주로 미디어가 투표참여를 이끄는 요인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조성동・나은경, 2011, p.244).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디어 노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만약 미디어의 이용이 정치적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미디어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간접적인 추론이 가능하다. 이러한 추론을 중심으로 미디어 이용정도와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의 관련성에 주목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Dalton(2010, pp.58-59)은 대중매체의 확산으로 인해, 이전에 비해 시민들이 정치적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가 다양해졌을 뿐 아니라, 훨씬 더 용이해졌다고 하였다. 특히,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들이 정치적 정보의 원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정치적 정보가 확산되고 시민들의 정치적 각성 수준도 향상되고 있다고 하였다.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은 다른 매체에 비해서 정치적 지식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된다(Clarke & Fredin, 1978; Druckman, 2005; Wanger, 1983; 김관규, 2008; 이효성・김인영, 2003; 조성동・김규찬・강남준, 2010). 특히, 신문의 '읽기' 기능과 관련하여, 읽는 활동 자체가 전파매체에 노출 되는 것보다 지식의 획득에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분석도 존재한다(Bennett, Rhine, & Flickinger, 2000, p.168; Clarke & Fredin, 1978). Bennett 등(2000)의 연구는 '읽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수록 정치적 정보에 대한 획득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Hofstetter 등(1999)의 연구도 '읽기'와 지식의 관련성이 높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준다.

그러나 또 다른 전통매체인 텔레비전 뉴스의 이용이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 수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Clarke와 Fredin(1978)의 연구는 미디어의 교육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신문과 텔레비전 매체가 대중의 정보 습득에 얼마나 공헌하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를 통해 텔레비전을 시청한 사람들이 신문을 읽는 사람들에 비해 정치적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통해 텔레비전이 정치적 정보 습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신문에 비해 제한적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Wagner(1983)의 연구는 Clarke와 Fredin(1978)의 결과를 지지한다. Wagner는 1976년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64%가 텔레비전이 주요한 뉴스 정보원이라고 답했지만, 분석 결과 정치적 지식 획득에 있어서 텔레비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6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텔레비전 시청자보다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이 대선 후보들 간의 차이를 더욱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agner는 더 나아가 텔레비전 뉴스는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오히려 정치적 행동이 감소하는 경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Wanger, 1983, p.426-427).

그러나 최근의 연구 경향은 텔레비전 뉴스도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식

에 기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Eveland & Scheufele, 2000, pp.228-229; Dalton, 2010, pp.58-61; Norris, 2000, pp.246-258; 송종길, 2006; 이철한・현경보, 2007; 조성동・김규찬・강남준, 2010).

Eveland와 Scheufele(2000)의 연구는 인구통계학적 변수들, 캠페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신문 구독이라는 변수를 통제하고도, 텔레비전 뉴스를 더 많이 시청한 집단보다 적게 시청한 집단에서, 교육 수준이 차이가 나는 두 집단(높은 교육수준과 낮은 교육수준)의 지식의 격차가 더 큰 격차를 보인다는 결과를 얻었다. 즉, 텔레비전 뉴스가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두 집단 사이의 지식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론은 텔레비전 뉴스가 정치적 지식 차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Eveland & Scheufele, 2000, pp.228-229).

Norris(2000)도 1996년 National Election Study, 1997년 British Election Campaign Panel Survey의 여론조사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텔레비전 뉴스에 더 많이 주목하는 미국인, 영국인은 지식수준이 평균적인 수준보다 높다고 분석했다.

송종길(2006)의 연구는 TV토론의 시청이 정치적 지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조성동・김규찬・강남준(2010)의 연구 역시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다른 매체의 영향을 모두 고려했을 때, 텔레비전 뉴스시사 장르 이용도가 정치적 지식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한・현경보(2007)의 연구에서는 텔레비전 뉴스와 텔레비전 토론 모두 정치적 지식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뉴 미디어인 인터넷의 경우 다른 매체를 통제하고도 정치적 지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연구(조성동・나은경, 2011; 조성동・김규찬・강남준, 2011)와 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매체를 통제하면 영향력이 상쇄된다고 해석하는 연구(이철한・현경보, 2007)가 있다. 또한 정보 취득 동기에 따라서 영향력의 방향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조성동・나은경, 2011)가 있다.

조성동과 나은경(2011)의 연구 결과는 인터넷이 정치적 지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인터넷 이용자의 동기에 따라 효과는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인터넷 정보뉴스는 $p<.10$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한 교류 역시 $p<.001$ 수준에서 정치적 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을 주로 오락적으로 이용한 경우, $p<.05$ 수준에서 정치적 지식에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이철한과 현경보(2007)의 연구는 인터넷의 효과가 다른 매체에 의해 상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 매체의 개별 효과를 알아보는 분석에서 신문뉴스, 텔레비전 뉴스, 텔레비전 토론과 함께 인터넷 뉴스의 이용은 정치적 지식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매체를 통제한 상태의 회귀분석에서 텔레비전 뉴스와 텔레비전 토론만이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전통적인 매체를 모델에 포함시켰을 때, 인터넷의 효과는 상쇄되었다.

그러나 조성동・김규찬・강남준(2010)은 이철한・현경보(2007)의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매체 이용에 따른 정치적 지식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 결과 인터넷은 다른 미디어 효과를 통제하고도 정치적 지식 함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흥미로운 결과는 텔레비전 뉴스 시사 장르 이용자와 인터넷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또 다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즉, 텔레비전 뉴스 시사 장르 이용자는 인터넷에서도 이와 비슷한 정보를 선택적으로 선호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전통적인 매체인 신문의 경우 정치적 지식에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견해에는 논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텔레비전의 경우, 논란이 존재하지만 최근 이론적 분석의 결과들은 정치적 지식에 대한 텔레비전의 영향력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이용 동기에 따라 상이한 결론

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정치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TV 토론이나 뉴스는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인터넷도 정치적 지식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만, 이용 동기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다른 매체의 영향력에 의해 효과가 상쇄될 수도 있고, 다른 매체와의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전반적으로 매체에 따라 효과가 다를 수는 있지만, 이용 동기가 정보취득이 목적이라면 매체 이용 빈도가 증가할수록 정치적 지식 수준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적 지식 수준이 높아지면 투표참여 확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정보취득을 목적으로 한 매체 이용 빈도가 증가하면 투표참여 확률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보취득을 위한 매체 이용 빈도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정치적 태도(Political Attitude)와 투표참여

(1) 정치적 태도의 개념

Allport(1935, p.810)에 따르면, 태도란 “경험을 통해 조직화되는 것으로, 태도대상과 상황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직접적이거나 역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및 신경적 준비상태(한덕웅, 2005, p.165에서 재인용)”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태도 대상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 사물, 사건, 주제 등을 포괄하는 개념(한덕웅, 2005, p.165)”이다.

이러한 정의는 태도가 선천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화의 결과로서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정신적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실제 발생한 행위(behavior)는 아니지만 인간의 행위를 예측해 주는 설명력 있는 지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Abramson, 1983, p.35; 박정서, 2011, pp.8-9; 한덕웅, 2005, pp.165-169).

이러한 태도의 정의를 바탕으로, '정치적 태도'라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개인적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특정한 정치적 현상이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심리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서, 2011, p.9).

이러한 태도는 간혹 의견(opinion) 혹은 신념(belief)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하지만, 이러한 개념은 태도보다 협소하며 인지적인 측면이 강하다. 태도는 이러한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감정을 수반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Abramson, 1983, p.35). 정치적 태도 역시 태도의 일환이기 때문에, 매우 포괄적이며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서, 2011, p.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태도 변인으로서 정치 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민주주의 지지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정치적 태도의 유형과 측정

정치적 태도에 대한 연구는 Campbell 등을 주축으로 한 미시간학파에 의해 시작되었다. 미시간 학파는 전미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실증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단기에 변화하는 특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고자 하였다(Norris, 1998, p.15). 이러한 미시간 학파의 정치 태도에 관한 접근 방식은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쳐 현재까지 투표행태 연구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Norris, 1998, p.14; 전용주, 2009, p.16).

미시간 학파의 연구는 개인의 정치 행위를 설명해 주는 가장 강력한 태도 변인으로 '정당 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에 주목했다. '정당 일체감'이란 "유권자가 특정 정당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내면적으로 간직하는 애착심 또는 귀속감"을 의미한다. 서구의 경우, 정당 정치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이 자리 매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 일체감이라는 변수는 유권자의 행태를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간주되었다. 그

러나 한국의 경우, 정당의 수명이 길지 않았고, 정당간의 이합집산으로 인해 정당 정치가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의 선거 연구에서는 정당 일체감 보다는 '여야성향'이라는 변수를 기능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김형준, 2006, pp.275-276).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정당일체감은 한국의 유권자의 행태를 설명하는데 설명력이 높은 변인이 아님을 알 수 있다(권인석, 2000, pp.8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태도 변인으로 정치 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민주주의 지지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태도와 투표참여와의 경험적 관련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변인들의 개념적 정의와 측정방식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은 정치적 소외(political alienation)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치 효능감을 정치적 소외의 하위 요소로 보는 학자들도 있다(Abramson, 1983, p.207). 정치적 소외는 시민들이 정치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거의 미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태를 의미한다(Reef & Knoke, 1999, p. 413). Seeman(1959)과 Finifter(1970)는 정치적 소외를 '정치적 무력감(political powerless)', '정치적 무의미(political meaningless)', '정치적 무규범성(political normless)', '정치적 고립(political isolation)'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정치적 무력감(political powerless)'은 정부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느끼는 개인의 감정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정치 과정에 개인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정치적 무의미(political meaningless)'는 정치적 결정을 예측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무규범성(political normless)'은 정치적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규범이나 규칙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고립(political isolation)'은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이 공유

하고 지키고 있는 규범이나 목표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Finifter, 1970, pp.64-65).

정치적 소외를 나타내는 이러한 개념들은 모두 정치적 행위자로서의 개인이 느끼는 정치체제에 대한 불신 혹은 외면을 나타낸다(Reef & Knoke, 1999, p.416). 정치적 소외의 네 가지 하위 개념 중 정치 효능감과 가장 관련된 개념은 정치적 무력감이다. 정치적 무력감은 정치 무효능감(poliitcla inefficacy)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Finifter, 1970, p.65; Reef & Knoke, 1999, p.416). 결국, 정치 효능감은 "정치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내릴 수 있다(Bandura, 2001, p.526).

이러한 정치 효능감은 정치적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 강력한 변수로서, 정치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 해왔다(Mcpherson, Welch, & Clark, 1977, p.509; Welch & Clear, 1975, p.207). 정치 효능감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의 효시는 미시간 학파의 Campbell, Gurin, 그리고 Miller(1954, p.187)의 『The Voter Decides』로부터 기인한다. 이들은 정치 효능감을 "개인의 행동이 정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에 기반하여 정치 효능감을 단일 차원의 개념으로 간주하고, 4가지 문항으로 구성된 효능감의 척도를 제시했다.[3)]

이들의 연구와 더불어 정치 효능감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정치 효능감이 단일 차원으로 측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Campbell, Converse, Stoke, & Miller, 1960; Easton & Dennis,

---

3) Campbell, Gurin, & Miller(1954)가 제시한 네 가지 효능감의 척도

① "나 같은 사람은 정치나 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복잡해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② "나 같은 사람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투표이다."

③ "정치인은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④ "나 같은 사람은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뭐라고 말할 수 없다."

1967). 이들은 정치 효능감이 피상적이고 일시적인 태도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지속적인 정향(orientation)이라고 주장했다(Abramson, 1983, p.141; Blach, 1974, p.6; Welch & Clark, 1975, p.207; Mcpherson, Welch, & Clark, 1977, p.509). 그러나 1960년대 이후에 나타난 미국 선거 분석 결과, 정치 효능감이 더 이상 안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Welch & Clark, 1975; Mcpherson, Welch, & Clark, 1997).

Welch와 Clark(1975)은 1956년, 1960년, 1968년 선거의 사전·사후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패널분석을 통해, 정치 효능감이 안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은 효능감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간주하고, 그에 대한 원인으로 두 가지 가설을 내세웠다. 첫째, 효능감은 개인적,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특정한 '상황적(situational)'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둘째, 효능감의 변화는 아직 효능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임의적 대답(random response)'의 결과라는 것이다. 경험적 연구 분석 결과, 일부는 '상황적 사건(situational event)'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고, 일부는 '임의적 대답(random response)'에 의해 설명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 정치 효능감은 단일 차원의 문항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는 대안적 가설을 제시했다(Welch & Clark, 1975, pp, 208-209, p.215). Mcpherson 등(1977)의 연구에서도, 연구자들은 Campbell 등(1954)이 제시한 효능감 척도가 안정성과 신뢰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면서, 기존 정치 효능감의 척도에 대한 검토와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정치 효능감이 안정적인 개념이 아니며,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주장은 정치 효능감이 단일 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측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보다 설득력을 안겨 주었다(Abramson, 1983; Bandura, 2001, pp.528-530; Blach, 1974; Craig, 1979; Chamberlain, 2012; Craing, Niemi, & Silver, 1990; Mcpherson, Welch, & Clark,

1977; Welch & Clark, 1975; Morrell, 2003; Niemi, Craig, & Mattei, 1991). 이에 따라 정치 효능감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구분한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하여, Lane(1959, p.149)은 정치 효능감이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개인의 감정"과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반응"의 두 차원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Blach(1974)은 정치 효능감의 척도에 대한 다중 문항분석(multiple itme analysis)을 통해, 정치 효능감을 단일 차원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였다. 즉, 문항분석의 결과, Campbell 등(1954, 1960)이 제시한 네 가지 문항을 합산한 척도는 존재하는 문항 간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Blach는 정치 효능감을 '내적 효능감(internal efficacy)'과 '외적 효능감(external efficacy)'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내적 효능감'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지니고 있다는 개인의 신념"이고, '외적 효능감'은 "정부 당국이나 체제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의 시도에 반응할 것이라는 신념"이다(Blach, 1974, p.24). Blach는 전자는 참여 민주주의와 개인 발달이론에서 강조하는 개념이고, 후자는 체제 유지이론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개념적 초점이 다르다고 보았다(Blach, 1974, p.5, p.31).

이에 대하여 Claig(1979, p.229)은 정치 효능감을 '투입(input)' 효능감과 '산출(output)' 효능감으로 구분했다. 투입 효능감은 '개인적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정치 과정이나 참여 경로가 개인에게 열려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이다. 즉, 정치 과정에서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다는 개인의 신념을 말한다. 이에 반해, 산출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잠정적으로 성공적일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것은 '정부의 반응성'과 관련된 개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더 나아가 Bandura(2001, pp.526-530)는 기존의 정치 효능감의 척도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설명적 가치가 더 높은 측정방식을 도입하여 세부적이고 다면적인 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했다. 이러한 주장의 일환으로 Bandura는 어떤 수단이 효율적으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과 그 수단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신념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수단 효능감(mean efficacy)'과 '개인 효능감(personal efficacy)'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정치효능감은 다면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합 지표로 측정 한다면 정치 효능감에 의한 결과를 제대로 해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정치 효능감이 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 단일 지표의 활용은 정치 효능감의 어떤 구성요소가 영향을 주었는지,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 혹은 영향의 방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석할 수 없다(Bandura, 2001, pp.530-531). 따라서 정치 효능감의 측정에 있어서 포괄적 측정 지표를 이용하는 것 보다는 세분화한 측정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치 효능감을 단일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치 효능감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효능감의 수준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치 효능감을 권력 효능감, 외적(산출) 효능감, 내적(투입) 효능감으로 나누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② 시민적 의무감

시민적 의무감은 "정치 활동의 효과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말한다(Robinson, Shaver, & Wrightsman, 1999, p.25). 정치적 영역에서 시민적 의무감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험적 연구 영역에서는 시민적 의무감 대한 연구가 간과되어 왔다(Achen & Hur, 2011, p.46; Blais & Achen, 2010, p.5).

시민적 의무감의 척도는 Campbell 등(1954)에 의해서 처음 제시되었

다. 이들은 4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시민적 의무감 척도를 제시했다. Campbell 등(1954)이 제시한 시민적 의무감의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문항에 대하여 동의수준이 낮은 사람이 시민적 의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보았다.

- 지지하는 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없다면, 투표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상당히 많은 수의 지역 선거는 걱정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
- 많은 사람들이 총선에 투표하러 가기 때문에, 내가 투표를 할지 말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 만약 선거 결과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은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

시민적 의무감에 대한 또 다른 연구의 흐름은 합리적 선택 이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Downs(1957)는 투표참여의 원인을 투표참여에 드는 비용과 효용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유권자는 투표참여에 드는 비용(C)보다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용(B)이 클 때 투표에 참여한다 [PB - C > 0].[4] 그러나 선거는 집합적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유권자 개인의 한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거의 0에 가깝다. 즉, 대개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급부에 비해, 투표에 참여하는 비용이 더 클 수밖에 없다(Riker & Ordeshook, 1968, p.25). 결국,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유권자가 합리적인 유권자일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는 비합리적인 유권자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강원택, 2010, p.355; 조진만, 2010, pp.88-89). 이러한 측면에서 Downs의 이론은 실제로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의 유권자의 행위

4) P는 투표참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주관적 확률을 의미
B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서 얻는 효용(Benefit)을 의미
C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서 얻는 비용(Cost)을 의미

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 Riker와 Ordeshook(1986)은 Downs(1957, p.28)의 함수 모형에 '시민적 의무감(D)'이라는 개념을 더한 모형[R = PB - C + D][5]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시민적 의무감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차원의 만족감으로 분류하여 측정하고자 했다.

- 민주주의 전통인 선거를 준수했다는 만족감
- 정치 체제에 충성을 다 했다는 만족감
- 정당 선호를 표명했다는 만족감
- 정치적 결정에 참여했다는 만족감
- 정치 체제 속에서 개인의 효능을 확인했다는 만족감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정치적 태도를 연구하는 경험적 연구에서 시민적 의무감은 제한적이고 부차적인 영역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시민적 의무감에 대한 개념적 동의를 달성하려는 노력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적 의무감이라는 개념이 모호할 뿐 아니라, 각각의 척도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이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서 각각의 척도가 시민적 의무감의 요소를 전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 의무감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앞서, 시민적 의무감의 항목을 '투표 의무감'에만 한정하기로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③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은 '유권자가 지니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지지,

---

5) P는 투표참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주관적 확률을 의미
B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서 얻는 효용(Benefit)을 의미
C는 투표에 참여함으로서 얻는 비용(Cost)을 의미
D는 시민적 의무감을 의미

신뢰 혹은 평가'와 관련이 있다. 즉,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에 대한 접근 방식은 크게 정치적 지지(political support), 정치적 신뢰(political trust), 회고적 평가(retrospective evaluation)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론적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기 위해, 정치적 지지의 척도를 사용할 수 있다. 즉, 유권자가 현직 국회의원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측정하는 척도를 통해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를 알아볼 수 있다.

정치적 지지의 개념은 Easton(1975)에 의해서 제기된 개념이다. 그에 의하면 정치적 지지는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단일차원의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에 의한 정치적 분류는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정치공동체에 대한 지지', '체제에 대한 지지', 그리고 '정부 당국에 대한 지지'가 그것이다.[6] 이중 '정부 당국 대한 지지'가 정부 관료나 정치 엘리트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다(Dalton, 2010, p.373).

Norris(1999)는 이러한 Easton의 개념에서 더 나아가 정치적 지지를 다섯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지지', '체제 원리에 대한 지지', '체제 수행에 대한 지지', '체제 기관에 대한 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행위자 혹은 권위자에 대한 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에서 정치 행위자 혹은 권위자에 대한 지지가 '정치인에 대한 특수 한 지지' 혹은 '특정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

6) ① 정치공동체에 대한 지지는 "현 정부 기관을 넘어 국가와 정치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암시"한다. ② 체제에 대한 지지는 "현재 공직을 가진 사람들보다는 국가와 정치시스템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을 암시"한다. "체제 지지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정부에 대한 지지처럼 정부와 정치기관의 절차에 대한 태도와 관련 있다." ③ 정치 당국에 대한 지지는 "현 정부 관료들에 대한 여론이나, 보다 폭넓은 의미에서 통치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정치 엘리트 풀(pool)"을 포함한다. 이는 "다원주의적 민주주의 원칙과 의회정부에 대한 지지처럼 정부와 정치기관의 절차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다(Dalton, 2010, p.373)."

그런데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는 '정치인에 대한 신뢰'의 개념과 맞닿아 있다. 즉, 기존의 경험적 연구들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도를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신뢰를 측정하는 척도를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치적 신뢰를 측정하는 척도에 대하여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 다년간의 논쟁이 존재했다. 대표적인 것이 Miller(1974a, 1974b)와 Citrin(1974)의 논쟁이다. Miller(1974a, 1974b)는 정부에 관한 신뢰가 정치당국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체제에 대한 지지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와는 달리 Citrin(1974)은 정부 신뢰는 현직 대통령의 수행에 대한 평가라고 보았다. 즉, 정부 신뢰의 개념은 체제에 대한 평가가 아닌 현직에 있는 특정한 정치적 리더의 수행에 대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Citrin(1974)은 정부에 대한 낮은 신뢰를 표현한 사람들이, 정부의 체제에 대해 높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들었다. 따라서 정부 신뢰에 대한 관점은 정치체제에 대한 확산된 지지가 아니라, 현 정권에 대한 단기적 실망감을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Norris, 1999, p.12; Abramson, pp.160-197에서 재인용). 최근의 연구는 Miller의 입장보다는 Citrin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Norris, 1999; 배귀희・임승후, 2009). 이와 관련하여 배귀희와 임승후(2009, pp.1423-1424)는 Miller가 후에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에 경제적 상황변수,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대통령의 개인적 성격을 포함시킴으로써, Citrin과의 이론적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지적했다.

정치적 지지와 정치적 신뢰의 개념과 유사하지만, 평가적 측면에 더욱 무게를 두고 있는 이론적 시각이 있다. 바로 현직 후보자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그것이다. 회고적 평가란 유권자가 '현직 대통령'이나 '현직 국회의원'의 과거 업적과 사건에 기반에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회고적 투표(retrospective voting)' 이론과 관련이 있다. 회고적 투표란 "현직 대통령 또는 현직 국회의원이 재직 시절에 수행했던 업적이나 발생했던 사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투표”를 의미한다. 이들의 입장에 의하면, 투표라는 행위는 현직 대표자를 심판하는 기능을 한다. 즉, 회고적 투표를 하는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을 통해 현직자의 수행에 대해 보상하거나, 벌칙을 부여한다(엄기홍, 2009, p.106).

위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세 가지 관점은 서로 간에 이론적 차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상호 배타적이기 보다는 보완적이고 관련성이 높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인 혹은 공직자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 특정 대통령, 수상, 정당 지도자, 의원들에 대한 수행의 평가에 의해서 측정된다(Norris, 1999, p.2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흐름을 바탕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에 대한 만족도 혹은 평가’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관련된 기존의 문항을 선정하여,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에 대한 만족감이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④ 민주주의 지지도

Weil(1989)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를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민주적 원리와 가치에 대한 지지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부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이다.

Norris(1999) 역시 정치적 지지에 대한 분류를 통해,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지지와 민주주의의 수행력에 대한 지지는 다르게 측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우선, 민주주의 체제 원리는 정치체제의 가치와 관련이 있다. Norris(1999)는 민주주의는 여전히 경쟁적인 개념이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 참여, 관용, 권리, 법의 지배 등과 같은 가치는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치들이라고 보았다. 민주주의 지지도를 측정하는 기존 연구는 특정한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동의 수준을 측정하거나, 더 일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가장 좋은 형태로써 민주주의 이상에 대한 일반적인 동의 수준을 측정한다. 이와는 다르게 민주주의 체제의 수행에 대한 평가는 ‘민주주의가

실제로 얼마나 잘 기능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Linde와 Ekman(2003, p.395)은 Norris(1999)와 견해를 함께 한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지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는 '체제 원리로서의 지지'와 '체제의 수행력에 대한 지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민주주의 체제 원리로서의 지지와 민주주의 체제의 수행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때, 민주주의 체제 원리로서의 지지는 원리로서 민주주의를 지지하거나, 민주주의를 가장 적절하고 이상적인 정부 형태로 보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 체제의 수행력에 대한 지지는 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얼마나 잘 기능하는지에 대한 지지를 말한다. 따라서 이 두 개념을 분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주의 지지도를 '민주주의 체제원리에 대한 지지'로 한정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3) 정치적 태도와 투표참여의 관계

① 정치 효능감과 투표참여

정치 효능감은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설명해 주는 강력한 변인 중 하나이다(Verba, Schlozman, & Brady, 1995, p.346). 정치 태도에 대한 많은 경험적 연구들은 정치 효능감이 시민들의 정치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른 약간의 상이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대다수의 연구 결과는 정치적 효능감이 투표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Campbell, Converse, Stoke, & Miller, 1960, pp.103-105; Milbrath & Goel, 1977, pp.57-61; Verba, Scholozman, & Brady, 1995, pp.350-363; Lewis-Beck, Jacoby, Norpoth, & Weisberg, 2009, pp.94-95)

정치 효능감을 단일 차원의 척도로 간주한 초기 연구에서, 정치 효능

감과 정치참여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Campbell, Converse, Stoke, & Miller, 1960). 이들의 연구 결과는 정치 효능감이 높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Campbell 등(1960)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가지고 미국의 2000년, 2004년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Lewis-Beck 등(2009, pp.94-95)의 연구에서도 정치 효능감은 강력하지는 않지만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강원택(2002, 2008a), 강경태(2003), 가상준(2006), 류태건(2010)의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들의 연구에서 정치 효능감은 투표참여 여부와 상당한 관련성을 지니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명행(2011)의 연구는 정치 효능감이 직접적인 효과 뿐 아니라,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투표참여의 적극성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명행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유권자의 효능감이 조절변수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효능감이 높은 유권자 집단과 효능감이 낮은 유권자 집단을 구분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한 결과, 높은 효능감은 시민적 의무감이 높은 유권자의 참여의 적극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유권자의 투표참여 적극성 정도에 조절력을 지니는 정치 효능감에 더욱 주목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정치 효능감은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단일 차원의 접근 방식은 다소 이질적인 요소에 대한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수 없는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치 효능감의 참여 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는 정치 효능감을 다차원적 개념으로 접근한 연구를 중심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조성대(2006)는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면서, 정치 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을 '권력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의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권력 효능감'과 "누구에게 표

를 던지느냐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느끼는 ‘투표 효능감’ 모두 투표참여에 p<.05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과 홍지영(2011)은 CSES(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의 2차 모듈을 이용한 투표참여 동기에 관한 교차분석을 통하여, 개인수준과 체계수준을 아우르는 참여 동기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투표 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효능감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정치 효능감을 ‘선거 결과 효능감’과 ‘정책 효능감’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층모형 분석을 통하여, 유권자의 ‘선거 결과 효능감’과 ‘정책 효능감’이 p<.01 수준에서 투표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류태건(2011)은 정치 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에 대해 고찰하면서, 내적·외적 정치 효능감과 정치참여 6가지 유형(투표참여, 선거활동, 공공활동, 인터넷 정치참여, 사적접촉, 온건 항의활동, 과격 항의활동)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상호 관련성 정도를 살펴보고, 이후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내적·외적 정치 효능감이 정치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적 정치 효능감은 과격 항의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정치참여 유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외적 정치 효능감은 공공활동과 사적접촉에서만 아주 약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내적 정치 효능감은 공공활동과 선거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외적 정치 효능감은 공공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투표참여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체적으로 정치 효능감이 투표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효능감에 대한 정의와 측정 방식, 그리고 조사 시기나 장소 등의 연구 조건에 따라서 정치 효능감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류태건, 2011, p.4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 연구의 논의들을 바탕으로 다차원적 차원에서 정치 효능감을 접근

하고, 단일 선거 분석이 아닌 여섯 차례에 걸친 선거 분석을 통하여, 정치 효능감이 투표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② 시민적 의무감과 투표참여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무감은 참여와 관련된 중요한 정치적 태도이다. 경험적 연구들은 시민적 의무감이 투표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Campbell, Converse, Miller, & Strokes, 1960, p.160; Chenung, Chan, & Leung, 2000; Couper, Singer, & Kullka, 1998; Milbrath & Goel, 1977, pp.49-52; Rosenstone & Hansen, 2003, pp.146-147; Verba & Nie, 1972, pp.133-136; 이갑윤, 2011, pp.47-59; 이명행, 2011).

Milbrath와 Goel(1977, p.52)은 여론 조사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이 '정기적' 혹은 '상당히 자주'하는 행위와 그들이 '반드시' 그리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의무감을 느끼는 참여유형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했다. 분석 결과 참여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많이 느끼는 행위와 실제 참여한 행위 간에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Rosenstone과 Hansen(2003, p.147)은 미국 투표율의 경향이 시민적 의무감의 패턴과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시민의 참여가 활발하던 1952년과 1960년 사이에는 유권자의 시민적 의무감이 거의 10%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1980년대에는 투표율의 하락 경향과 맞물려 시민적 의무감 역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적 의무감이 참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서 작용하기도 하지만, 시민적 의무감의 결핍이 투표하락을 상당부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이명행(2011)과 이갑윤(2011)의 연구는 시민적 의무감이 높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행(2011)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로분석을 통해, 시민적 의무감이 투표참여의 적극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러한 경향은 특히 유권자의 효능감이 클 때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정리해보자면, 시민적 의무감은 유권자의 투표행위를 설명해 주는 강력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적 의무감을 '투표 의무감'에 한정하여, 한국의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③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과 투표참여

앞서 살펴본 바와 정치적 지지, 정치적 신뢰, 회고적 평가와 관련된 이론적 흐름들은 정치인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를 중요한 척도로 사용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는 것은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과 투표참여와의 관계를 유추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우선, 정치적 신뢰의 측면에서 정부 신뢰와 투표참여와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배귀의와 임승후(2009)는 2000년에 수행된 National Election Studies (NES)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신뢰와 투표참여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사람일수록 투표참여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2년, 1996년,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분석한 서현진(2003)의 연구는 정부 신뢰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를 발견하지 못했다.

국내의 연구 결과도 상의한 결론을 맺고 있다. 조인희・정경희・이호영(2008)는 한국 대학생의 정치의식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여, 정치적 신뢰가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김대욱과 이승종(2008)의 연구는 정부신뢰가 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는 다른 흐름으로 현직자에 대한 '회고적 평가'가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는 경험적 연구의 흐름이 존재한다.

강원택(2008a)은 2007년과 2008년 총선에 참여한 유권자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선과 총선 투표참여 여부를 기준으로 유권자를 네 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네 집단이 '정당정치 만족도', '정치인 역할에 대한 만족도', '주요 정당에 대한 호감도', '정당일체감의 강도'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참여한 유권자는 4가지 변인에 대해 만족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의 투표에서 모두 기권한 유권자는 모든 변인에 대해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택(2002)은 199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기권한 유권자의 특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유권자는 정치인, 정부, 나라 경제사정 평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강원택의 두 연구는 현실에 대해 만족하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유권자일수록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정치인에 대한 만족도의 여부가 투표참여를 결정짓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고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들은 일반적인 만족감 보다는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Lee(2004)는 1992년, 1996년, 2000년 국회의원 선거와 1992년, 1997년, 2002년 대선 자료 분석을 통해서, 현 정부의 경제적 수행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분석을 하였다. 17대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한 이준한(2006)의 연구결과에서도 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회고적 투표이론은 주로 평가의 대상을 경제적 영역에 둔 경우가 많다. 또한 정부나 국회의원의 수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기권 말고 다른 후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불만을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참여에 대한 이론 보다는 유권자 선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Key, 1966; 이곤수, 2011; 정한울・권혁용, 2009; 강원택, 2010; 이현출, 2006). 따라서 투표참여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춰 유권자의 회고적 평가의 효과를 측정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분석대상이나 당시 상황적 차이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지만,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을 측정하는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에 대해 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회고적 평가'를 토대로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을 측정하고자 한다. 총 6회에 걸친 선거 분석은 결과를 보다 일반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④ 민주주의 지지도와 투표참여

민주주의 지지도가 투표참여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연구의 흐름은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하는 연구의 흐름과 효과가 없다고 분석한 연구의 흐름이 존재한다.

Gröunlund · Setälä(2007), 김민정 · 홍지영(2011), 조성대(2006)의 연구는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투표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Gröunlund와 Setälä(2007)는 정치체제와 행위자에 대한 평가가 투표참여에 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은 의회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국가수준의 집합적 분석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과 홍지영(2011)는 비교선거제도 연구(CSES) 자료를 사용하여 21개 국가에 거주하는 유권자를 중심으로 민주주의 제도 자체에 대한 만족도, 자국 민주주의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 동기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가 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성대(2006)의 연구도 김민정과 홍지영(2011)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는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 낫다"는 설문 문항을 가지고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

감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만족감의 변수는 투표참여와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강원택(2010)의 연구는 이와는 달리 민주주의 지지도가 실제 투표참여 여부와 관련성이 없다는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둔다. 강원택(2010)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기권자 분석을 통해, 두 번의 선거에서 모두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집단과 두 번 모두 기권한 유권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두 차례 선거에서 기권한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가치에 대해서 투표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투표자 집단과 구분될 만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회의나 불만을 갖는 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진만(2010)은 18대 총선에서 나타난 유권자 투표행태를 분석하면서,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동의 수준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실제 18대 총선 유권자 설문조사에서 민주주의 정부 형태가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도 낫다는데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이 81.6%였다는 것을 밝혔는데, 이는 강원택(2010)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기권자와 투표참여자의 민주주의 체제 지지수준이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듯 분석 결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라는 의미 자체가 여전히 경쟁적인 개념이며,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일 수 있다(Norris, 1999, p.11). 또한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리고 조진만(2010)과 강원택(2010)의 연구에서처럼, 실제로 체제 원리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기권자와 참여자 사이의 관계를 구분해 주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주화 이후의 총 여섯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를 분석하여, 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 체제원리에 대한 지지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3) 정치적 행동(Political Behavior)과 투표참여

(1) 정치적 행동의 개념

정치적 행동이란 “정치과정에서의 개인적, 집합적인 참여나 비참여(고영복, 2000)”를 말한다. 이는 실제 발생한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본 정치적 지식과 태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흔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향(orientation)이나 태도(attitude)가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역으로 행위 역시 개인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러한 행위는 앞으로 일어날 행위를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한덕웅, 2005, p.185).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제로 발생한 정치행위가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정치행위라는 것은 그 범위가 다양하고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행위를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으로 한정하여 투표참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이란, 구체적으로 청원서에 서명, 각종 사회운동 참여, 합법적인 시위에 참여,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이라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정치적 행동의 측정

정치적 행동은 광범위하고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차원적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 행동들은 그 형태에 따라 동기, 지속성, 강도, 목적, 그리고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정치적 태도에 관한 연구들은 특정 시점 내에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정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정치적 행동은 가끔씩 발생하며 규칙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의 응답자의 기억에 의존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에 의해서 왜곡될 소지가 존재한다.

정치적 행동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응답자로 하여금 실제 특정한 정치적 행동의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가장 직접적이고 명백한 방식으로

응답자의 정치적 행동 경험을 측정한다. 이 방법은 간단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지만, 응답자 측면에서는 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즉, 활동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응답자는 본인의 경험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하며, 이것이 과연 연구자가 묻는 활동과 일치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두 번째 방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도적 접근 방식이다. 이는 사람들이 실제 관여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장소나 기관을 중심으로 참여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조직적인 것과 관련성이 없는 투표나 항의활동 같은 명백한 측면의 정치적 행동을 간과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문제 중심 접근법이 있다. 이것은 정치적 활동이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와 요구, 그리고 관심 등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시각으로,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나 우려하고 있는 것을 먼저 물어본 후, 정치적 활동에 관한 질문을 하여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기와 행위를 연결시켰다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 방식이지만, 개인적 동기가 아닌 외부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행위를 간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Brady, 1999, pp.737-743).

이러한 세 가지 측정방식은 실제 연구 영역에서 상호 배타적인 접근이 아니라, 보완적인 방식으로 볼 수 있다. 주로 첫 번째 방식을 중심으로 다른 척도를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응답자에게 직접 참여의 경험을 물어보는 첫 번째 방식을 중심으로, 응답자의 정치활동 경험이 실제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3) 정치적 행동과 투표참여의 관계

정치적 활동이 실제 투표참여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지, 혹은 실제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검증하는 경험적 연구는 많지 않다. 다만, 조직 관여 정도가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연구와 정치적 활동의 경험이 정치활동을 유인하는 바람직한 정치적 태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둘 사이의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우선 조직 관여도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는 박찬욱(2005)의 연구와 김대욱・이승종(2008) 그리고 배귀희・임승후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시민들이 조직에 관여함으로써, 그 안에서 다양한 정치적 정보를 교환을 하고, 정치적 정책결정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서 정치참여를 자극할 수 있다고 보았다(Verba, Schlozman, & Brady, 1995; 배귀희, 임승후, 2009).

박찬욱(2005)은 사람들이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에 관여한 정도가 정치참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결과 개인의 조직 관여정도는 정치참여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지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대욱・이승종(2008) 그리고 배귀희・임승후의 연구는 박찬욱의 연구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김대욱와 이승종(2008)는 2000년 대통령 선거와 2004년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에 대해서 분석하면서, 사회 조직 관여도는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 모두에 $p<.01$ 수준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다. 배귀희와 임승후(2009)는 2000년에 수행된 National Election Studies(NES) 설문조사자료를 활용하여, 2000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자발적 결사체 혹은 조직에 참여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흐름 이외에 정치적 활동의 경험의 효과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있다. 이들의 연구 결론은 직접적으로 정치참여와 관련되지 않지만, 정치참여 활동의 결과로 양산되는 태도로 인해, 궁극적으로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김영인(2002)은 정치참여 동기가 법의식과 관용의식, 그리고 효능감에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 남채봉(2002)의 연구는 온라인/오프라인 상의 정치참여가 정치적 효능감, 참여의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김원태(2001)의 연구는 사회참여 체험교육이 정치적 효능감, 참여 의무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분석했다. 곽한영(2000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촛불시위참여가 내적·외적 효능감, 참여의무감, 정치적 관심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관여도가 정치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치참여 활동에 결과로 정치참여의 동인이 되는 태도가 양산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는 결국 정치활동 경험과 투표참여와의 관계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동안 정치활동 경험이 직접적으로 참여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주목하는 경험적 연구가 부족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논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정치활동 경험이 직접적으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고찰

다음은 시민교육의 측면에서 투표참여 요인을 분석한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진만(2010)과 엄기홍(2012)은 실제 시민교육에서 강조하는 요소들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진만(2010)은 민주시민 의식과 투표참여의 관계를 18대 총선 유권자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합리적 선택 이론적 시각에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험적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정치 교육적 측면의 함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주시민의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Riker 와 Ordeshook(1968)의 '시민적 의무' 개념을 도입하여,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동의, 한국 민주주의 현실 평가, 정당 친밀감, 정보취득 의지, 정치 지식도, 정치 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당 친밀감과 정치 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기홍(2012)은 17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의도된 효과가 실제 선거에서 현실화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을 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선거 관심도, 선거 지식, 그리고 정책적 차별성이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영향력이 민주시민교육의 궁극적 목적인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의 결과 선거 관심도와 후보자 간의 정책적 차별 증대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선거 지식의 심화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선거 관심도와 주관적 정책 차별성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정치 효능감과 투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투표참여 증대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분석의 과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이 의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으며, 단순한 지식전달이 아닌 유권자의 관심과 정책적 분별력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조진만(2010)과 엄기홍(2012)의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적 요소를 선정하여, 이러한 요소가 실제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질적인 투표참여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일부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단일 선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교육적 함의로 이끌기 위해서는 단일 선거 분석을 지양하고 여러 차례의 선거 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함에도 불구하고,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구성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두 사람의 연구 뿐 아니라 투표참여의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들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보다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면서, 교육적 측면을 반영한 분석틀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총 여섯 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 행태를 분석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참여 행태에 지속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탐색해볼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기존의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정치적 지식, 태도, 행동,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틀을 구성하여, 향후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검증하고, 실제로 교육이 강조점을 두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이는 유권자의 투표참여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민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려는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며, 향후 사회과 정치교육에 있어서 유권자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모색에 있어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Ⅲ. 연구 가설

1. 주요 변인의 설정 및 정의

본 연구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Ⅱ장에서 검토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선정하여 <표 Ⅲ-1>과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지식, 정치적 태도, 정치적 행동으로 변수를 구분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그 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실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실제 교육이 이루어 강조점을 두어야 할 영역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표 Ⅲ-1> 주요 변인 및 분석틀

독립변인
■ 정치적 지식
- 사실적 지식
- 매체 노출도
■ 정치적 태도
- 정치 효능감
- 시민적 의무감
-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 민주주의 지지도
■ 정치적 행동
- 정치활동 경험

통제변인
■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지역

종속변인
투표참여

1)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의 종속변인은 유권자의 투표참여 여부이다. 즉, '투표참여'와 '기권'으로 이분된(dichotomized) 가부반응변인(quantal response variable)이다.

2) 독립변인

(1) 정치적 지식

본 연구에서는 정치적 지식은 "개인의 장기 기억 속에 저장된 정치에 관한 사실적 정보"라고 규정한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정치적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사실적 지식'과 '미디어 노출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선정하여, 이러한 요인이 투표참여에 주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① 사실적 지식

사실적 지식은 정치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현재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지식을 말한다. 즉, 정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은 교과서적 지식을 의미한다. 그리고 정치적 상황과 관련된 지식은 현재 대통령의 이름, 현재 야당의 이름 등과 같은 맥락적 지식을 말한다(Delli Carpini & Keeter, 1991, p.598).

② 매체 노출도

본 연구에서 매체 노출은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매체를 활용하는 빈도'를 말한다. TV뉴스를 자주 시청하거나 신문을 많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정보를 제공해 주는 매체의 활용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정치적 지식수준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체는 '일간신문과 TV 프로그램', 그리고 '인터넷 매체'를 의미한다.

(2) 정치적 태도

‘정치적 태도’라는 것은 정치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개인적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한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특정한 정치적 현상이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심리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서, 2011, p.9). 본 연구에서는 정치 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그리고 민주주의 지지도를 중심으로 태도가 실제 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각 변수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은 자신의 정치적인 행위가 정치과정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느낌이나 신념의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 효능감을 권력 효능감, 외적(산출) 효능감, 내적(투입) 효능감으로 나누어 측정하고자 한다. 이때 권력 효능감은 정치권력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말한다. 외적 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잠정적으로 성공적일 수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로, 정부의 반응성과 관련된다. 반면 내적 효능감은 자신들이 실제 정치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말한다.

② 시민적 의무감

시민적 의무감은 정치 활동의 효과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과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감정을 말한다.

③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개별 유권자가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의 수행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④ 민주주의 지지도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개별 유권자들이 민주주의 체제원리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도를 말한다.

(3) 정치적 행동

정치적 행동이란 “정치과정에서의 개인적, 집합적인 참여나 비참여(고영복, 2000)”를 의미한다. 정치적 행동에 대한 하위 범주는 여러 가지 차원이 존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치활동 경험에 보다 초점을 두고자 한다.

① 정치활동 경험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정치활동 경험은 투표를 제외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참여로 한정한다. 즉, 청원서에 서명하는 일,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일, 정치변화를 위하여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 등이 이에 속한다.

3) 통제변인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통제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따라서 통제변인은 ‘성별, 연령, 소득, 학력, 지역’이다.

① 성별

생물학적 남성, 여성을 의미한다.

② 연령

기존 선행 연구에는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생애주기 효과’를 검증하는 이론과 세대를 기준으로 ‘세대 효과’를 보려고 하는 흐름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종단면적 성격을 지닌 연구이므로, 세대에 의한 세대 효과를 측

정하기보다는 당시 응답자의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한 접근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실제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투입하고자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15대 분석에서만 실제 연령이 아닌 세대를 통제하였다. 이는 당시 유권자 의식 조사 데이터에 세대에 관한 데이터만 존재했기 때문이다.

③ 소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득의 개념은 실제 가구소득이 얼마인지를 묻는 문항을 중심적으로 사용하지만, 17대 선거에서만 실제 소득액이 아닌 소득에 대한 수준을 묻는 문항을 사용했다. 이는 당시 설문이 소득에 대한 수준을 묻는 문항만을 측정했기 때문이다.

④ 학력

개별 유권자가 학교를 다닌 경력을 의미한다.

⑤ 지역

지역적 효과를 보는 경우에도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측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출신지를 중심으로 하여 영향력을 살펴보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현재 거주지를 바탕으로 지역성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신지(고향)를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되, 설문 문항 구성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17대 선거에서만 거주지를 기준으로 한 지역적 효과를 측정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2. 연구 가설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선행 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1-1. 유권자가 사실적 지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1.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2-1.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2. 유권자의 시민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3. 유권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에 만족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4. 유권자의 민주주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3-1.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Ⅳ. 연구 설계

1. 분석 데이터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이하 KSDC)의 선거 조사(Korean Election Survey)인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의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자료의 모집단은 대한민국 만 20세 이상의 모든 유권자이며, 이때 유권자란 대한민국에 주소지를 둔 사람들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인 명부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을 말한다. 조사 시기는 국회의원 선거 직후에 실시되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서 실시되었다. 표집방식은 다단계 확률표본 추출법을 이용해서 선정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대인면접조사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조사 시기, 표본 크기는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역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시기 및 표본크기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조사 시기	92.03.26. ~30.	96.04.11. ~18.	00.05.12. ~23	04.04.16. ~20.	08.04.10. ~21.	12.04.
표본 크기	1,200명	1,200명	1,100명	1,500명	1,000명	1,000명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KSDC의 역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활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자료는 민주화 이후의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 의식에 대한 조사 자료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에 치러진 모든 선거의 경험적 분석이 가능한 조사 데이터이다. 특히, 제17대 국회

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부터는 Comparative Study of Electoral System(이하 CSES)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CSES는 세계 여러 국가의 선거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동 연구이며, 선거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time series analysis)과 횡단면적 분석(cross-section analysis)이 가능한 패널 데이터(panel data)이다. 즉, 동일한 문항에 대해서 국가별로, 시기별로 조사한 자료로서, 조사 자료의 신뢰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선거에 대한 연속성 있는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 이 자료를 통해, 1992년에 치러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2년에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분석이 가능하다. 즉, 이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한국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에 대한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시계열적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정확하고 엄밀한 일반론적 이론모형 정립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자료는 각 선거 직후 실시한 조사로, 실제로 발생한 유권자의 행태를 기반으로 수행된 조사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과에서 진행된 참여 관련 연구처럼 직접적인 교육의 대상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의 직접적인 참여의 활동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발생한 행위를 분석하고, 그러한 행위를 이끈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색해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분석 방법

구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KSDC의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의 세부 문항을 비교·분석하여, 연구 변인과 관련된 문항을 추출한다. 이때 연구 변인과 관련된 문항 추출은 기존의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검토하되, 엄밀한 측정을 위해 변인의 성격을 보다 잘 대표할 수 있는 문항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변수들을 측정하기 위해 변수들을 조작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셋째,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기술통계와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조작화된 변수들을 가지고 앞서 정립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PSA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 방법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이유는 종속변인의 성질과 관련이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투표참여 여부는 범주변인인 동시에 가부반응을 결정하는 이분변인에 해당한다. 즉, 종속변인의 값이 0과 1의 값을 갖는 확률의 개념이다. 이때 반응변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형회귀분석을 적용하면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홍세희, 2005, p.9). 따라서 0과 1의 확률의 개념을 지니고 있는 종속변인에 로지스틱 함수를 취해줌으로써, 종속변수의 값이 0과 1 사이값을 가지도록, 즉 선형적 관계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다(홍세희, 2005, pp.10-11).

3. 연구 모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 독립변수들이 투표참여 여부인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
\begin{aligned}
Y_i = \ & \alpha + \beta_1 \text{정치적지식} + \beta_2 \text{일간신문/}TV\text{매체} + \beta_3 \text{인터넷매체} \\
& + \beta_4 \text{정치효능감(권력)} + \beta_5 \text{정치효능감(외적)} + \beta_6 \text{정치효능감(내적)} \\
& + \beta_7 \text{시민적의무감} + \beta_8 \text{현직국회의원만족감} + \beta_9 \text{민주주의지지} \\
& + \beta_{10} \text{정치활동경험} + \beta_{11} \text{성별} + \beta_{12} \text{연령} + \beta_{13} \text{소득} + \beta_{14} \text{학력} + \beta_{15} \text{지역}
\end{aligned}
$$

분석 모형에서 선정된 변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 변수들을 <표 Ⅳ-2>와 같이 조작화하였다.[7] 분석 모형은 19대 선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조사 시기마다 구성된 설문 문항의 차이로 인해 <표 Ⅳ-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누락된 변수들이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표 Ⅳ-2>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변수 측정 지표

변수 범주		변수	변수설명	측정방법
종속변수		투표 참여	투표참여 여부	투표참여 = 1, 기권 = 0
독립변수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정치 일반 혹은 선거에 대한 지식	정답 = 1, 오답/모름/무응답 = 0 최소 0점에서 최대 2점 내지 3점 정답 개수를 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실적 지식이 많음
		매체 노출도	공공정보를 얻기 위한 매체 이용 빈도	① 일간신문, TV프로그램에 접촉한 정도 ② 인터넷 매체에 접촉한 정도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으로 코딩 숫자가 클수록 매체 이용 빈도가 높음

7) 14대~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에 대한 자세한 변수 측정 지표는 [부록 1] 참조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	자신의 행동이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느낌	정치 효능감을 측정하는 3가지 문항을 선정 ① 권력 효능감 :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 ② 외적(산출) 효능감 :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 ③ 내적(투입) 효능감 :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
		시민적 의무감	투표에 대한 의무감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 1, “아니다. 기권할 수도 있다.” = 0
		현직 국회 의원 만족감	현직 국회의원 수행에 대한 만족감	지역구 현역의원이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한 활동에 대한 만족감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 점수가 클수록 만족감이 높음
		민주 주의 지지도	민주주의 체제 원리에 대한 지지도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도 낫다.” 최소 0점에서 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도가 높음
	정치적 행동	정치 활동 경험	공식적, 합법적 정치활동의 경험	청원서에 서명하는 일, 각종 사회운동에 참여하는 일,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하는 일, 정치변화를 위하여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 경험이 있으면 1, 경험이 없으면 0
통제변수		성별	남성/여성	남성 = 0, 여성 = 1
		연령	실제 연령	
		소득	가구소득	
		학력	학력 수준	초졸 = 1, 중졸 =2, 고졸 = 3, 대재 및 대졸 = 4, 대졸 이상 = 5

	지역	출신 지역	서울·경기 지역을 기준점(baseline)으로 하여, 충청도, 호남, 영남의 지역 더미 변수를 만들어서 지역효과를 측정. 서울경기 지역보다 얼마나 참여했는지를 측정

<표 Ⅳ-3> 역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측정 가능 변수

	14대	15대	16대	17대	18대	19대
사실적 지식	O	O	O	O	O	O
매체 노출도 Ⅰ, Ⅱ	X	X	X	O	O	O
정치 효능감 Ⅰ (권력)	X	X	X	O	O	O
정치 효능감 Ⅱ (외적)	O	O	X	O	O	O
정치 효능감 Ⅲ (내적)	X	X	O	O	O	O
시민적 의무감	X	X	X	X	X	O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O	X	O	O	O	O
민주주의 지지도	X	X	X	O	O	O
정치활동 경험	X	X	X	O	O	O
투표참여 여부	O	O	O	O	O	O

Ⅴ.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서 본 연구에 투입된 변인들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한 기술통계분석과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1) 종속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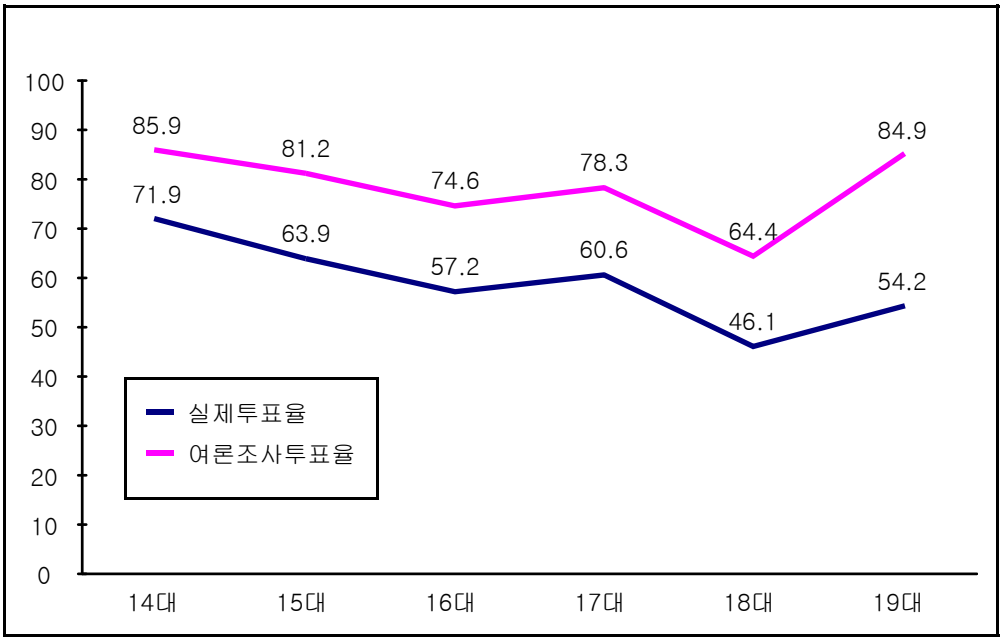
아래의 <표 Ⅴ-1>은 본 연구에 투입된 종속변인인 '투표참여 여부'에 관한 빈도분석 결과이다.

<표 Ⅴ-1> 종속변인에 대한 빈도분석

		빈도(명)	비율(%)
14대	투표참여	1024	**85.9**
	기권	168	14.1
	합계	1192	100.0
15대	투표참여	974	**81.2**
	기권	226	18.8
	합계	1200	100.0
16대	투표참여	822	**74.6**
	기권	278	25.2
	합계	1100	100.0
17대	투표참여	1174	**78.3**
	기권	326	21.7
	합계	1500	100.0
18대	투표참여	644	**64.4**
	기권	356	35.6
	합계	1000	100.0
19대	투표참여	778	**77.8**
	기권	222	22.2
	합계	1000	100.0

종속변수에 대한 빈도분석 결과에서 유의하게 살펴볼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본 조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실제 투표율에 비해 과장된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Ⅴ-1>과 <그림 Ⅴ-1>에서 볼 수 있듯이, 역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상의 투표참여 비율은 14대 선거에서 19대 선거에 이르기까지 각각 85.9%(14대), 81.2%(15대), 74.6%(16대), 78.3%(17대), 64.4%(18대), 84.9%(19대)이다. 이는 역대 국회의원 선거의 실제 투표율인 71.9%(14대), 63.9%(15대), 57.2%(16대), 60.6%(17대), 46.1%(18대), 54.2%(19대)에 비해 과장된 수치이다.



<그림 Ⅴ-1> 실제 투표율과 여론조사 투표율 비교[8)]

실제 선거에서 관측되는 투표율에 비해 여론조사 자료의 투표율이 과장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여론조사 자료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

8)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실제투표율) http://www.nec.go.kr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여론조사투표율) http://www.ksdc.re.kr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은 실제로 투표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의 효과를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으로 인하여 실제로는 유의하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이갑윤, 2011, pp.27-28).

둘째, 종속 변인의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측면은 투표참여와 기권의 사례가 투표참여 쪽으로 편중되게 분포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한쪽에 사건이 편중되어 있을 지라도 이 비율을 통계적으로 적당히 맞추어 정확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식이다(우수명, 2010, p.367). 따라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2) 독립변인에 대한 기술통계

<표 Ⅴ-2>는 19대 선거에서 투표참여 여부에 따른 독립변인의 기술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9)]

모든 독립변인에서 투표참여와 기권이라는 범주에 따라 평균과 표준편차가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즉, 대부분의 변인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보다 투표에 참여한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표준편차가 투표에 참여한 집단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집단의 분포가 더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Ⅴ-2> 종속변인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 기술통계량 (19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지식	투표참여	778	0	3	2.3985	.73738
	기권	222	0	3	1.9279	.88437
미디어노출도 I (TV/신문)	투표참여	778	0	4	2.8021	1.04192
	기권	222	0	4	2.2748	1.25404

9) 14대~18대 선거자료에 대한 기술통계량은 [부록 2] 참조

미디어노출도Ⅱ (인터넷)	투표참여	778	0	4	2.4036	1.13807
	기권	222	0	4	2.2883	1.53719
정치 효능감Ⅰ (권력 효능감)	투표참여	776	0	5	3.7500	1.25404
	기권	219	0	5	3.2329	1.49616
정치 효능감Ⅱ (외적 효능감)	투표참여	774	0	5	4.0969	1.53719
	기권	220	0	5	3.2591	1.49616
정치 효능감Ⅲ (내족 효능감)	투표참여	760	0	4	3.1579	.93042
	기권	220	0	4	2.6000	1.07864
시민적 의무감	투표참여	778	0	1	.8303	.37558
	기권	222	0	1	.4099	.49293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투표참여	776	0	4	1.8982	.89223
	기권	221	0	4	1.5113	.98908
민주주의 지지	투표참여	775	0	4	2.7071	.94998
	기권	222	0	4	2.6036	1.09113
정치 참여경험	투표참여	778	0	1	.2751	.44683
	기권	222	0	1	.2072	.40622

3) 상관관계 분석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Ⅴ-3>은 본 연구에서 시행된 총 여섯 차례의 선거 분석 중 19대 선거자료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독립변인 사이의 Pearson 상관계수를 보여주고 있다.[10]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변인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모두 0.7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다.

10) 14대~18대 선거의 Pearson 상관계수는 [부록 3] 참조

<표 Ⅴ-3>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19대) (*: p<.05, **: p<.01, ***: p<.001)

	지식	매체Ⅰ	매체Ⅱ	효능Ⅰ	효능Ⅱ	효능Ⅲ	의무감	의원	민주	참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충청	호남	영남
지식	1																
매체Ⅰ	.200**	1															
매체Ⅱ	.138**	.185**	1														
효능Ⅰ	.120**	.075*	.137**	1													
효능Ⅱ	.169**	.107**	.131**	.573**	1												
효능Ⅲ	.217**	.173**	.155**	.260**	.378**	1											
의무감	.158**	.239**	.062	.165**	.245**	.287**	1										
의원	.146**	.121**	-.006	.079*	.075*	.010	.150**	1									
민주	.130**	.092**	.138**	.167**	.136**	.092**	.069*	.064**	1								
참여	.110**	.065**	.172**	.175**	.186**	.195**	.085**	-.033	.102**	1							
성별	.083**	0.56	.116**	.080*	.015	.035	-.012	.054	.081*	.018	1						
연령	-0.47	.161**	-.457**	-.039	-.025	-.064*	.109**	.134**	-.039	-.117**	-.045	1					
학력	.155**	.016	.522**	.070*	.083**	.126**	-.056	-.013	.107*	.213**	.150**	-.624**	1				
소득	.177**	.062	.315**	.063	.083**	.115**	.009	.037	.129**	.136**	.057	-.255**	.416**	1			
충청	.011	-.030	-.084**	-.049	-.041	-.019	-.009	.056	-.040	-.068*	.029	.034	-.085**	-.005	1		
호남	.026	.053	-.018	.041	.039	.043	.061	-.033	.022	.009	-.011	.081*	-.100**	-.037	-.182**	1	
영남	-.011	.044	-.044	-.047	-.011	.009	-.005	.073*	-002	-.002	-.013	.028	.011	-.054	-.271**	-.302**	1

2. 로지스틱 회귀분석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관련 변인을 일괄투입(Enter)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11]을 실시한 결과는 <표 Ⅴ-4-①>, <표 Ⅴ-4-②>와 같다.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지식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가설 1.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1-1. 유권자가 사실적 지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

11)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종속변인이 0과 1값을 가질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이때, 0과 1은 확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선형 회귀식에 적용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 확률을 로짓으로 변환시켜, 확률과 독립변인과의 관계를 선형적 관계로 변환시켜 주어야 한다.

확률을 로짓(logit)으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승산($\frac{p}{1-p}$)을 구해야 한다. 승산(Odds)은 사건이 발생할 확률인 p와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인 $1-p$의 비율을 말한다. 확률을 승산의 개념으로 전환시킨 뒤, 승산에 자연로그를 취하여 In ($\frac{p}{1-p}$)을 구한다. 이를 로짓(logit)이라고 한다(홍세희, 2005, pp.11-12). 이러한 과정을 통해, 로짓(logit), 즉, 승산(Odds)에 로그(log) 값을 취해준 값을 추정하는 것이 바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확률보다 승산(Odds)의 개념이 보다 유리하다. 특히, 승산비(Odds ratio)는 두 집단의 관계를 비율로 표현한 것으로써, 승산비가 1보다 크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승산비 만큼 증가하게 된다. 또한 승산비가 1 미만이면,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보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승산비 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승산비가 1이면 두 집단의 승산이 동일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우수명, 2010, p.366).

다른 분석법과 구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보통 회귀분석에서 사용하는 추정방법인 최소제곱법(OLS) 대신 최대우도법(ML)을 사용한다. 여기서 우도(likelihood)란 어떤 모집단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최대우도법은 가장 큰 우도를 찾는 방법이다. 최대우도법을 통해 확률 모형을 추정하면 표준오차를 효율적으로 추정하고, 정규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따라서 이변량성과 비정규성을 상당히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우수명, 2010, pp. 366-367).

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1.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수준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설 1]을 설정하였다. 이때 정치적 지식수준의 영향력을 보다 세밀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정치적 지식을 '사실적 지식수준[가설 1-1]'과 '미디어 노출도[가설 1-2]'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특히, 매체의 성격을 반영하여, 전통적 미디어인 '일간신문과 TV[가설 1-2-1]'와 뉴 미디어인 '인터넷[가설 1-2-2]'이 미치는 영향을 나누어 검증하였다.

19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6번의 선거에서 유권자의 사실적 지식수준은 정치참여를 설명해 주는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14대(B=.554, p=.000), 15대(B=.769, p=.000), 16대(B=.932, p=.000), 17대(B=.573, p=.000) 선거에서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18대(B=.268, p=.016) 선거에서는 p<.05 수준에서, 19대(B=.412, p=.001) 선거에서는 p<.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대부분의 선거에서 사실적 지식수준은 높은 설명력을 나타냈다. 결론적으로 사실적 지식수준이 높은 유권자가 투표참여에 더욱 적극적이었다. 특히, 사실적 지식수준이 높아질수록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14대 선거에서 1.739배[Exp(B)=1.739], 15대 선거에서 2.157배[Exp(B)=2.157], 16대 선거에서 2.539배[Exp(B)=2.539], 17대 선거에서 1.774배[Exp(B)=1.774], 18대 선거에서 1.307배[Exp(B)=1.307], 19대 선거에서 1.510배[Exp(B) =1.51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1-1]은 채택되었다.

17대, 18대, 19대 국회의원 선거자료를 통해,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 빈도는 미디어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텔레비전과 신문 이용 빈도가 유권자의 참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텔레비전과 신문을 이용해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참여에 적극적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18대 국회의원선거(B=.167, p=.049)와 17대 국회의원선거(B=.182, p=.028)에서 강력하진 않지만,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른 변인이 고정된 상태에서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이용하는 빈도가 한 단위 상승할수록,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확률은 17대 선거에서 1.199배[Exp(B)=1.199], 18대 선거에서 1.182배[Exp(B)=1.18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의 경우, 총 3번의 선거에서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텔레비전과 신문 매체를 이용하는 유권자일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아진다고 설정한 [가설 1-2-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 [가설 1-2-2]는 기각되었다.

2) 정치적 태도가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가설 2.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2-1.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2. 유권자의 시민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3. 유권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에 만족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4. 유권자의 민주주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유권자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태도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해, 정치 효능감[가설 2-1], 시민적 의무감[가설 2-2],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가설 2-3],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가설 2-4]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때 정치 효능감의 변수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권력 효능감, 결과 효능감, 수단 효능감으로 나누어 가설을 검증하였다.

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정치 효능감은 매 선거에서 유의한 설명변수로서 작용하였다. 14대(B=.629, p=.000), 15대(B=.480, p=.000), 19대(B=.340, p=.000) 선거에서는 결과 효능감이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6대(B=.536, p=.000), 18대(B=.358, p=.000) 선거에서는 수단 효능감이 설명력을 지니는 변수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17대 선거에서는 권력 효능감(B=.174, p=.004)과 수단 효능감(B=.637, p=.000)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았을 때,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은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지라도 투표참여에 대한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따라서 정치 효능감이 높은 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분석 결과, 시민적 의무감 역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설명력 있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시민적 의무감이 높은 시민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가설 2-2]가 p<.001에서 검증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조건을 모두 통제했을 때, 시민적 의무감(B=1.608, p=.000) 한 단위의 상승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 참여할 확률을 4.991[Exp(B)=4.991]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현직 국회의원 수행에 대한 만족감은 해당 문항이 포함된 총 5번의 선거(14대, 15대, 17대, 18대, 19대) 중 4번의 선거(16대, 17대, 18대, 19대)에서 투표참여에 정적인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16대(B=.382, p=.000), 17대(B=.353, p=.000) 선거에서는 p<.001 수

준에서 통계적인 설명력을 지녔고, 18대(B=.242, p=.004), 19대(B=.296, p=.008) 선거에서는 p<.01 수준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 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투표참여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 문항이 포함된 17대, 18대, 19대 선거에서 투표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종합해보면, 유권자의 태도 중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를 제외한 정치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이 투표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정치적 행동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 가설 3.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3-1.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설 3]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 중 공식적이며 합법적인 정치활동 경험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설 3-1]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포함된 17대, 18대, 19대 선거 중에서 17대(B=.810, p=.023) 선거에서만 정치활동 경험이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2004년에 치러진 17대 선거에서만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이 투표참여에 정적인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들이 고정적일 경우, 유권자의 정치참여 경험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 참여할 확률을 2.247배

[Exp(B)=2.247]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더미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투입한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지속적으로 투표참여에 설명력을 보인 변인은 '연령' 변인이다. 구체적으로, 14대(B=.031, p=.001), 15대(B=.532, p=.000), 16대(B=.059, p=.000), 17대(B=.050, p=.000), 18대(B=.023, p=.001), 19대(B=.021, p=.026) 선거에서 연령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분적으로는 지역더미 변수와 소득수준이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16대 선거에서는 호남에 거주하는 유권자가 베이스라인인 서울·경기 지역의 유권자보다 더 많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14대 선거에서는 낮은 소득수준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수준이 투표참여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05$ 수준에서 설명력을 가진다. 자세히 말하자면, 다른 변인들이 고정적인 상태에서, 소득수준이 한 단위 높아지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 참여할 확률을 .842배[Exp(B)=.842]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Ⅴ-4-①> 17대~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19대 국회의원선거		18대 국회의원선거		17대 국회의원선거	
			B	Exp(B)	B	Exp(B)	B	Exp(B)
독립변인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412 (.001**)	1.510	.268 (.016*)	1.307	.573 (.000***)	1.774
		매체 이용 빈도 Ⅰ (일간신문/TV)	.139 (.174)	1.149	.167 (.049*)	1.182	.182 (.028*)	1.199
		매체 이용 빈도 Ⅱ (인터넷)	.006 (.953)	1.006	-.038 (.648)	.962	.001 (.986)	1.001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 Ⅰ (권력 효능감)	-.040 (.645)	.961	.083 (.215)	1.087	.174 (.004**)	1.190
		정치 효능감 Ⅱ (외적 효능감)	.340 (.000***)	1.405	.117 (.097)	1.124	.040 (.519)	1.041
		정치 효능감 Ⅲ (내적 효능감)	.182 (.115)	1.199	.358 (.000***)	1.431	.637 (.000***)	1.891
		시민적 의무감	1.608 (.000***)	4.991	-	-	-	-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296 (.008**)	1.344	.242 (.004**)	1.274	.353 (.000***)	1.423
		민주주의 지지도	-.151 (.158)	.860	.085 (.341)	1.088	.176 (.073)	1.193
	정치적 행동	정치활동 경험	-.199 (.422)	.820	.458 (.118)	1.580	.810 (.023*)	2.247

통제변인	성별	.118 (.569)	1.125	-.010 (.955)	.990	.026 (.879)	1.026
	연령	.021 (.026*)	1.021	.023 (.001**)	1.023	.050 (.000***)	1.051
	학력	.079 (.611)	1.083	-.094 (.274)	.911	-.071 (.567)	.931
	가구소득	.034 (.372)	1.034	.040 (.257)	1.041	.048 (.608)	1.049
	충청	.231 (.482)	1.259	.047 (.852)	1.049	.252 (.392)	1.287
	호남	.174 (.567)	1.190	.364 (.131)	1.439	-.082 (.756)	.922
	영남	.164 (.501)	1.178	.213 (.293)	1.237	-.131 (.552)	.878
상수항		-4.206 (.000)	.015	-3.855 (.000)	.021	-6.366 (.000)	.002
-2 Log Likelihood		642.894[a]		898.142[a]		954.809[a]	
Model Chi-Square		195.201		105.460		235.542	
df		17		16		16	
p		.000		.000		.000	
Nagelkerke R Square		.332		.175		.287	
N		811 (결측치:189)		774 (결측치:226)		1148 (결측치:352)	

*: p<.05, **: p<.01, ***: p<.001

<표 Ⅴ-4-②> 14대~1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참여 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16대 국회의원선거		15대 국회의원선거		14대 국회의원선거	
			B	Exp(B)	B	Exp(B)	B	Exp(B)
독립변인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932 (.000***)	2.539	.769 (.000***)	2.157	.554 (.000**)	1.739
		매체 이용 빈도Ⅰ (일간신문/TV)	-	-	-	-	-	-
		매체 이용 빈도Ⅱ (인터넷)	-	-	-	-	-	-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Ⅰ (권력 효능감)	-	-	-	-	-	-
		정치 효능감 Ⅱ (외적 효능감)	-	-	.480 (.000***)	1.616	.629 (.000***)	1.876
		정치 효능감 Ⅲ (내적 효능감)	.536 (.000***)	1.709	-	-	-	-
		시민적 의무감	-	-	-	-	-	-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382 (.000***)	1.466	-	-	.135 (.133)	1.144
		민주주의 지지도	-	-	-	-	-	-
	정치적 행동	정치활동 경험	-	-	-	-	-	-

통제변인	성별	-.069 (.666)	.933	.228 (.159)	1.257	.288 (.157)	1.334
	연령	.059 (.000***)	1.060	.532 (.000***)	1.702	.031 (.001**)	1.032
	학력	.079 (.514)	1.083	-.097 (.280)	.908	.007 (.956)	1.007
	가구소득	-.080 (.062)	.923	-.035 (.369)	.965	-.172 (.015*)	.842
	충청	.140 (.553)	1.151	-.205 (.360)	.815	-.363 (.199)	.696
	호남	.530 (.020*)	1.700	.120 (.600)	1.128	.040 (.891)	1.040
	영남	.072 (.713)	1.074	.366 (.081)	1.443	-.139 (.583)	.871
상수항		-5.314 (.000)	.005	-2.232 (.090)	.107	-2.143 (.011)	.117
-2 Log Likelihood		1012.088[a]		1015.276[a]		697.116[a]	
Model Chi-Square		231.598		145.384		65.903	
df		10		9		10	
p		.000		.000		.000	
Nagelkerke R Square		.280		.184		.122	
N		1100 (결측치:2)		1200 (결측치:1)		929 (결측치:277)	

*: p<.05, **: p<.01, ***: p<.001

Ⅵ.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투표율 저하 현상에 대한 시민교육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 단계로서,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의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14대부터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서,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가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를 논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요약 및 논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성' 양성은 사회과가 추구해야할 목표 중 하나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회과 내에서의 논의는 주로 참여에 대한 당위적 차원의 강조나 참여 활동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만 주목해왔다. 하지만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참여를 이끄는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유권자 참여에 대한 바람직한 시민교육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선행단계로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많은 변인 중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 태도, 행동이 유권자의 참여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1.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1-1. 유권자가 사실적 지식을 많이 보유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

이다.

1-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1.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이나 TV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1-2-2. 유권자가 공공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2.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2-1. 유권자의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2. 유권자의 시민적 의무감이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3. 유권자가 현직 국회의원의 수행에 만족할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2-4. 유권자의 민주주의 지지도가 높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 가설 3. 유권자의 정치적 행동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줄 것이다.

3-1.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이 많을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위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14대부터 19대 국회의원선거 직후 진행된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유권자의 투표참여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해, PSAW Statistic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의 영향력을 검증한 [가설 1]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의 하위 변수인 '사실적 지식'의 영향력은 분석한 모든 선거에서 유의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즉, 사실적 지식은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한국의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가설 1-1]은 검증되었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Palfery & Poole, 1987; Delli Cartpini & Keeter, 1996; Verba et al, 1995; 문우진, 2009; 송근원, 2003; 이소영, 2011).

둘째, 유권자의 정치적 지식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변수인 '매체 노출도'는 매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전통적인 매체인 텔레비전과 신문을 통해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는 유권자 일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과는 크지 않지만, 분석한 총 3개의 선거인 17대, 18대, 19대 선거 중 2004년 17대 선거와 2008년 18대 선거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대 선거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2-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19대 선거에서 결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우선, 최근 일간신문 구독률의 감소로 인해, 신문 구독률이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Macedo et al. 2005). 본 연구는 텔레비전과 신문을 같은 변인으로 놓고 효과를 검증했기 때문에, 신문에 의해서 상쇄된 영향력이 전체 영향력의 크기를 상쇄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가설 1-2-2]에서 제시한 뉴 미디어인 인터넷의 효과에 대해서는 검증되지 않았다. 많은 이론들이 인터넷이 정치적 지식을 습득하고, 정치적 관심도를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Bimber, 2001; Lupia & Philpot, 2005)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참여로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김용철, 윤성이, 2004; 윤성이, 2007; 최종호, 허석재, 권혁용, 2011; 하세현, 강명구, 2012). 이에 대해서 다른 효과가 인터넷의 효과를 상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인터넷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기저에 존재하고 있는지, 혹은 인터넷의 참여 효과가 투표참여가 아닌 다른 형태의 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투표참여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 변수의 영향력을 검증한 [가설 2]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 효능감은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유권자의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했다.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본 연구는 정치 효능감이 단일 차원의 개념이 아니라고 보고, 정치 효능감을 권력 효능감, 외적(산출) 효능감, 내적(투입) 효능감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토했다. 14대, 15대 선거에서는 외적(산출) 효능감, 16대 선거에서는 내적(투입) 효능감, 17대 선거에서는 권력 효능감과 내적(투입) 효능감, 18대 선거에서는 내적(투입) 효능감, 19대 선거에서는 외적(산출) 효능감이 영향을 미쳤다.

둘째, 시민적 의무감 역시 투표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높은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시민적 의무감은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시민적 의무감이 한 단위 높아질 때, 투표에 참여할 가능성은 4.991배 높아 졌으며, 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다시 한 번 지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ampbell, Gurin, & Miller, 1954; Campbell at al., 1960; Chenung, Chan, & Leung, 2000; Couper, Singer, & Kullka, 1998; Milbrath & Goel, 1977; Rosenstone & Hansen, 2003).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셋째,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 역시 투표참여를 설명하는 강력한 변인임이 입증되었다. 즉, 현직 국회의원 수행에 대해서 만족하는 사람일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증가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분석한 총 다섯 번의 선거에서 14대 선거만을 제외하고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넷째,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는 모든 선거에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2-4]는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하나의 해석은 투표참여 여부를 떠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종속변인의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도는 투표여부를 떠나 평균과 표준편차의 값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해석은 만약 유권자가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도 낫다'라는 질문을 혼동하여, 결과가 상쇄된 것일 수 있다.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지지가 아닌 민주주의 체제의 수행력이나, 민주주의 정부의 수행력이라고 받아들였을 경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행동적 특성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본 [가설 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유권자의 행동적 특성에 대한 하위변수로 유권자의 정치활동 경험이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활동 경험을 관찰한 17대, 18대, 19대 선거 중 17대 선거에서 미미하지만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가설 3-1]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2004년의 17대 국회의원 선거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 영향을 많이 받은 선거이다(강원택, 2010, p.127; 이준한, 2006). 당시 촛불집회 등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활동이 있었다.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치참여 경험에 대한 측정은 응답자의 기억과 판단에 상당히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Brady, 1999, pp.737-743). 따라서 당시의 상황적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다. 차후의 연구에서 보다 엄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성별, 연령, 학력, 가구소득, 지역 변수 중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친 요인은 14대~19대 선거에서의 연령, 16대에서 호남, 14대에서 소득 변인이었다.

연령은 지속적으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아졌다. 기존의 사회경제학 이론에서는 연령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주목했는데(Milbrath 1965, Mibrath

and Goel 1977, Verba, Nie and Kim 1978, Rosenstone and Hansen 1993), 분석결과는 한국에서도 연령효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는 세대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지만(Kim, Choi, & Cho, 2008), 유권자의 참여에 있어서는 여전히 연령효과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사람일수록 투표참여 확률이 낮았다.

16대 선거에서는 호남 사람들이 기준점(baseline)인 서울・경기 지역의 유권자들보다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변인은 투표참여에 대한 설명력이 높지 않았다. 한국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역적 영향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Kim, Choi, & Cho, 2008). 그러나 투표참여에 있어서는 지역적 요인이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4대 선거에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유권자의 투표참여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서구의 사회경제적 이론에 의하면, 소득이 높을수록 유권자의 투표참여 확률이 높아진다(Verba & Nie, 1972; Wolfinger & Rosenston, 1980). 그러나 14대 선거의 결과는 이러한 흐름과 배치된다. 한국은 소득에 따른 계급투표 경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일반적이지만(Mo, Brady, & Ro, 1991),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동원투표 경향이 잔존하여 반영된 것이 아닌가 짐작할 수 있다(이남영, 1993).

정리하자면, 정치적 지식 요인 중에는 사실적 지식, 텔레비전과 일간신문 노출도가 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태도 요인 중에는 정치 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이 투표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정치적 행동 요인으로는 정치활동 경험의 영향력의 효과가 검증되었다. 통제변인에서는 연령, 지역, 소득이 지속적 혹은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과 정치교육에 주는 시민교육적 함의

본 연구 결과는 능동적 시민성 양성을 위한 사회과 교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 함의를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당위적 차원에서 투표참여에 강조점을 두었던 사회과 교육의 연구 경향에서 벗어나, 실제 유권자의 행위를 관찰하여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모델을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의 투표참여를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14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총 여섯 차례의 선거 분석을 통해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설명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델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그동안 한국에서 진행되어온 선거 연구는 단일 선거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지속적인 참여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일 선거 분석은 적합하지 않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치적 지식, 태도, 행동으로 세분화하여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기존의 정치학의 분석틀에서 벗어나 시민교육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지식, 태도, 행동 변수를 독립변수로 구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 투표참여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민교육의 가능성을 검증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능동적 시민성 양성을 위한 사회과 시민교육에 주는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점들이 사회과 교육과정이나 교과서에 얼마나 반영되어있는지 알

아봄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대해 점검해보고, 향후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집필에 있어서 개선 방안에 대한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하게 강조해야할 내용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제시해 준다. 본 연구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인 유권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정립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정치 지식적, 태도적, 행동적 요인 모두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미래의 유권자 양성을 위한 교육에 있어서는 한 측면에 매몰되기보다는 학생들의 지식, 태도, 행동적 영역을 골고루 발달시킬 것이 요구된다. 최근 정의적 영역이나 행동적 영역을 강조한 교육적 흐름을 바탕으로 인지적 영역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 지식의 함양은 중요한 시민의 자질 중 하나이며, 더 높은 차원의 사고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수적이다. 사실적 지식이 투표참여를 설명해 주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준다. 이와 더불어 연구 결과는 정치 효능감, 시민적 의무감,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감과 같은 정의적 측면의 영역과 정치활동 경험이라는 행동적 측면의 영역 역시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의 중요한 내용요소임을 말해준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사회과 선거 교육 및 유권자 교육에 있어서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할 지에 대한 정보도 제시해 준다. 우선, 텔레비전이나 일간신문에 대한 이용 빈도가 투표참여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는 사회과 내에서의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말해준다. 선거교육에 있어서 미디어를 활용한 수업은 단순한 기능적 지식을 제공해 주는 지식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선거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해준 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참여 동기를 강화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과 내에서 교수-학습의 한 방법으로서 NIE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적극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활동의

경험이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결과를 통해 최근 사회과에서 강조되고 있는 참여 학습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제언

본 연구는 투표참여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향후 사회과에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이끌 수 있는 실제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민교육적 측면에서 참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보다 일반적인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유권자가 지닌 정치적 지식, 태도, 행동 변수를 설정하였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변수들이 시민교육에서 말하는 지식, 태도,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보다 교육적 의미를 구현하여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참여를 유인하는 요인들이 실제 교육에서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심층적인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교육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의 진단과 더불어, 향후 교육과정 개정이나 교과서 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본 연구는 정치참여의 한 형태로서 투표참여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은 투표참여를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일 것이다. 정치참여는 다차원적 개념이므로, 투표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다른 형태의 정치참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참여의 범위를 보다 넓게 확장하여,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과 내에서 정치참여 교육에 대한 보다 풍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여겨진다.

참 고 문 헌

가상준 (2006). 지방선거의 민주시민교육 효과. 『한국민주시민교육회보』, 11(1), 3-17.

강경태 (2003). 한국 대통령 선거 어떤 유권자가 참여하나? : 선거관심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7(1), 91-111.

강원택 (2002). 투표 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한국정치학회보』, 36(2), 153-174.

_____ (2008a). 투표 참여, 민주주의와 정당 정치. 『현대정치연구』, 1(2), 75-102.

_____ (2008b). 한국 선거 연구의 동향과 특성. 한국정치학회(편). 『정치학 이해의 길잡이 7권 : 한국정치』(pp.288-320). 파주: 법문사.

_____ (2010). 2007년 대통령 선거와 이슈 : 회고적 평가 혹은 전망적 기대? 강원택(편).『한국 선거정치의 변화와 지속 : 이념, 이슈, 캠페인과 투표참여』. 서울: 나남.

고영복(편) (2000). 『사회학 사전』. 서울 : 사회문화 연구소.

교육과학기술부 (2012). 사회과 교육과정 [별책 7].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2-14호.

곽한영 (2004).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효능감, 참여의무감, 관심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오정, 김영석 (2003). 『사회과교육학의 구조와 쟁점』. 서울 : 교육과학사

권인석 (2000). 정당관련 유권자 행태의 이론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4(2), 87-103.

김관규 (2008). 대학생유권자의 미디어 이용과 투표행동 : 2008년 제18대 총선을 대상으로. 『언론과학연구』, 8(4), 187-221.

김대군 (2008). 선거참여와 민주시민교육의 상보성 고찰.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1(2), 51-67.

김대욱, 이승종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4), 43-62.

김도경 (2007). 정치적 세련됨과 당파적 단서 : 2002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59, 33-64.

김민정, 홍지영 (2011). 정치적 역동성의 결정요인 : 유권자의 투표참여 동기에 관한 교차국가 분석. 『정치정보연구』, 14(1), 241-267.

김명정 (2007). 선거교육에 대한 사회과 교사의 인식연구 : 내용요소, 교수-학습자료, 기대효과 인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9(4), 1-26.

_____ (2009). 청소년 참여가 시민성 함양에 미치는 영향 :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참여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12). 사회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시민교육 목표와 내용의 변천 : 고등학교 일반사회 영역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44(2), 1-28.

김순귀 (2003). 『SPSS를 활용한 로지스틱 회귀모형의 이해와 응용』. 서울 : 한나래아카데미.

김영인 (1999).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관한 시론. 『시민교육연구』, 29, 43-65.

_____ (2002). 정치참여의 시민교육효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_____ (2007). 『청소년의 참여와 시민성 함양』. 서울 : 한국학술정보.

김영태 (2002). 정치적 불만족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 16대 총선을 중심으로. 진영재(편).『한국의 선거Ⅳ』(pp.13-57). 서울 :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_____ (2007). 시민단체의 선거참여 :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함의를 중심으로. 주성수(편).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참여』(pp.59-82).

서울 : 아르케.
_____ (2008). 정치참여. 한국정치학회 편.『정치학이해의 길잡이 3권 : 정치과정』. 파주 : 법문사.
김왕식 (2008). 투표 참여와 기권 : 합리적 선택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46, 295-312.
_____ (2010). 『정치교육론 : 정치현상의 이해』. 파주 : 동명사.
김용철, 윤성이 (2004). 제17대 총선에서 인터넷의 영향력 분석 : 선거관심도와 투표참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5), 197-216.
김우태 (1998). 『정치학의 이해』. 서울: 형성출판사.
김원태 (2001). 고등학교에서의 사회참여 체험교육과 시민성 형성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33, 49-88.
김 욱 (2005). 『정치참여와 탈물질주의 : 한국과 스웨덴의 비교』. 파주 : 집문당.
_____ (2008). 선거 : 선거제도와 투표행태. 『정치학이해의 길잡이 3권 : 정치과정』. 파주 : 법문사.
_____ (2009).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현대정치연구』, 2(1), 175-196.
_____ (2011). 선거와 한국정치. 한국선거학회(편). 『한국 선거 60년 : 이론과 실제』(pp.17-26). 서울 : 오름.
김유미 (2007).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의 선거교육에 관한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형준 (2006). 17대 총선과 세대 : 정당지지 분석을 중심으로. 어수영(편). 『한국의 선거 V』(pp.269-299). 서울 : 오름.
_____ (2008). 한국 선거의 투표율 하락 추이와 원인 고찰. 『21세기정치학회보』, 18(1), 93-122.
남채봉 (2002).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정치참여와 정치의식 변화.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류태건 (2010). 정치효능, 정치신뢰, 정치참여의 이론과 현실. 『지방정부연구』, 14(2), 243-267.

_____ (2011).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의 유형별 관계. 『21세기정치학회보』, 21(3), 383-416.

모경환, 이정우 (2004). '좋은 시민'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시민교육 연구』, 36(1), 63-82.

문우진 (2009). 정치정보, 정치참여와 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3(4), 327-349.

박가나 (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광배 (2003). 『PASW Statistics 18.0』. 서울 : 학지사.

박정서 (2011). 탈북 청소년과 남한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비교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희봉, 이희창, 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 『한국행정학보』, 37(3), 45-66.

박찬욱 (2005). 한국인 정치참여의 특징과 결정요인 : 2004년 조사결과 분석.『한국정치연구』, 14(1), 147-193.

배귀희, 임승후 (2009). 정부신뢰가 공식적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1(4), 1421-1447.

서현진 (2003). 미국 유권자의 정치적 신뢰도와 투표참여의 관계 : 경로 분석을 통한 재검토. 『한국정치학회보』, 37(1), 337-465.

서현진 (2005). 선거와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분석 : 고등학교 사회 및 정치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7(4), 73-94.

성태제 (2007). 『SPSS / AMOS를 이용한 알기 쉬운 통계분석』. 서울 : 학지사.

송근원 (2003). 16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정치적 관심도. 『사회과학연구』, 19, 51-75.

송종길 (2006). 공직후보 TV토론 이용 동기가 유권자의 투표행위에 미

치는 영향 연구 : 서울지역 유권자들의 정치적 지식과 효능감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0(6), 440-460.

신동욱, 양해술 (2010). 인터넷미디어의 특성이 정치커뮤니케이션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정치·정보연구』, 13(2), 137-158.

안철현 (2003). 한국 선거와 정당의 역사적 특성과 과제. 『한국정치연구』,12(1), 89-118.

엄기홍 (2012). 민주시민교육과 투표참여 : 제 17대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35, 40-67.

우수명 (2010). 『PASW Statistics 18.0』. 서울 : 인간과 복지.

유명철 (1998). 선거 참여를 위한 교육에서의 유권자 교육. 『정치·정보연구』, 1(1), 217-253.

윤성이 (2007). 인터넷과 선거정치의 변화 : 정치참여, 선거경쟁 그리고 투표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14(2), 163-182.

이갑윤 (2011). 『한국인의 투표 행태』. 서울: 후마니타스.

이곤수 (2011). 시도지사 선거의 현직효과. 이내영・임성학(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4』(pp.125-150). 서울 : EAI.

이남영 (1993). 투표참여와 기권 : 제 14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이남영(편). 『한국의 선거Ⅰ』(pp.21-47). 서울 : 나남.

_____ (2009). 선거와 정치변동. 『한국정당학회보』, 8(1), 147-167.

이명행 (2011). 공직선거의 투표참여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영 (2007). 고등학교 사회・정치 교과서에 나타난 선거 관련 교육내용에 대한 고찰.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소영 (2009). 인지구조와 투표행태, 그리고 대중매체. 전용주 외(편). 『투표행태의 이해』(pp.156-187). 서울 : 한울 아카데미.

_____ (2011). 정치적 태도와 선택에 있어서 정치적 정보의 영향 : 18대 총선 유권자를 중심으로. 『현대정치연구』, 4(1), 39-71.

이준한 (2006). 17대 총선과 유권자의 투표참여. 어수영(편). 『한국의 선거 V』(pp.135-154). 서울 : 오름.

이철한, 현경보 (2007). 유권자의 미디어 이용이 정치지식, 정치효능감, 정치불신감에 미치는 영향. 『언론과학연구』, 7(4), 112-142.

이현우 (2002). 인터넷과 사회자본의 강화를 통한 선거 참여 : 미국 2000년 대선의 경우. 『한국정치학회보』, 36(3), 309-331.

이현출 (2006). 정당지도자 요인이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 어수영(편). 『한국의 선거 V』(pp.301-327). 서울 : 오름.

이효성, 김인영 (2003).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이용이 유권자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분석. 『2003년 한국언론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자료집』, 707-725.

전득주 (1995). 민주화, 국제화 그리고 통일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향 모색. 『한국정치학회보』, 29(1), 29-52.

전용주 (2009). 투표행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전용주(편). 『투표행태의 이해』(pp.11-21). 서울 : 한울 아카데미.

정수현 (2012). 투표율과 사회경제적 지위모델 : 제4회와 제5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투표율 분석. 『한국정치연구』, 21(1), 27-54.

정한울, 권혁용 (2009). 경제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의 경제투표. 김민전・이내영(편). 『변화하는 한국유권자 3』(pp. 250-239). 서울 : EAI.

조진만 (2010). 민주시민 의식과 투표참여 : 정치교육에 대한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3(1), 85-104.

조성대 (2006). 투표참여와 기권의 정치학 : 합리적 선택이론의 수리모형과 17대 총선. 『한국정치학회보』, 40(2), 51-74.

_____ (2009). 투표참여와 기권. 전용주 외(편).『투표행태의 이해』(pp.222-256). 서울 : 한을 아카데미.

조성동, 김규찬, 강남준 (2010). 다매체 수용자의 장르 선호와 장르 이용에 따른 정치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언론학회보』,

54(1), 362-386.
조성동, 나은경 (2011). 매체의 이용 장르와 기능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1), 242-286.
조인희, 정경희, 이호영 (2008). 정치적 태도가 정치적 신뢰와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10, 175-207.
주성수 (2006).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서울 : 아르케.
차경수, 모경환 (2008).『사회과 교육』. 서울: 동문사.
최장집 (2006). 『민주주의의 민주화』. 서울 : 후마니타스.
_____ (2010).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개정 2판). 서울 : 후마니타스.
최종호, 허석재, 권혁용 (2011). 인터넷과 정치적 관심, 그리고 투표행태 : 17대 대통령 선거의 사례. 『평화연구』, 19(2), 175-197.
최진아 (2009). 선거연수원의 선거 교육 자료에 대한 내용 분석 : 고등학교 정치교과서 '2-2. 선거와 참여'단원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세희 (2005).『이항 및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서울 : 교육과학사.
하세헌, 강명구 (2012). 인터넷 정치정보 이용과 정치적 관심 :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15(1), 1-28.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1992). 제14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_____ (1996). 제15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_____ (2000). 제16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_____ (2004).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_____ (2008).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_____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의식조사.
한덕웅 (2005). 『사회심리학』. 서울 : 학지사.
황명순 (2009). 정치 교과서의 선거교육에 관한 내용 분석.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ramson, P. R. (1983). *Political Attitudes in America*. San Francisco

: Freeman.

Allport, F. H. (1935). Attitudes. In C. Murchison (Ed.), *A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Worchester, MA : Clark University Press.

Almond, G. G. and Verba, S. (1963). *The Civic Culture*.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Achen, C. H. and Hur, A. (2011). Civic Duty and Voter Turnout in Japan and South Korea. 『선거연구』, 1(2), 45-68.

Bandura, A. (2001).『자기효능감과 삶의 질』(박영신, 김의철 옮김). 서울 : 교육과학사. (원서출판 1997).

Banks, J. A. and McGee Banks, C. A. (1999). Teaching Strategies for the Social Sutdies : Decision-Making and Citizen Action. (5th). New York : Longman.

Bartle, J. (2000). Political Awareness, Opinion Constraint and the Stability of Ideological Positions. *Political Studies, 48,* 467-484.

Bennett, S. E. (1989). Trends in Americans' Political Information, 1967-1987. *American Politics Research, 17*(4), 422-435.

Bennett, S. E., Rhine, S. L., and Flickinger R. S. (2000). Reading's Impact On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Political Behavior, 22*(3), 167-195.

Bimber, B. (2001). Information and Political Engagement in America : The Search for Effe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at the Individual Level.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54*(1), 53-67.

Blach, G. I. (1974). Multiple Indicators in Survey Research : The Concept "Sense of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Methodology, 1*(2), 1- 43.

Blais, A. and Achen, C. H. (2010). Taking Civic Duty Seriously :

Political Theory and Voter Turnout. Paper to Center for the Study of Democratic Politics, Princeton University. Retrieved from https://www.princeton.edu/csdp/events/Achen031110/Achen031110.pdf

Brady, H. E. (1999). Chapter 13. Political Participation. In J. P., Shaver, P. R., and Wrightsman, L. S.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pp.737-801). San Diego : Academic Press.

Brains, C. L. and Wattenberg, M. P. (1996). Campaign Issue Knowledge and Salience : Comparing Reception from TV Commercials, TV News, and Newspaper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0*(1), 172-193.

Campbell. A., Gurin, G., and Miller, W. E. (1954). *The Voter Decides*. New York : Miller.

Campbell, A., Converse, P. E., Miller, W. E., and Stokes, D. E. (1960), *The American Voter*. (Unabridged edition).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amberlain, A. (2012). A Time-Series Analysis of External Efficacy. *Public Opinion Quarterly, 76*(1), 117-130.

Cheung, CH., Chan, WT., and Leung, KK. (2000). Role of Civic Duty,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Mass Media for Voter Turnout In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2*(2), 199-207.

Citrin, J. (1974). Comment : The Political Relevance of Trust in Government,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73-988.

Clarke, P. and Fredin, E. (1978). Newspapers, Television and Political Reasoning. *Public Opinion Quarterly, 42*(2), 143-160.

Couper, M. P., Singer, E., and Kulka, R. A. (1998). Participation in

the 1990 Decennial Census : Politics, Privacy, Pressures. *American Politics Research, 26*, 59-80.

Craig, S. C. (1979). Efficacy, Trust, and Political Behavior : At Attempt to Resolve a Lingering Conceptual Dilemma. *American Politics Research, 7*, 225-239.

Craig, S. C., Niemi, R. G., and Silver, G. E. (1990). Political Efficacy and Trust : A Report on the NES Pilot Study Items. *Political Behavior, 12*(3), 289-314.

Dalton, J. R. (2010). 『시민정치론 :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5th) (서유경 옮김). 서울 : 아르케. (원서출판 2008).

David, E. and Dennis, J. (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1), 25-38.

Delli Carpini, M. X. and Keeter, S. (1991). Stability and Change in the U.S. Public's Knowledge of Politics.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55,* 583-612.

_____ (1993). Measuring Political Knowledge : Putting Frist Things Firs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7)*4, 1179-1206.

_____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New Haven, Conn. : Yale University Press.

Downs, A. (1957). *An Economy Theory of Democracy*. New York : Harper.

_____ (1997). 『민주주의 경제학 이론』 (전인권, 안도경 옮김). 서울 : 나남 출판. (원서출판 1957).

Druckman, J. N. (2005). Media Matter : How Newspapers and Television News Cover Campaigns and Influence Voter.

Political Communication, 22(4), 463-481.

Easton. D. (1975). A Reassess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Support.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4), 435-457.

Easton, D. and Dennis, J. (1967). *The Child's Acquisition of Regime Norms : Political Effica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1*(1), 25-38.

Erikson, R. S. (1976). The Influence of Newspaper Endorsements in Presidential Elections : The Case of 1964.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0*(2), 207-233.

Erskine, H. G. (1962). The Polls : The Informed Public.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26(4), 669-677

_____ (1963). The Polls : Textbook Knowledge. *The Public Opinion Quarterly, 27*(1), 133-141.

Eveland, W. P. and Scheufele, D. A. (2000). Connecting News Media Use with Gaps in Knowledge and Participation. *Political Communication, 17*, 215-237.

Finifter, A. W. (1970). Dimensions of Political Alienation.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4*(2), 389-410.

Finkel, S. E., Sigelman, L., and Humphiries, S. (1999). Democratic Value and Political Tolerance. In J. P., Shaver, P. R., and Wrightsman, L. S.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pp.203-296). San Diego : Academic Press.

Flanigan, W. H. and Zingale, N. H. (1998). *Political Behavior of the American Electorate* (9th ed.). Washington, D. C. : Congressional Quarterly.

Grönlund, K. and Setälä, M. (2007), Political Trust, Satisfaction and Voter Turnout. *Comparative European Politics, 5,* 400-422.

Galston, W. A. (2001).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ngagement, and

Civic Educ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217-234.

Hague, R. and Harrop, M. (2011). 『비교정부와 정치』 (김계동, 김욱, 민병오, 윤진표, 지병근 옮김). 서울 : 명인문화사 (원서출판 2010).

Heywood, A. (2003). 『정치학 : 현대정치의 이론과 실천』 (조현수 옮김). 서울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Hofstetter, C. R., Sticht, T. G. and Hofstetter, C. H. (1999). Knowledge, Literacy, and Power. *Communication Research, 26*(1), 58-80.

Hollander, S. (1979). On the Strength of Newspaper Endorsements. *Public Opinion Quarterly, 43*(3), 405-407.

Huntington, S. and Nelson, J. (1977).『政治參與의 論理와 現實』 (김학준 옮김). 서울 : 일조각. (원서출판 1976).

Iyengar, S. (1986). Whither Political Information. Report to the National Election Studies Board of Overseers,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University of Michgan.

Jerit, J., Barabas, J., and Bolsen, T. (1996). Citizens, Knowledge, and the Information Enviroment.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50*(2), 266-282.

Kartz, R. (1997). *Democracy and Elections.*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Key, V. O. (1966). *The Responsible Electorate*. Cambrige : Belknap Press.

Kim, HM., Choi, JY., and Cho, JM. (2008). Changing Cleavage Structure in New Democracies : An Empirical Analysis of Political Cleavage in Korea. *Electoral Studies, 27*, 136-150.

Lane, R. E. (1959). *Political Life : Why People Get Involved in*

Politics. Glencoe, Ⅲ. : Free.

Lee, JH. (2004). Who Votes and Why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6*(2), 183-198

Lewis-Beck, M. S., Jacoby, W. G., Norpoth H, and Weisberg H. F. (2009). *The American Voter Revisited.*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gan Press.

Linde, J. and Ekman, J. (2003). Satisfaction with Democracy : A Note on a Frequently Used Indicator in Comparative Politic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2*, 391-408.

Lijphart, A. (1997). Unequal Participation : Democracy's Unresolved Dilemma,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1*(1), 1-14.

Lupia, A. and Philpot, T. S. (2005). View from Inside the Net : How Websites Affect Young Adults' Political Interest. *Journal of Poltiics, 67*(4), 1122-1142.

Macedo, S., Alex-Assensoh, Y., Berry, J. M., Brintnall, M., Campbell, D. E., Fraga, L. R., Fung, A., Galston, W. A., Karpowitz, C. F., Levi, M., Levinson, M., Lipsitz, K., Niemi, R. G., Putnam, R. D., Rahn, R., Reich, R., Rodgers, R. R., Swanstrom, T. Walsh, K. C. (2005). *Democracy at Risk : How Political Choice Undermine Citizen Participation and What We Can Do About It.* Washington, D. C. : The Booking Institution Press.

Mcpherson, J. M., Welch, S., and Clark, C. (1977). The Stability and Reliability of Political Efficacy : Using Path Analysis to Test Alternative Model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2), 509-521.

Milbrath, L. W. and Goel, M. L. (1977). *Political Participation.* (2nd ed.). Chicago : Rand McNally College Pub. Co.

Miller, A. H. (1974a). Political Issues and Trust in Government, 1964-197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51-972.

_____. (1974b). Rejoinder to Comment by Jack Citrin : Political Discontent or Ritualism?,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8*(3), 989-1001.

Milligan, K., Moretti, E., and Oreopoulos, P. (2004). Does Education Improve Citizenship? Evidenc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Journal of Public Econimics, 88*, 1667-1695.

Mo, JR., Brady, M. & Ro, JH. (1991). Urbanization and Voter Turnout in Korea. *Political Behavior, 13*(1), 21-32.

Morrell, M. E. (2003). Survey and Experimental Evidence for a Reliable and Valid Measure of Internal Political Efficacy. *Public Opinion Quarterly, 67*(4). 589-602.

Newman, F. D. (1990). Higher Order Thinking in Teaching Social Studies : A Rational for the Assessment of Classroom Thoughtfulness.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1), 41-56.

Niemi, R. G., Graig, S. C., and Mattei, F. (1991). Measuring Internal Political Efficacy in the 1988 National Election Stud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5*(4), 1407-1413.

Niemi, R. G., Weisberg, H. F., and Kimball, D. C. (2011). The Study of Voting and Election. In Niemi, R. G., Weisberg, H. F., and Kimball, D. C.(Eds.),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pp.1-22). Washington, D. C. : CQ Press.

Norris, P. (1998). Introduction. In P. Norris. (Ed.) *Elections and Voting Behaviour : new challenges, new perspectives* (pp.14-25). Aldershot : Ashgate/Dartmouth.

_____ (1999). The Growth of Critical Citizens? In Norris, P.

Critical Citizens : Global Support for Democratic Governmen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0). The Impact on Television on Civic Malaise. In Pharr, S. J. and Putnam, R. D. (Eds.), *Disaffected Democracies :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_____ (2002). *Democratic Phoenix : Reinventing Political Activism.* New York : Cambrige University.

_____ (2007).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 (이원태 외,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원서출판 : 2001).

OECD (2011). Voting. In *Society at a Glance 2011 :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1787/soc_glance-2011-29-en.

Palfery, T. R. and Poole, K. T. (1987). The Relationship between Information, Ideology, and Voting Behavior.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 511-530.

Parker, W. and Jarolimek, J. (1984). Citizenship and the Critical Role of the Social Studies. NCSS Bulletin No. 72.

Pateman, C.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N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owell, Jr. G. B., Dalton, R. J., and Strom, K. (2012). *Comparative Politics Today : A Theoretical Framework* (6th ed.). IL : Pearson.

Putnam, R. D. (2009). 『나홀로 볼링 : 볼링 얼론 - 사회적 커뮤니티의 붕괴와 소생』(정승현 옮김). 서울 : 페이퍼로드. (원서출판 2000).

Price, V. & Zaller, J. (1993). Who Gets The News? Alternative Measures of News Reception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search. Public Opinion Quarterly, 57(2), 133-164.

Price, V. (1999). Political Information, In J. P., Shaver, P. R., and Wrightsman, L. S.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pp.591-639). San Diego : Academic Press.

Reef, A. J. and Knoke, D. (1999). Political Alienation and Efficacy. In Robinson. J. P., Shaver, P. R., and Wrightsman, L. S.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 (pp.413-464). San Diego : Academic Press.

Riker, W. H. and Ordeshook, P. C.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1), 25-42.

Robinson, J. P., Shaver, P. R., and Wrightsman, L. S. (1999). Scale Selection and Evaluation. In Robinson, J. P., Shaver, P. R., and Wrightsman, L. S. (Eds.), *Measures of Political Attitudes* (pp.1-36). San Diego : Academic Press.

Rosenstone, S. J. and Hansen, J. M. (2003). *Mobilization, Participation, and Democracy in America.* (2nd ed.). NY : Longman.

Scarrow, H. and Borman, S. (1979). The Effects of Newpaper Endorsements on Election Outcomes. *Public Opinion Quarterly, 43*(3), 388-393.

Schattschneider, E. E. (2008).『절반의 인민주권』(현재호, 박수형 옮김). 서울 : 후마니타스. (원서출판 1975).

Seeman, M. (1959). On the Meaning of Alien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4*(6), 783-791.

Shively, W. P. (2008).『정치학 개론 : 권력과 선택』(11판). (김계동 외 옮김). 서울: 명인문화사. (원서출판 2008).

Stromvack, J. and Shehata, A. (2010). Media Malaise or a Virtuous Circle? Exploring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News

Media Exposure, Political News Attention and Political Interest.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 575-597.

Tichenor, P. J., Donohue, G. A., and Olien. C. N. (1970). Mass Media Flow and Differential Growth in Knowledge. *Public Opinion Quarterly, 34(*2), 159-170.

Van Deth, J. W. (2007). Norms of Citizenship. In Dalton, R. J. and Klingemann, H. D. (Eds.), *Political Behavior* (pp.402-417). Oxford,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Verba, S. and Nie, N. H.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New York : Harper.

Verba, S., Nie, N. H. and Kim, J. O. (1978). *Participation and Political Equality*.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Verba, S., Schlozman, K. L., and Brady, H. E. (1995). *Voice and Equality :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Wagner, J. (1983). Media Do Make a Difference : The Differential Impact of Mass Media in the 1976 Presidential Rac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7*(3), 407-430.

Welch, S. and Clark, C. (1975). Determinants of Change In Political Efficacy : A Test of Two Hypotheses. *Journal of Political and Military Sociology, 3*(2), 207-217.

Weil, F. D. (1989). The Sources and Structure of Legitimation in Western Democracies : A Consolidated Model Tested with Time-series Data in Six Countries Since World War Ⅱ.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4*, 682-706.

Wolfinger, R. E. and Rosenstone, S. J. (1980). *Who Vote?* New Haven and London : Yale University Press.

Woolever, R. and Scott, K. P. (1988).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Glenview, IL : Sccott, Foresman and Company.
Zaller, J. (1986). Analysis of Information Items in the 1985 NES Pilot Study. Report to the National Election Studies Board of Overseers, Center for Political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_____ (1990). Political Awareness, Elite Opinion, Leadership, and the Mass Survey Response. *Social Cognition, 8*(1), 125-153.
_____ (1992). *The Nature and Origines of Mass Opinion.*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 iLibrary http://www.oecd-ilibrary.org/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http://www.ksdc.re.kr/databank/

[부록 1]

제 19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 조사 문항 및 변수 코딩 지표

■ 종속변인

<투표참여>

문9. 00님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1) 투표했다 = 1

(2) 안 했다 = 0

(3) 모름

* 1 과 0 더미변수로 조작

* 모름 / 무응답은 결측값

■ 독립변인

<사실적 지식>

문56. 00님 지역구의 18대 현역 국회의원 이름은 무엇입니까?

문59. 이번 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한 정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문60. 현재 UN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 정답 = 1 / 모름, 무응답, 오답 = 0

* 맞은 개수를 합하여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측정

* 최소 0점～최대 3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Ⅰ : 일간신문/TV>

문4-1. 00님께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종이신문), TV 프로그램 같은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이용하지 않는다. = 1

(2)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이용한다. = 2
(3)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용한다. = 3
(4) 매일 이용한다. = 4
(5) 모름
* 모름/ 무응답 = 0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매체 이용 빈도가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Ⅱ : 인터넷>
문4-2. 00님께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이용하지 않는다. = 1
(2)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이용한다. = 2
(3)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용한다. = 3
(4) 매일 이용한다. = 4
(5) 모름
* 모름/ 무응답 = 0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매체 이용 빈도가 높음

<정치 효능감Ⅰ : 권력 효능감>
문36.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의 눈금 중에서 00님은 몇 번에 해당하십니까?
(1)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도 없다. = 1
(2) = 2
(3) = 3
(4) = 4
(5)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 5
(8)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정치 효능감Ⅱ: 외적 효능감>

문37.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 1
(2) = 2
(3) = 3
(4) = 4
(5)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 5
(8)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정치 효능감Ⅲ : 내적 효능감>

문38-2. 00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1) 매우 공감한다. = 1
(2) 다소 공감한다. = 2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3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4
(5)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시민적 의무감>

문2. 00님에게 있어서, 투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시민의 의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그렇다. = 1

(2) 아니다 기권할 수도 있다. = 0

(8) 모름 = 0

* 1과 0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조작

* 무응답 = 결측값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문3-1. 00님 지역구의 18대 현역 국회의원이 지난 4년간 한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하였다. = 4

(2) 다소 만족하였다. = 3

(3)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 = 2

(4)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 1

(8) 모름 = 0

* 역코딩

* 최소 0점~최대 4점, 높을수록 현직 국회의원 수행에 만족

<민주주의 지지도>

※문34. 00님께서는 다음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도 낫다."

(1) 매우 찬성한다. = 4

(2) 다소 찬성한다. = 3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2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 1

(8) 모름 = 0

* 역코딩

* 최소 0점~최대 4점,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해서 만족

<정치활동 경험>

문41. 다음의 정치적 행동들 각각에 대해서 해 보신 적이 있는지, 만약 없다면 앞으로 해 볼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절대 안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41-1. 청원서에 서명하는 일

문41-2. 각종 사회운동(불매운동 등)에 참여하는일

문41-3.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시위(촛불시위 등)에 참여하는 일

문41-6. 정치변화를 위하여 정당이나 시민단체에 가입하는 일

(1) 해 본적 있다. = 1

(2) 앞으로 할 수도 있다. = 0

(3) 절대 안할 것이다. = 0

(8) 모름 = 0

* 문41-1, 문41-2, 문41-3, 문 41-6에 대해서, 각각 해 본적 있으면 1, 해 본적 없으면 0으로 코딩한 후, 이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합성변수로 조작

* 합산한 점수가 1점~4점일 때는 1, 0점일 때는 0으로 코딩하여 1 과 0 더미변수로 조작

■ 통제변인

<성별>

선문3.

(1) 남성 = 1

(2) 여성 = 0

<연령>

선문4. 00님의 연세는 선거일인 4월 11일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실제 연령으로 측정

<학력>

SQ3. 00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유치원, 특수학교 유치원

(2)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졸업

(3)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4) 고등학교 중퇴, 고등학교 졸업

(5) 고등학교 졸업후 비정규교육

(6) 전문대학, 기술대학, 기능대학, 중퇴, 졸업

(7) 대학 재학, 대학 중퇴, 대학 졸업

(8) 석사 과정 또는 석사 졸업

(9) 박사 과정 또는 박사 졸업

(96) 전혀 교육 못 받았다

(98) 모름

* 초등학교 졸업 (96), (1), (2) = 1

* 중학교 졸업 (3) = 2

* 고등학교 졸업 (4), (5) = 3

* 대학교 재학 및 대학교 졸업 (6), (7) = 4

* 대학졸업 이상 (8), (9) = 5

* 모름 / 무응답 = 결측값

<가구소득>

SQ14. 00님 댁의 한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1) 100만원 미만 = 1 (2) 100~149만원 = 2 (3) 150~199만원 = 3

(4) 200~249만원 = 4 (5) 250~299만원 = 5 (6) 300~349만원 = 6

(7) 350～399만원 = 7 (8) 400～449만원 = 8 (9) 450～499만원 = 9
(10) 500～599만원 = 10 (11) 600～699만원 = 11 (12) 700만원이상 = 12
(98) 모름
* 모름 = 결측값

<출신지>
SQ21. 00님의 출신지(고향)는 어디십니까?

(1) 서울	(2) 인천/경기	(3) 대전/충청
(4) 광주/전라	(5) 대구/경북	(6) 부산/울산/경남
(7) 강원	(8) 제주	(9) 이북/해외/기타

(98) 모름
* 서울/경기를 기준치(Baseline)로 한 충청, 호남, 영남지역 더미변수를 만들어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충청, 호남, 영남 출신의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측정
* 충청더미변수 : 충청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호남더미변수 : 호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영남더미변수 : 영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제 18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 조사 문항 및 변수 코딩 지표

■ 종속변인
<투표참여>
문22. 00님은 이번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1) 투표했다 = 1
(2) 안 했다 = 0
(3) 모름
* 1 과 0 더미변수로 조작

* 모름 / 무응답은 결측값

■ 독립변인

<사실적 지식>

문25. 대통령의 임기는 몇 년입니까?

문26. 우리나라 여당은 어느 정당입니까?

문27.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 정답 = 1 / 모름, 무응답, 오답 = 0
* 맞은 개수를 합하여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측정
* 최소 0점～최대 3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Ⅰ: 일간신문/TV>

문43. 00님께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종이신문)이나 TV 프로그램 같은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이용하지 않는다. = 1
(2)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이용한다. = 2
(3)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용한다. = 3
(4) 매일 이용한다. = 4
(5) 모름

* 모름/ 무응답 = 0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매체 이용 빈도가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Ⅱ : 인터넷>

문44. 00님께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이용하지 않는다. = 1
(2)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이용한다. = 2
(3)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용한다. = 3

(4) 매일 이용한다. = 4

(5) 모름

* 모름/ 무응답 = 0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매체 이용 빈도가 높음

<정치 효능감Ⅰ: 권력 효능감>

문7.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의 눈금 중에서 00님은 몇 번에 해당하십니까?

(1)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도 없다. = 1

(2) = 2

(3) = 3

(4) = 4

(5)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 5

(8)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정치 효능감Ⅱ : 외적 효능감>

문8.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 1

(2) = 2

(3) = 3

(4) = 4

(5)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 5

(8)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정치 효능감Ⅲ : 내적 효능감>

문39-5. 00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대한 다음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

(1) 매우 공감한다. = 1

(2) 대체로 공감한다. = 2

(3)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3

(4)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4

(5)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시민적 의무감>

* 문항 없음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문41. 00님께서는, 00님 지역구의 현역의원이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한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하였다. = 4

(2) 다소 만족하였다. = 3

(3)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 = 2

(4)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 1

(8) 모름 = 0

* 역코딩

* 최소 0점～최대 4점, 높을수록 현직 국회의원 수행에 만족

<민주주의 지지도>

※문34. 00님께서는 다음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도 낫다.”

(1) 매우 찬성한다. = 4

(2) 다소 찬성한다. = 3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2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 1

(8) 모름 = 0

* 역코딩

* 최소 0점～최대 4점,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해서 만족

<정치활동 경험>

문40. 00님께서는 지난 5년 동안에 정부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을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

(2) 없다. = 0

(8) 모름 = 0

* 1과 0 더미변수

■ 통제변인

<성별>

선문3.

(1) 남성 = 1

(2) 여성 = 0

<연령>

선문4. 00님의 연세는 선거일인 4월 9일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실제 연령으로 측정

<학력>

SQ1. 00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전혀 교육을 못 받았다.

(2) 초등학교 중퇴

(3) 초등학교 졸업

(4)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5) 고등학교 졸업

(6) 직업학교

(7) 대재 또는 중퇴

(8) 대학 졸업이상

(98) 모름

(99) 무응답

* 초등학교 졸업 (1), (2), (3) = 1

* 중학교 졸업 (4) = 2

* 고등학교 졸업 (5), (6) = 3

* 대학교 재학 및 대학교 졸업 (7) = 4

* 대학졸업 이상 (8) = 5

* 모름 / 무응답 (98), (99) = 결측값

<가구소득>

SQ14. 00님 댁의 한달 가구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1) 100만원 미만 = 1 (2) 100～149만원 = 2 (3) 150～199만원 = 3

(4) 200～249만원 = 4 (5) 250～299만원 = 5 (6) 300～349만원 = 6

(7) 350～399만원 = 7 (8) 400～449만원 = 8 (9) 450～499만원 = 9

(10) 500～599만원 = 10 (98) 모름

* 모름 = 결측값

<출신지>

SQ15. 00님의 출신지(고향)는 어디십니까?

(1) 서울 (2) 인천/경기 (3) 대전/충청

(4) 광주/전라 (5) 대구/경북 (6) 부산/울산/경남

(7) 강원 (8) 제주 (9) 이북/해외/기타

(98) 모름

* 서울/경기를 기준치(Baseline)로 한 충청, 호남, 영남지역 더미변수를 만들어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충청, 호남, 영남 출신의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측정

* 충청더미변수 : 충청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호남더미변수 : 호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영남더미변수 : 영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제 17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 조사 문항 및 변수 코딩 지표

■ 종속변인

<투표참여>

문3. 00님은 이번 선거에서 투표를 하셨습니까?

(1) 투표했다 = 1

(2) 안 했다 = 0

(3) 모름

* 1 과 0 더미변수로 조작

* 모름 / 무응답은 결측값

■ 독립변인

<사실적 지식>

문23.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문24. 국회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요?

문25. 현재 우리나라 국무총리의 이름은?

* 정답 = 1 / 모름, 무응답, 오답 = 0

* 맞은 개수를 합하여 0점에서 3점까지 점수를 측정

* 최소 0점～최대 3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Ⅰ : 일간신문/TV>

문41. 00님께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일간신문(종이신문)이나 TV 프로그램 같은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이용하지 않는다. = 1

(2)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이용한다. = 2

(3)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용한다. = 3

(4) 매일 이용한다. = 4

(5) 모름

* 모름/ 무응답 = 0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매체 이용 빈도가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Ⅱ : 인터넷>

문42. 00님께서는 공공문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넷 매체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1) 이용하지 않는다. = 1

(2) 일주일에 한 두 차례 이용한다. = 2

(3) 일주일에 서너 차례 이용한다. = 3

(4) 매일 이용한다. = 4

(5) 모름

* 모름/ 무응답 = 0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매체 이용 빈도가 높음

<정치 효능감Ⅰ : 권력 효능감>

※문9.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의견도 있고, 별 차이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다음의 눈금 중에서 00님은 몇 번에 해당하십니까?

(1)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어떤 차이도 있다. = 5

(2) = 4

(3) = 3

(4) = 2

(5)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 1

(8)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역코딩

* 최소 0점～최대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정치 효능감Ⅱ : 외적 효능감>

문10. 누구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미래의 일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1)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 1

(2) = 2

(3) = 3

(4) = 4

(5)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는가는 중요하다. = 5

(8)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정치 효능감Ⅲ : 내적 효능감>

문31. 00님께서는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

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그렇다. = 1
(2) 그런 편이다. = 2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4) 절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5) 모름
* 모름 = 0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시민적 의무감>
* 문항 없음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문28. 00님께서는, 00님 지역구의 현역의원이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한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하였다. = 4
(2) 다소 만족하였다. = 3
(3) 별로 만족하지 못했다. = 2
(4)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 1
(8) 모름 = 0
* 역코딩
* 최소 0점～최대 4점, 높을수록 현직 국회의원 수행에 만족

<민주주의 지지도>
※문11. 00님께서는 다음에 대해서 얼마나 찬성하십니까?
"민주주의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른 어떤 정부 형태보다도 낫다."
(1) 매우 찬성한다. = 4

(2) 다소 찬성한다. = 3
(3) 별로 찬성하지 않는다. = 2
(4) 전혀 찬성하지 않는다. = 1
(8) 모름 = 0
* 역코딩
* 최소 0~최대 4점, 높을수록 민주주의에 대해서 만족

<정치활동 경험>
문20. 00님께서는 지난 5년 동안에 정부가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을 해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 = 1
(2) 없다. = 0
(8) 모름 = 0
* 1과 0 더미변수

■ 통제변인
<성별>
선문2.
(1) 남성 = 1
(2) 여성 = 0

<연령>
선문3. 00님의 연세는 선거일인 4월 9일 현재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 실제 연령으로 측정

<학력>
SQ1. 00님께서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1) 전혀 교육을 못 받았다.

(2) 초등학교 중퇴

(3) 초등학교 졸업

(4) 중학교 중퇴,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중퇴

(5) 고등학교 졸업

(6) 직업학교

(7) 대학 중퇴

(8) 대학 졸업

(9) 응답거절

* 초등학교 졸업 (1), (2), (3) = 1

* 중학교 졸업 (4) = 2

* 고등학교 졸업 (5), (6) = 3

* 대학교 재학 및 대학교 졸업 (7), (8) = 4

* 응답거절 (9) = 결측값

<가구소득>

SQ9. 00님 가정의 수입은 다음의 5단계 중 어디에 속합니까?

(1) 하위20%미만 = 1 (2) 20%이상~40%미만 = 2

(3) 40%이상~60%미만 = 3 (4) 60%이상~80%미만 = 4

(5) 상위20%이상 (80%~100%) = 5

(7) 무응답 (8) 모른다

(9) 응답거부

* 무응답 /모름 / 응답거부 = 결측값

<출신지>

선문1. 거주지역

(1) 서울 (2) 인천 (3) 경기 (4) 부산 (5) 울산

(6) 경남 (7) 대전 (8) 충북 (9) 충남 (10) 광주

(11) 전북 (12) 전남 (13) 강원 (14) 대구 (15) 경북

* 서울/경기를 기준치(Baseline)로 한 충청, 호남, 영남지역 더미변수를 만들어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충청, 호남, 영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측정
* 충청더미변수 : 충청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호남더미변수 : 호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영남더미변수 : 영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제 16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 조사 문항 및 변수 코딩 지표

■ 종속변인

<투표참여>

문8.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

(1) 투표 = 1

(2) 기권 = 0

* 1 과 0 더미변수로 조작

■ 독립변인

<사실적 지식>

문6. 00지역구 당선자는 어느 정당의 후보였습니까?

문7. 이번 선거에서 선생님 지역구에서는 누가 당선되었습니까?

* 정답 = 1 / 모름, 무응답, 오답 = 0
* 맞은 개수를 합하여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측정
* 최소 0점～최대 2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Ⅰ : 일간신문/TV>

* 문항 없음

<매체 이용 빈도Ⅱ : 인터넷>

* 문항 없음

<정치 효능감Ⅰ : 권력 효능감>

* 문항 없음

<정치 효능감Ⅱ : 외적 효능감>

* 문항 없음

<정치 효능감Ⅲ : 내적 효능감>

문38-5. 선생님께서는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정말 그렇다. = 1

(2) 그런 편이다. = 2

(3)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

(4) 절대 그렇지 않은 편이다. = 4

(5) 모르겠다. = 0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시민적 의무감>

* 문항 없음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문20. 00님께서는, 00님 지역구의 현역의원이 지난 4년간 국회에서 한 활동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1) 매우 만족 = 4

(2) 만족하는 편 = 3

(3) 불만족하는 편 = 2

(4) 매우 불만족 = 1

* 역코딩

* 최소 1점~최대 4점, 높을수록 현직 국회의원 수행에 만족

<민주주의 지지도>

* 문항 없음

<정치활동 경험>

* 문항 없음

■ 통제변인

<성별>

(1) 남성 = 1

(2) 여성 = 0

<연령>

문40. 선생님의 연세는?

* 실제 연령으로 측정

<학력>

문41. 선생님의 최종학력은?

(1) 초등학교 이하 = 1

(2) 중졸 = 2

(3) 고졸 = 3

(4) 대재 이상 = 4

<가구소득>

문44. 선생님 댁의 전체수입은 한달 평균 어느 정도 됩니까?

(1) 60 미만 = 1 (2) 60~80 미만 = 2
(3) 80~100 미만 = 3 (4) 100~130 미만 = 4
(5) 160~190 미만 = 5 (6) 190~220 미만 = 6
(7) 220~250 미만 = 7 (8) 250~300 미만 = 8
(9) 350 이상
* 무응답 /모름 / 응답거부 = 결측값

<출신지>
선문1. 거주지역
(1) 서울 (2) 경기 (3) 강원 (4) 충북 (5) 충남
(6) 전북 (7) 전남 (8) 경북 (9) 경남 (10) 제주
(11) 이북 (12) 기타
* 서울/경기를 기준치(Baseline)로 한 충청, 호남, 영남지역 더미변수를 만들어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충청, 호남, 영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측정
* 충청더미변수 : 충청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호남더미변수 : 호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영남더미변수 : 영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제 15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 조사 문항 및 변수 코딩 지표

■종속변인
<투표참여>
문7. 00님께서는 이번 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
(1) 투표 = 1
(2) 기권 = 0
* 1 과 0 더미변수로 조작

■ 독립변인

<사실적 지식>

문1. 이번 선거에서 00님 지역구에서는 누가 당선되었습니까?

문2. 그 당선자는 어느 정당의 후보였습니까?

* 정답 = 1 / 모름, 무응답, 오답 = 0
* 맞은 개수를 합하여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측정
* 최소 0점～최대 2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Ⅰ : 일간신문/TV>

* 문항 없음

<매체 이용 빈도Ⅱ : 인터넷>

* 문항 없음

<정치 효능감Ⅰ : 권력 효능감>

* 문항 없음

<정치 효능감Ⅱ : 외적 효능감>

문30. 다음 질문은 00님의 “한 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평소의 생각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30-3. 국회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영향없다. = 1
(2) 영향없는 편 = 2
(3) 영향있는 편 = 3
(4) 큰 영향있다. = 4
(9) 무응답

* 무응답 = 결측값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정치 효능감Ⅲ : 내적 효능감>
* 문항 없음.

<시민적 의무감>
* 문항 없음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 문항 없음

<민주주의 지지도>
* 문항 없음

<정치활동 경험>
* 문항 없음

■ 통제변인
<성별>
(1) 남성 = 1
(2) 여성 = 0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이상

<학력>
(1) 중졸이하 = 1
(2) 고졸 = 2

(3) 대재 = 3
(4) 대졸 이상 = 4

<가구소득>

(1) 40 미만 = 1
(2) 40~60 미만 = 2
(3) 60~80 미만 = 3
(4) 80~100 미만 = 4
(5) 100~130 미만 = 5
(6) 130~160 미만 = 6
(7) 160~190 미만 = 7
(8) 190~220 미만 = 8
(9) 220 이상

<출신지>

(1) 서울 (2) 부산/경남 (3) 인천/경기 (4) 대구/경북
(5) 광주/전남 (6) 대전/충남 (7) 강원 (8) 충북
(9) 전북 (10) 제주/기타

* 서울/경기를 기준치(Baseline)로 한 충청, 호남, 영남지역 더미변수를 만들어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충청, 호남, 영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측정
* 충청더미변수 : 충청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호남더미변수 : 호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영남더미변수 : 영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제 14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의식 조사 문항 및 변수 코딩 지표

■ 종속변인

<투표참여>

문9. 선생님은 이번 선거에 투표하셨습니까?

(1) 투표했다 = 1

(2) 기권했다 = 0

* 1 과 0 더미변수로 조작

■독립변인

<사실적 지식>

문1. 이번 선거에서 선생님 지역구에서는 누가 당선되었습니까?

문2. 그 당선자는 어느 정당의 후보였습니까?

* 정답 = 1 / 모름, 무응답, 오답 = 0

* 맞은 개수를 합하여 0점에서 2점까지 점수를 측정

* 최소 0점～최대 2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적 지식수준이 높음

<매체 이용 빈도Ⅰ : 일간신문/TV>

* 문항 없음

<매체 이용 빈도Ⅱ : 인터넷>

* 문항 없음

<정치 효능감Ⅰ : 권력 효능감>

* 문항 없음

<정치 효능감Ⅱ : 외적 효능감>

※문27. 선생님의 한 표가 정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중요하다. = 4

(2) 어느 정도 중요하다 = 3

(3) 별로 중요하지 않다 = 2

(4) 전혀 중요하지 않다 = 1

* 역코딩

* 최소 1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정치효능감이 높음

<정치 효능감Ⅲ : 내적 효능감>
* 문항 없음.

<시민적 의무감>
* 문항 없음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문29. 선생님 지역 출신 13대 국회의원은 맡은 얼마나 잘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잘 해왔다. = 4
(2) 잘 해온 편이다. = 3
(3) 못 해온 편이다. = 2
(4) 매우 못 해왔다. = 1
(5) 모르겠다. = 0
* 최소 0점～최대 4점, 점수가 높을수록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

<민주주의 지지도>
* 문항 없음

<정치활동 경험>
* 문항 없음

■ 통제변인
<성별>
문45. 선생님의 성별은?

(1) 남성 = 1
(2) 여성 = 0

<연령>
문44. 선생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응답자의 실제 연령

<학력>
(1) 국민학교 = 1
(2) 중학교 = 2
(3) 고등학교 = 3
(4) 대학교 = 4

<가구소득>
(1) 40 미만 = 1 (2) 40~79 미만 = 2
(3) 80~119 미만 = 3 (4) 120~159 미만 = 4
(5) 160~199 미만 = 5 (6) 200~299 미만 = 6
(7) 300~399 미만 = 7 (8) 400 이상 = 8

<출신지>
(1) 서울 (2) 경기도 (3) 강원도 (4) 충청도
(5) 전라도 (6) 경상도 (7) 제주도 (8) 이북5도
* 서울/경기를 기준치(Baseline)로 한 충청, 호남, 영남지역 더미변수를 만들어서 서울/경기 지역에 비해 충청, 호남, 영남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참여 확률이 얼마나 증가하는 지를 측정
* 충청더미변수 : 충청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호남더미변수 : 호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 영남더미변수 : 영남지역 = 1, 나머지 지역 = 0

[부록 2]

1. 종속변인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 기술통계량 (19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지식	투표참여	778	0	3	2.3985	.73738
	기권	222	0	3	1.9279	.88437
매체이용빈도 I (일간신문/TV)	투표참여	778	0	4	2.8021	1.04192
	기권	222	0	4	2.2748	1.25404
매체이용빈도 II (인터넷)	투표참여	778	0	4	2.4036	1.13807
	기권	222	0	4	2.2883	1.53719
정치 효능감 I (권력 효능감)	투표참여	776	0	5	3.7500	1.25404
	기권	219	0	5	3.2329	1.49616
정치 효능감 II (외적 효능감)	투표참여	774	0	5	4.0969	1.53719
	기권	220	0	5	3.2591	1.49616
정치 효능감 III (내적 효능감)	투표참여	760	0	4	3.1579	.93042
	기권	220	0	4	2.6000	1.07864
시민적 의무감	투표참여	778	0	1	.8303	.37558
	기권	222	0	1	.4099	.49293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투표참여	776	0	4	1.8982	.89223
	기권	221	0	4	1.5113	.98908
민주주의 지지도	투표참여	775	0	4	2.7071	.94998
	기권	222	0	4	2.6036	1.09113
정치활동 경험	투표참여	778	0	1	.2751	.44683
	기권	222	0	1	.2072	.40622

2. 종속변인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 기술통계량 (18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지식	투표참여	644	0	3	2.4099	.75423
	기권	356	0	3	2.2191	.83735
매체이용빈도 I (일간신문/TV)	투표참여	644	0	4	2.8566	1.07825
	기권	356	0	4	2.5534	1.11581
매체이용빈도 II (인터넷)	투표참여	644	0	4	2.1490	1.19855
	기권	356	0	4	2.1742	1.17390

정치 효능감Ⅰ (권력 효능감)	투표참여	632	0	5	3.7978	1.43351
	기권	352	0	5	3.3153	1.51347
정치 효능감Ⅱ (외적 효능감)	투표참여	630	0	5	3.9778	1.33659
	기권	352	0	5	3.4034	1.48565
정치 효능감Ⅲ (내적 효능감)	투표참여	639	0	4	3.0221	1.09059
	기권	346	0	4	2.6069	1.08554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투표참여	639	0	4	1.9108	.96808
	기권	350	0	3	1.5657	1.04619
민주주의 지지도	투표참여	644	0	4	2.7465	.99287
	기권	353	0	4	2.5014	1.06634
정치활동 경험	투표참여	644	0	1	.1087	.31150
	기권	356	0	1	.0702	.25588

3. 종속변인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 기술통계량 (17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지식	투표참여	1174	0	3	2.7385	.58156
	기권	326	0	3	2.4601	.81332
매체이용빈도Ⅰ (일간신문/TV)	투표참여	1171	0	4	3.0615	1.07718
	기권	324	0	4	2.6327	1.12017
매체이용빈도Ⅱ (인터넷)	투표참여	1168	0	4	1.9332	1.18068
	기권	323	0	4	1.9628	1.16036
정치 효능감Ⅰ (권력 효능감)	투표참여	1169	0	5	6.5885	1.40908
	기권	324	0	5	3.0957	1.49305
정치 효능감Ⅱ (외적 효능감)	투표참여	1169	0	5	3.7391	1.39453
	기권	324	0	5	3.2778	1.49613
정치 효능감Ⅲ (내적 효능감)	투표참여	1167	0	4	3.2005	.83197
	기권	322	0	4	2.5932	.95979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투표참여	1173	0	4	1.8960	.93715
	기권	323	0	4	1.5232	.100708
민주주의 지지도	투표참여	1162	0	4	2.9535	.84015
	기권	322	0	4	2.7236	.92457
정치활동 경험	투표참여	1174	0	1	.1048	.30639
	기권	326	0	1	.0460	.20983

4. 종속변인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 기술통계량 (16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지식	투표참여	822	0	2	1.8491	.43492
	기권	278	0	2	1.5252	.73912
정치 효능감Ⅲ (내적 효능감)	투표참여	822	0	4	3.0839	.88237
	기권	278	0	4	2.643	.95848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투표참여	822	1	5	2.5949	.79169
	기권	278	1	5	2.6583	.70720

5. 종속변인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 기술통계량 (15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지식	투표참여	974	0	2	1.8768	.38897
	기권	226	0	2	1.6858	.62785
정치 효능감Ⅱ (외적 효능감)	투표참여	974	1	4	2.6704	1.00421
	기권	226	1	4	2.8761	.95808

6. 종속변인 범주에 따른 독립변인 기술통계량 (14대)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사실적 지식	투표참여	1021	0	2	1.7845	.50351
	기권	167	0	2	1.5749	.75576
정치 효능감Ⅱ (외적 효능감)	투표참여	1015	2	4	3.5143	.61981
	기권	168	1	4	3.1607	.72037
현직 국회의원 만족감	투표참여	1020	0	4	1.7608	1.10296
	기권	167	0	4	1.4731	1.12910

[부록 3] 1.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19대)

(*: p<.05, **: p<.01, ***: p<.001)

	지식	매체 I	매체 II	효능 I	효능 II	효능 III	의무감	의원	민주	참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충청	호남	영남
지식	1																
매체 I	.200**	1															
매체 II	.138**	.185**	1														
효능 I	.120**	.075*	.137**	1													
효능 II	.169**	.107**	.131**	.573**	1												
효능 III	.217**	.173**	.155**	.260**	.378**	1											
의무감	.158**	.239**	.062	.165**	.245**	.287**	1										
의원	.146**	.121**	-.006	.079*	.075*	.010	.150**	1									
민주	.130**	.092**	.138**	.167**	.136**	.092**	.069*	.064**	1								
참여	.110**	.065**	.172**	.175**	.186**	.195**	.085**	-.033	.102**	1							
성별	.083**	0.56	.116**	.080*	.015	.035	-.012	.054	.081*	.018	1						
연령	-0.47	.161**	-.457**	-.039	-.025	-.064*	.109**	.134**	-.039	-.117**	-.045	1					
학력	.155**	.016	.522**	.070*	.083**	.126**	-.056	-.013	.107*	.213**	.150**	-.624**	1				
소득	.177**	.062	.315**	.063	.083**	.115**	.009	.037	.129**	.136**	.057	-.255**	.416**	1			
충청	.011	-.030	-.084**	-.049	-.041	-.019	-.009	.056	-.040	-.068*	.029	.034	-.085**	-.005	1		
호남	.026	.053	-.018	.041	.039	.043	.061	-.033	.022	.009	-.011	.081*	-.100**	-.037	-.182**	1	
영남	-.011	.044	-.044	-.047	-.011	.009	-.005	.073*	-002	-.002	-.013	.028	.011	-.054	-.271**	-.302**	1

2.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분석 (18대)

(*: p<.05, **: p<.01, ***: p<.001)

	지식	매체Ⅰ	매체Ⅱ	효능Ⅰ	효능Ⅱ	효능Ⅲ	의원	민주	참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충청	호남	영남
지식	1															
매체Ⅰ	.218**	1														
매체Ⅱ	.186**	.341**	1													
효능Ⅰ	.079*	.062	.067*	1												
효능Ⅱ	.125**	.104**	.025	.550**	1											
효능Ⅲ	.156**	.226**	.132**	.097*	.155**	1										
의원	.079*	.099**	.069*	.109**	.062	.122**	1									
민주	.197**	.115**	.096**	.097**	.108**	.187**	.188**	1								
참여	.054**	.130**	.118**	.003	.052	.056**	.048	.061	1							
성별	.130**	.146	.179**	.009	-.035	.130**	.067*	.054	.085*	1						
연령	-.098	..091**	-.349**	.001	.084**	-.014	.022	-.070*	-.001	-.048	1					
학력	.162**	.081*	.408**	.058	.000	.096**	.040	.165**	.073*	.195**	-.511**	1				
소득	.076*	.103*	.206**	.045	-.013	.022	.056	.139**	.032	-.012	-.197**	.405**	1			
충청	-.043	.031	-.036	.026	.018	.048	.078*	-.095**	.056	.025	.059	-.068**	-.087*	1		
호남	.011	-.036	-.016	-.035	-.056	-.025	.001	.006	-.003	-.034	.069*	-.081**	-.006	-.187**	1	
영남	-.001	-.098**	-.109*	-.042	-.057	-.013	-.015	-.035	-.082*	.004	-.005	-.053	-.100*	-.264**	-.298**	1

3.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17대) (*: p<.05, **: p<.01, ***: p<.001)

	지식	매체 Ⅰ	매체 Ⅱ	효능 Ⅰ	효능 Ⅱ	효능 Ⅲ	의원	민주	참여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충청	호남	영남
지식	1															
매체 Ⅰ	.209**	1														
매체 Ⅱ	.133**	.305**	1													
효능 Ⅰ	.152**	.104*	.108**	1												
효능 Ⅱ	.100**	.140**	.120**	.357**	1											
효능 Ⅲ	.133**	.276**	.119**	.084**	.171**	1										
의원	.058*	-.024	-.064*	.070**	.050	.027	1									
민주	.143**	.096**	.124**	.135**	.164**	.105**	.083**	1								
참여	.058*	.158**	.201**	.097**	.074**	.120**	-.004	.081**	1							
성별	.170**	.169**	.126**	.057*	-.008	.055*	.039	.070**	.112**	1						
연령	-0.35	..035	-.417**	-.048	.007	.062*	.112**	-.072**	-.063*	-.009	1					
학력	.205**	.185**	.403**	.145**	.055**	.040**	.002	.129**	.099**	.134**	-.452**	1				
소득	.107**	.101**	.184**	.057*	.094**	.063**	-.005	.045**	.104*	.035	-.131**	.326**	1			
충청	-.054*	-.033	.002	-.025	-.023	-.096**	-.026	.043	-.014	.007	.019	-.034	.127**	1		
호남	.003	-.007	-.029	-.040	.033	.094**	.008	.000	.049	-.004	.068*	-.134**	-.081**	-.118**	1	
영남	.013	-.066*	-.028	.077**	.061*	.018	-.025	.002	.020	-.002	-.008	.001	.028	-.148**	-.158**	1

4.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16대)

	지식	효능Ⅲ	의원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충청	호남	영남
지식	1									
효능Ⅲ	.136**	1								
의원	.059	.027	1							
성별	.072*	.051	-.057	1						
연령	.022	.031	.088**	-.067*	1					
학력	.082**	.048	-.093**	.204**	-.683**	1				
소득	.090**	.072*	-.011	.021	-.294**	.418**	1			
충청	-.049	-.006	-.044	.030	.088**	-.034	-.076*	1		
호남	.059	.023	.018	-.002	.025	-.075*	-.015	-.231**	1	
영남	.081**	.058	-.016	-.004	.049	-.054	-.013	-.293**	-.334**	1

(*: p<.05, **: p<.01, ***: p<.001)

5.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15대)

	지식	효능Ⅱ	성별	세대	학력	소득	충청	호남	영남
지식	1								
효능Ⅱ	.036	1							
성별	.051	.053	1						
세대	.035	.054	-.006	1					
학력	.018	-.056	-.170**	-.472**	1				
소득	.052	-.035	.009	-.284**	.345**	1			
충청	.011	-.064*	-.041	.017	-.013	-.029	1		
호남	.079**	.047	.012	-.003	-.067*	-.026	-.238**	1	
영남	-.056	.021	.018	.093**	-.013	-.155**	-.324**	-.353**	1

(*: p<.05, **: p<.01, ***: p<.001)

6. 독립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14대)

	지식	효능Ⅲ	의원	성별	연령	학력	소득	충청	호남	영남
지식	1									
효능Ⅲ	.099**	1								
의원	.084**	.118**	1							
성별	.098**	.026	.070*	1						
연령	-.088**	-.013	.062*	.038	1					
학력	.141**	.014	-.037	.152**	-.545**	1				
소득	.086**	-.021	.017	-.002	-.253**	.389**	1			
충청	-.088**	-.059*	.010	.043	.035	-.038	-.037	1		
호남	.018	.061*	.005	-.041	.042	-.071*	-.070*	-.238**	1	
영남	.079**	-.024	-.024	.007	.036	-.058	-.061	-.308**	-.355**	1

(*: p<.05, **: p<.01, ***: p<.001)

[부록 4]

1. 19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요인

구분			B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Exp(B)
독립변인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412	.129	10.227	.001**	1.510
		매체 이용 빈도 I	.139	.102	1.846	.174	1.149
		매체 이용 빈도 II	.006	.099	.003	.953	1.006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 I	-.040	.086	.212	.645	.961
		정치 효능감 II	.340	.093	13.304	.000***	1.405
		정치 효능감 III	.182	.115	2.478	.115	1.199
		시민적 의무감	1.608	.213	57.066	.000***	4.991
		현직 국회 의원만족감	.296	.111	7.077	.008**	1.344
		민주주의 지지도	-.151	.107	1.997	.158	.860
	정치적 행동	정치활동 경험	-.199	.247	.644	.422	.820
통제변인		성별	.118	.207	.324	.569	1.125
		연령	.021	.009	4.941	.026*	1.021
		학력	.079	.156	.259	.611	1.083
		가구소득	.034	.038	.797	.372	1.034
		충청	.231	.328	.494	.482	1.259
		호남	.174	.303	.328	.567	1.190
		영남	.164	.243	.452	.501	1.178
상수항			-4.206	.901	21.809	.000	.015

-2 Log Likelihood=642.894[a] Model Chi-Square=195.201 df=17 p=.000

Nagelkerke R Square=.332

*: p<.05, **: p<.01, ***: p<.001

2. 18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요인

구분			B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Exp(B)
독립변인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268	.111	5.838	.016*	1.307
		매체 이용 빈도 I	.167	.085	3.874	.049*	1.182
		매체 이용 빈도 II	-.038	.084	.209	.648	.962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 I	.083	.067	1.535	.215	1.087
		정치 효능감 II	.117	.071	2.752	.097	1.124
		정치 효능감 III	.358	.080	19.961	.000***	1.431
		시민적 의무감	-	-	-	-	-
		현직 국회 의원만족감	.242	.084	8.294	.004**	1.274
		민주주의 지지도	.085	.089	.906	.341	1.088
	정치적 행동	정치활동 경험	.458	.292	2.449	.118	1.580
통제변인		성별	-.010	.172	.003	.955	.990
		연령	.023	.007	11.008	.001**	1.023
		학력	-.094	.086	1.198	.274	.911
		가구소득	.040	.036	1.286	.257	1.041
		충청	.047	.254	.035	.852	1.049
		호남	.364	.242	2.275	.131	1.439
		영남	.213	.203	1.105	.293	1.237
상수항			-3.855	.648	35.404	.000	.021

-2 Log Likelihood=898.142[a] Model Chi-Square=105.460 df=16 p=.000
Nagelkerke R Square=.175

*: p<.05, **: p<.01, ***: p<.001

3. 17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요인

구분			B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Exp(B)
독립변인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573	.126	20.662	.000***	1.774
		매체 이용 빈도 I	.182	.083	4.828	.028*	1.199
		매체 이용 빈도 II	.001	.084	.000	.986	1.001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 I	.174	.060	8.320	.004**	1.190
		정치 효능감 II	.040	.062	.415	.519	1.041
		정치 효능감 III	.637	.093	47.387	.000***	1.891
		시민적 의무감	-	-	-	-	-
		현직 국회 의원만족감	.353	.084	17.496	.000***	1.423
		민주주의 지지도	.176	.099	3.207	.073	1.193
	정치적 행동	정치활동 경험	.810	.356	5.170	.023*	2.247
통제변인		성별	.026	.171	.023	.879	1.026
		연령	.050	.008	41.748	.000***	1.051
		학력	-.071	.124	.328	.567	.931
		가구소득	.048	.094	.263	.608	1.049
		충청	.252	.294	.734	.392	1.287
		호남	-.082	.263	.096	.756	.922
		영남	-.131	.219	.354	.552	.878
상수항			-6.366	.730	75.996	.000	.002

-2 Log Likelihood=954.809[a] Model Chi-Square=235.542 df=16 p=.000
Nagelkerke R Square=.287

*: p<.05, **: p<.01, ***: p<.001

4. 16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요인

구분			B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Exp(B)
독립변인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932	.139	45.223	.000***	2.539
		매체 이용 빈도 I	-	-	-	-	-
		매체 이용 빈도 II	-	-	-	-	-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 I	-	-	-	-	-
		정치 효능감 II	-	-	-	-	-
		정치 효능감 III	.536	.084	40.693	.000***	1.709
		시민적 의무감	-	-	-	-	-
		현직 국회 의원만족감	.382	.107	12.837	.000***	1.466
		민주주의 지지도	-	-	-	-	-
	정치적 행동	정치활동 경험	-	-	-	-	-
통제변인		성별	-.069	.160	.187	.666	.933
		연령	.059	.009	46.775	.000***	1.060
		학력	.079	.131	.369	.514	1.083
		가구소득	-.080	.043	3.494	.062	.923
		충청	.140	.237	.352	.553	1.151
		호남	.530	.229	5.383	.020*	1.700
		영남	.072	.195	.135	.713	1.074
상수항			-5.314	.770	47.652	.000	.005

-2 Log Likelihood=1012.088[a] Model Chi-Square=231.598 df=10 p=.000
Nagelkerke R Square=.280

*: p<.05, **: p<.01, ***: p<.001

5. 15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요인

구분			B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Exp(B)
독립변인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769	.152	25.599	.000***	2.157
		매체 이용 빈도 I	-	-	-	-	-
		매체 이용 빈도 II	-	-	-	-	-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 I	-	-	-	-	-
		정치 효능감 II	.480	.097	24.436	.000***	1.616
		시민적 의무감	-	-	-	-	-
		현직국회 의원만족감	-	-	-	-	-
		민주주의 지지도	-	-	-	-	-
	정치적 행동	정치활동 경험	-	-	-	-	-
통제변인		성별	.228	.162	1.981	.159	1.257
		세대	.532	.079	45.097	.000***	1.702
		학력	-.097	.090	1.168	.280	.908
		가구소득	-.035	.039	.806	.369	.965
		충청	-.205	.224	.837	.360	.815
		호남	.120	.229	.275	.600	1.128
		영남	.366	.210	3.051	.081	1.443
상수항			-2.232	.548	16.578	.090	.107

-2 Log Likelihood=1015.276[a] Model Chi-Square=145.384 df=9 p=.000

Nagelkerke R Square=.184

*: p<.05, **: p<.01, ***: p<.001

6. 14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참여 요인

구분			B	표준 오차	Wald	유의 확률	Exp(B)
독립변인	정치적 지식	사실적 지식	.554	.159	12.138	.000***	1.739
		매체 이용 빈도 I	-	-	-	-	-
		매체 이용 빈도 II	-	-	-	-	-
	정치적 태도	정치 효능감 I	-	-	-	-	-
		정치 효능감 II	.629	.146	18.608	.000***	1.876
		정치 효능감 III	-	-	-	-	-
		시민적 의무감	-	-	-	-	-
		현직국회 의원만족감	.135	.090	2.255	.133	1.144
		민주주의 지지도	-	-	-	-	-
	정치적 행동	정치활동 경험	-	-	-	-	-
통제변인		성별	.288	.204	2.001	.157	1.334
		연령	.031	.010	10.633	.001**	1.032
		학력	.007	.133	.003	.956	1.007
		가구소득	-.172	.071	5.934	.015*	.842
		충청	-.363	.282	1.653	.199	.696
		호남	.040	.289	.019	.891	1.040
		영남	-.139	.252	.301	.583	.871
상수항			-2.143	.839	6.523	.011	.117

-2 Log Likelihood=697.116[a] Model Chi-Square=65.903 df=10 p=.000
Nagelkerke R Square=.122

*: p<.05, **: p<.01, ***: p<.001

Abstract

Factors Affecting Voting Turnout and Their Evidence from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Yoo, Hyeyoung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 Advisor: Kim, Heemin, Ph. D.

The functions of voting are to elect and judge the government, and vot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sustaining the basis of democracy. Despite the importance of implications for voting, our society has been faced with the recent social phenomenon of the decline in voter turnout. Especially, this trend is noticeably shown among voters of young age. This has caused a 'crisis of participation and representability in our democracy.'

'This participation' is a central notion of social studies aiming to foster democratic citizenship within our society. This is also related to the recent trend of an emphasis on 'active citizenship,' In this respect, the phenomenon of the decline in voter turnout causing 'a

crisis of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bility in our democracy' is also directly connected to 'a crisis of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meantime, social studies education have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participation without discussing the factors causing participation. However, an analysis of factors determining participation must precede to overcome the lack of participation and to achieve true educational effects.

Based on the issues above, I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duce voters to turnout and thus, those that actual education should emphasize.

The actual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 Hypothesis 1. Voters′ knowledge of politics will influence the likelihood of their participation in voting.

1-1. The more voters have factual knowledge,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1-2. The more often voters use the media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ublic affair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1-2-1. The more often voters read newspapers and watch TV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ublic affair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1-2-2. The more often voters use the internet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ublic affair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 Hypothesis 2. Voters′ political attitude will influence the likelihood of their participation in voting.

2-1. The higher voters′ perception of their political efficacy i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2-2. The more intense voters' a sense of civic duty i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2-3. The more voters' are satisfied with the performance of incumbent National Assembly member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2-4. The more voters espouse democracy,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 Hypothesis 3. Voters' political behavior will influence the likelihood of their participation in voting.

3-1. The more voters have participated in political event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In order to test the hypotheses above, I analyzed Korean voting participation, using a 'survey of voter turnout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South Korea,' provided by the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KSDC). The data includes a total of 6 election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from the 14th election in 1992 to the 19th election in 2012. I conduct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using PSAW 18.0 statistics package.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are as follows. :

First, the voters' political knowledge has being on their decision to participate in elections. The more factual knowledge voters have aimed the more often voters read newspapers and watch television to obtain information about public affair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Second, the higher voters' perception of political efficacy, a sense of civic duty and the satisfaction with incumbent National Assembly members' performance,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Third, the more active voters participate political events, the more likely they will vote.

keywords : participation, voting, election, civic education
Student Number : 2011-21538